



Contents

I. 일본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II. 중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39
III. 미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67
IV. 네덜란드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83
V. 홍콩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03
VI. 대만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39
VII. 말레이시아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83
VIII. 태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203

I

일본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 일반사항

-
- 공식국명 : 日本(JAPAN), 수도 : 도쿄 (東京, TOKYO)

 - 면 적 : 377,829km²(한반도 면적의 1.7배)

 - 위 치 : 북위 45°33' 에서 20°25' 사이에 위치(4개의 주요섬으로 구성)

 - 기 후 : 4계절 뚜렷, 해양성 온대기후(남-북3,300km, 지역별 기후 차이 심함)

 - 인 구 : 1억 2,792만명 (2011년 8월 총무성 통계국 기준)

 - 주요도시 : 도쿄(869만명), 요코하마(364), 오사카(251), 나고야(224), 삿포로(188), 교토(147), 후쿠오카(143), 히로시마(116)

 - 인 종 : 몽고족(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및 아이누족 등 1% 미만

 - 종 교 :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

□ 경제 지표

-
- GDP : 506.8조 엔('11)

 - 1인당 GDP : 3,660천 엔('11) (△2.2%)

 - 실질GDP성장률 : △0.9%

 - 무역규모 : - 수 출 입 : ('10)1조 4,571.4억 불 → ('11) 1조, 6,706
 - 수 출 : ('10) 7,670억 불 → ('11) 8,197(6.9%)
 - 수 입 : ('10) 6,914억 불 → ('11) 8,509 (23.1%)
 - 무역수지 : ('10) 756억 불 → ('11) △312
 * '11년 금액은 연평균환율로 환산(79.97엔/\$)

 - 농수산물 : - 수 출 : ('10) 6,153백만 불 → ('11) 5,242 (△14.8%)
 - 수 입 : ('10) 89,026백만 불 → ('11) 93,511 (5.0%)
 - 환산환율 : ('10) ₩86.10/\$ → ('11) 79.97 (7.1%엔고)

 - 외환보유액 : 1조 3,067억 달러('12.1)

1. 일본 농업의 현황

가. 농업분야의 환경변화

□ 일본농업 내·외부 환경변화

- 일본국내의 농업총생산(부가가치액)은 1990년 8조9,986억엔에서 2010년 4조 6,645억엔(총 GDP대비 0.97%)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 1990년 농업 총 산출액은 11조4,927억엔에서 2010년 8조1,214억엔으로 감소
 - 판매농가수는 297.1만호(총 농가대비 77.5%)에서 163.1만호(64.5)로 45% 감소
 - 경지면적 602.8만ha(논 310.만천ha)에서 459.3만ha(논 249.6만ha)로 약 24% 감소
 - 판매농가의 평균 농업소득 122만엔으로 2003년 130만엔 대비 약 6% 감소¹⁾
- 경작포기지는 21.7만ha(5%)에서 39.6만ha(11%)로 확대²⁾
 - 주업농가와 준주업농가의 경우에는 큰 변동 없이 현상 유지되고 있으나, 토지소유 비농가와 자급적 농가는 증가세(2010년 27.2ha로 약 70% 차지)
 - 경작포기 원인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지역 내 경작자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익성 감소 등 농업경영조건 악화에도 기인함³⁾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이 명시되면서 급속히 법인화가 진행 중이며(2010년 법인경영체 21,627개), 특히 회사법인(주식, 유한)과 농사조합법인(집락영농)이 큰 폭으로 증가함.⁴⁾
- FTA 등 포괄적 경제연대 추진에 있어 한국에 뒤쳐져 있다고 판단, TPP 교섭에 참가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국내 반대 여론으로 난항
 - 중의원 선거('12.12.16)를 앞두고 각 정당은 TPP 참가 여부를 포함한 마니페스토 준비 중 (현 단계 : 민주당 노다총리 ‘교섭 참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자민당 아베총재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반대’)
 - 농림수산성은 TPP참여시 자급률(40%→14%) 하락과 농업 생산 감소(농업 산출액 기준 연간 4.1조엔)를 주장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농업피해현황

- 동일본대지진으로 농림수산피해액은 약 2조4천억 엔⁵⁾

1) 2005년부터 조사체계를 변경하였기에, 새로운 조사체계로 재산정하여 농림수산성 자료로 공개된 200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함(2003년:130만엔 → 2004:126 → 2005:124) (자료:<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59865> ‘조사결과 개요’)

2) 자료 : http://www.maff.go.jp/j/nousin/tikei/houkiti/pdf/genjou_1103r.pdf ‘경작방기지 현상에 관하여’

3)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nousin/tikei/houkiti/pdf/tebiki01.pdf> 자료 중 ‘耕作放棄地 발생 원인’

4)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tokei/census/afc/2010/pdf/bunseki_youyaku4.pdf 중 ‘3 농업경영체의 구조 분석’. 전년 자료의 ‘2008년 기준 10,519개소’는 농업생산법인. 2010년 농업생산법인은 11,829개. (자료 http://www.maff.go.jp/j/wpaper/w_maff/h23/pdf/gaiyou.pdf ‘2011식료농업농촌백서 개요’ p.15)

5)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kanbo/joho/saigai/higai_taiou/index.html (2012.7.5.현재)

- 동북지역 6개현 피해면적은 약 23.6천ha(논 20.2, 밭 3.4)로 피해 면적률은 2.6%⁶⁾
- 2012년까지 피해면적의 39% 복구 계획(2013년 65%, 2014년 88%)
- 피해복구의 장기화와 방사능오염규제 강화로 생산축소 불가피
- 현재까지 작부곤란한 방사성세슘농도 5000Bq/kg이상 농지는 8,300ha로 파악
- 2012.4.1일부터 일반식품의 방사성세슘기준치를 500Bq/kg에서 100Bq/kg로 강화

□ 동일본 대지진발생 이후의 농산물유통현황

- 지진으로 인한 농지유출 및 침수피해를 입은 곳은 이와테현(岩手縣), 미야기현(宮城縣), 후쿠시마현(福島縣) 등 연안지역
-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지역은 후쿠시마현(福島縣), 이바라키현(茨城縣), 치바현(千葉縣), 도치기현(栃木縣), 군마현(群馬縣) 등
- 동북지역 산지 대부분이 소비자 방사능공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립어업자에 대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도쿄전력에서 1,196억 엔(2012.3.1일 현재) 배상 실시(청구 금액 1,822억 엔의 66%)
- 농축산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 실시, 쌀은 수확 전후 2단계 검사 실시 및 일부지역 작부 제한
- 기준치를 초과로 출하제한 요청 등의 조치가 내려진 지역과 품목 공개
-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인하여, 일부 식품의 수입정지,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및 산지증명서 요구로 수출에 타격

나. 민주당정부의 농정전략

□ 민주당 정부의 ‘정치 주도’ 정책결정 방식

- ‘정무3역회의(대신, 부대신, 정무관)’에서 각 부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 정부 구성원이자 정치가인 정무3역은, 기존의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정책을 운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관료 배제로 인한 부작용 노정으로 비판 받음

□ 민주당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농정전략

- 문제인식
- 1990년대부터 시장개방(외부여건), 농업노동력 고령화와 농지 유희화에 따른 생산축소 및 가격하락으로 농가 소득 감소
- 농림수산업의 수익성악화로 인한 농촌경제 침체
- 농정 과제
- 지구온난화와 지구의 자원문제에 대응
-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품의 안전·안심에 대한 기대상실에 대응
- 농산어촌 붕괴의 위기에 대한 대응

6)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press/nousin/sekkei/pdf/110329-02.pdf> (2011.3.29. 현재)

○ 접근 전략

- 소득문제해결, 식량자급률향상, 지역사회유지 등을 목적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직불제와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 호별소득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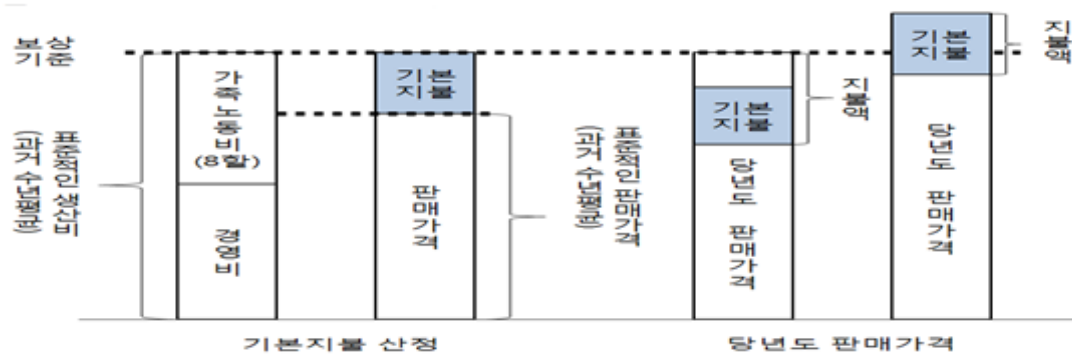
○ 도입 목적

- 식량자급률목표를 전제로 책정된 ‘생산수량목표’에 따라 생산한 판매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와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려는 제도
- 자급률향상, 농촌활성화, 판매농가 소득확보, 다원적 기능발휘, 지역사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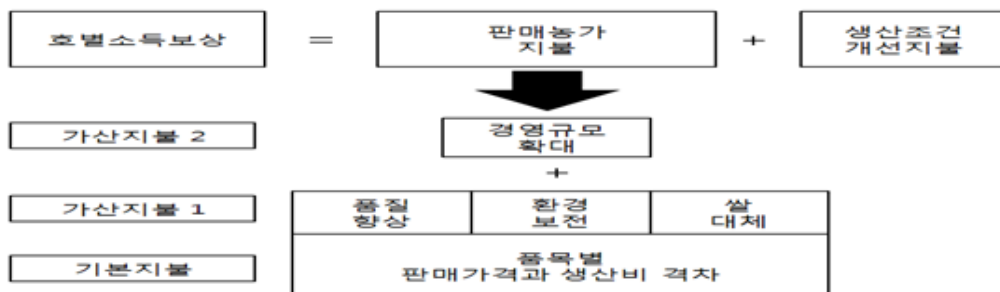
○ 대상 품목 및 대상농가

- 시장개방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쌀, 맥류, 대두 등을 대상으로 전체 판매농가가 대상
- 규모확대 농가가 직불대상이나, 선택제이기 때문에 규모 확대 효과에는 한계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기본 직불 〉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가산 직불방식 〉



○ 2010년 모델사업 실시 후 2011년도부터 본 사업 실시

- 2010년 실적 : 직불액 4,958억엔, 직불건수 1,163천건, 직불면적 1,127천ha

□ 농산어촌 6차산업화

-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2차·3차산업을 융합하여 농산어촌 지역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 산업간 융합은 농림어업자주도형과 타산업 사업자 주도형으로 구분
 - 농림어업의 생산(1차산업) 자체의 질적인 전환
 - 농림어업측이 주도적으로 2·3차 산업으로 진출하는 활동이 「6차산업화」로 농림수산성이 소관
 - 가공이나 판매·서비스부문의 사업자가 농림어업에 진입하여 창업하는 활동은 6차산업화보다 「농상공연계」로 경제산업성이 소관
- 농림수산성은 향후 5년간 6차산업 시장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10년 후에는 10조원 시장으로 육성 계획

□ 농림수산성의 조직

- 2011년 9월 농림수산성의 본성 및 지방농정국 등의 조직개편 단행

〈농림수산성 본성〉

- ① 농산어촌·농림어업의 6차산업화 등을 담당하는 ‘식료산업국’을 설치
- ② 미곡·맥류 정책을 포함한 농축산물 관계 정책을 생산국이 일원적으로 담당. 새롭게 ‘생산진흥심의관’을 설치
- ③ 호별소득보상 본격 실시에 따른 교부금과 제도전반 총괄을 경영국이 담당
- ④ 정책평가, 행정사업리뷰, 업무 리스크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무국 체제의 강화를 위해, 담당 정책평가심의관-대신관방평가개선과의 라인을 설정

〈농림수산성 지방조직〉

농업경영의 안정과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등을 정부에서 적확하게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농정사무소 등을 폐지하고, 지역센터(65개소) 및 지소(38개소)을 설치

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 3기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특징은 무역자유화와 국내농업활성화
 - ①식의 안전안심과 소비자 신뢰 확보, ②호별소득보상제도의 창설과 생산·경영 관련 시책 재편, ③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해 자급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무역자유화와 국내농업의 양립」을 도모한다는 점을 명시

□ 일본정부의 정책추진지침

- 2011년 5월 17일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정책추진지침」 각의결정
 - 지진·원자력피해 농어업인의 심정을 배려하면서 국가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 명시
 - 일본 언론은 한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품목 육성과,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문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진국가로 소개

□ 자유무역화에 대응한 기본방침과 분야별 대응전략수립

- 2011년10월 TPP교섭참가를 고려하여 「식과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기본방침과 행동계획(2016년 까지)」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
 - 2012년 예산(2조3,284억엔) 중 「식과 농림어업재생」 관련 예산은 총 1조2,034억엔으로, 이중 방사능피해대책의 하나인 수출회복사업예산은 2.38억엔
 - 2012년도 농림수산물수출촉진대책예산은 총 15.44억엔으로, 수출확대리드사업(3.18억엔), 수출확대서포드사업(9.12억엔), 동아시아식품산업해외전개지원사업(0.76억엔), 농산물수출회복사업(2.38억엔)으로 구성

〈 2012년 식과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전략별 예산 〉

구분	식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전략	관련예산(1조2,034억엔)
전략 1	지속 가능한 강한농업의 실현	7,697억엔
전략 2	6차산업화·성장산업화, 유통효율화	265억엔
전략 3	에너지생산에 농산어촌자원의 이용촉진	38억엔
전략 4	산림·임업재생	1,266억엔
전략 5	수산업재생	1,211억엔
전략 6	강한 농림수산 인프라구축	1,516억엔
전략 7	원자력재해대책	41억엔

- 식과 농림어업재생대책의 기본방침
 - 농산어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농림어업을 성장산업화
 - 토지이용형 농업의 실질적인 경영 규모 확대(평지 20~30ha, 중산간지 10~20ha 규모 경영체비율 80%)를 위해 기간적 종사자 확보, 농지·생산대책, 관련조직 등 관련시스템개혁을 통한 공격적 정책으로 전환
 - 농림어업자에 대한 안전망제공을 통해 농림어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
-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7개 전략
 - 전략1 : 신규취농 확대와 경영규모 확대로 지속가능한 강한 농업 실현
 - 전략2 : 6차산업화·성장산업화, 유통효율화로 농업경쟁력·체질강화
 - 전략3 : 에너지생산을 위한 농산어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 전략4 : 목재자급률 50% 달성과 산림·임업재생플랜 추진(2009년 발표)
 - 전략5 : 수산업 현대화

- 전략6 : 지진재해에 강한 농림수산 인프라구축(조기 추진)
- 전략7 : 원전사고에 따른 안전대책과 신뢰회복(조기 추진)

2. 일본의 농산물 무역동향

가.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 농림수산물 무역동향

-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4,511억엔으로 전년(4,920) 대비 △8.3%, 수입액은 8조 652억엔으로 전년(7조1,194) 대비 13.3% 증가⁷⁾
 -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는 7조6,141억엔(18배) 수입초과(전년비 15% 증가)
- 농림수산물 수입과 수출 국가·지역의 편중
 - 수입 상위 5개국 이 전체의 54%, 수출 상위 5개국 이 전체의 69% 차지

〈 농림수산물 주요 무역국가지역별 실적(2011) 〉

순위	수입국·지역	구성비(%)	수출국·지역	구성비(%)
1위	미국	22.1	홍콩	24.6
2위	중국	12.7	미국	14.8
3위	태국	7.0	타이완	13.1
4위	캐나다	6.2	한국	9.0
5위	호주	5.8	중국	7.9

〈 일본의 평균관세율의 국가간 비교 〉

구 분		일본	미국	EU	호주	중국	한국	태국
광공업품등 (비 농산품)	단순평균(%)	2.5	3.3	4.0	3.8	8.7	6.6	8.0
	무역가중평균(%)	1.2	1.9	2.4	5.6	4.0	3.3	3.9
농산품	단순평균(%)	21.0	4.7	13.5	1.3	15.6	48.6	22.6
	무역가중평균(%)	12.5	4.1	9.8	2.9	10.3	119.8	12.5

자료 : WTO

□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 농림수산물수출액을 2020년 1조엔까지 확대한다는 공격적 정책⁸⁾
 - 「일본재생 기본전략」(2011.12월 각의 결정)에서 목표달성시기 연기
- 품목별로는 농산품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식품의 비중 증가세
 - 2011년 수출액 중 가공식품은 1,253억엔으로 전체의 27.8% 차지

7) 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11년 확정치 http://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df/yusyutu_gaikyo_11.pdf

8)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index.html> '수출촉진대책의 개요'(2012.11월)

- 농림어업 생산과 가공·판매의 일체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창출 촉진 등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추진으로 수출 지원
 - 2011년 3월 시행된 「6차산업화법」을 통해 각종 수출지원 정책 추진
- 지진 이후(2011.4~12)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
 - 원전사태로 세계 42개국·지역에서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 수입규제 강화
 - 방사능검사 및 정보제공 강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중

〈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수입규제조치사례(2012.11.7. 현재) 〉

국가	대상 현	품목	조치
중국	10현	모든 식품, 사료	수입정지
	10현 이외	채소·채소제품, 우유·유제품, 차·차제품, 과일·과일제품, 약용식물산품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및 산지증명서 요구
		수산물 및 수생동물	상기 이외에 원산지, 수송경로를 기록한 검역허가신청 요구
		기타 식품·사료	산지증명서 요구
★ 한국	8현	시금치, 카키나, 쌀, 원유, 사료, 버섯류, 차류	수입정지 (품목별 수입정지대상 지역 상이)
	15현	상기 8현산 품목 제외 모든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13현	상기 8현산 품목 및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	
	13현 이외	모든 식품	산지증명서 요구
EU	후쿠시마	모든 식품, 사료(주류 제외)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시즈오카	버섯류, 차	
	야마나시	버섯류	
	9도현	버섯류, 차, 산채류, 일부채소, 일부과일, 해조류 제외 수산물, 곡류, 대두	
	후쿠시마 제외 46도도부현	상기 품목을 50% 이상 포함한 가공품 상기 이외 식품·사료(주류 제외)	산지증명서 요구
대만	5현	모든 식품	수입정지
	5현 이외	채소, 과일, 유제품, 수산물 등	전ロット 검사
홍콩	5현	채소, 과일, 우유 등	수입정지
		식육(계란 포함),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미국	8현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 까나리치어, 우육제품 등	수입정지 (품목별 수입정지대상 지역 상이)
	3현	우유, 유제품, 채소, 과일 등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농림수산물·식품수출전략」 추진(2011.11)

〈새로운 농림수산물·식품수출전략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향하여」〉⁹⁾

전략 1. 원전사고 영향 대응

- 대상국의 수입규제 완화 추진, 증명서 발급('11. 7만건) 체제 정비, 악성 루머 대응 등

전략 2. 국가전략적 마케팅

- 개별 지역과 기업을 초월한 재팬브랜드의 확립(과일, 와규)
- 비즈니스서포트 경험이 풍부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한 서포트
- * 올해 1월 JETRO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본부' 발족

전략 3. 비즈니스로서의 수출지원

- 6차 산업화와 펀드의 활용
- * 「주식회사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펀드법) 올해 12월 3일 시행

전략 4. 확실한 안전성·품질의 확보와 무역 실무상 리스크에의 적확한 대응

- 수출 대상국·지역 검역조건과 위생기준에의 대응 등 수출환경 정비
-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지리적표시보호제도 도입 등

전략 5. 해외에서의 일본 식문화 발신

- 와쇼쿠(和食, 일본인의 전통적 식문화)의 유테스코 등재 추진
-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에 「食」을 테마로 출전 준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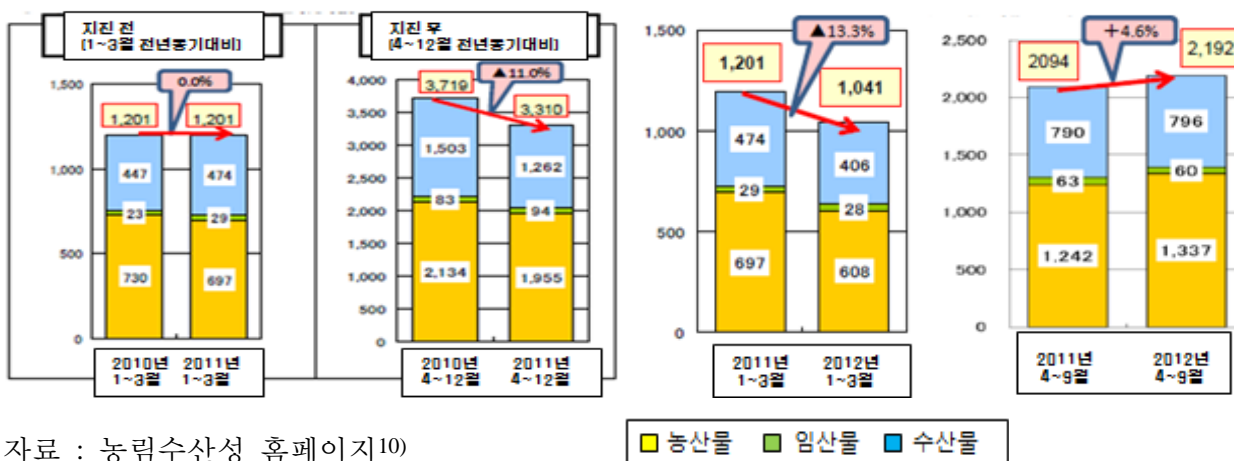
- 2011년 중반 이후 농산물 수출은 회복 국면

〈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

단위: 억 엔

〈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

단위: 억 엔



자료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¹⁰⁾

□ 일본의 농산물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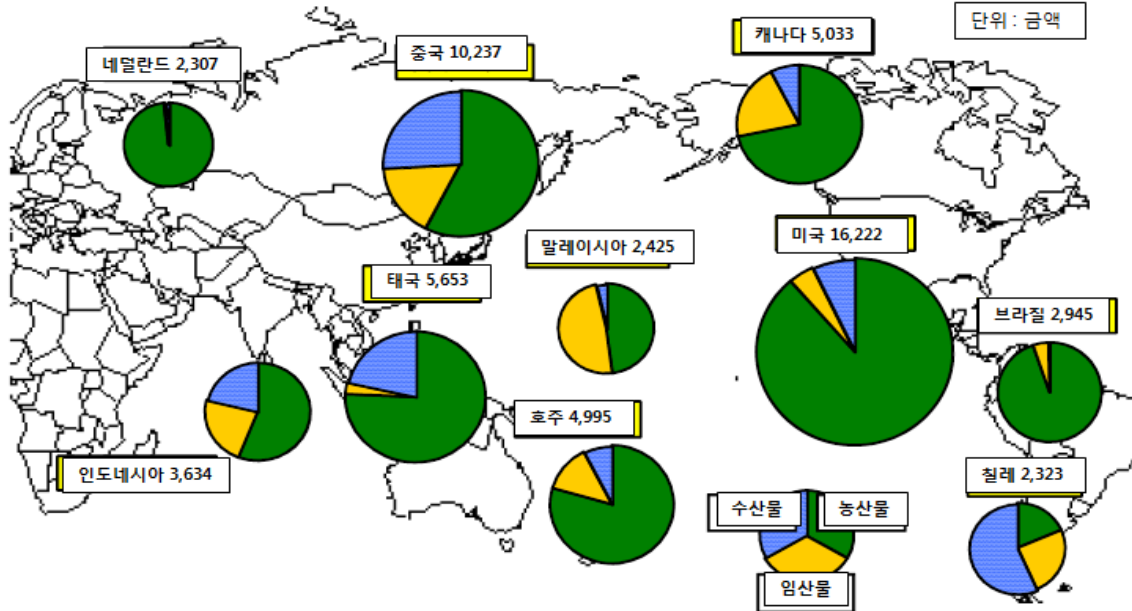
- 농산물 수입구조는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특정 국가·지역에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¹¹⁾

9) 농림수산성 자료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e_conf/pdf/sanko4.pdf

10)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수출촉진대책 개요'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e_conf/pdf/sanko5.pdf

- 세계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료곡물, 오일시드(oilseed)에서 그 경향이 강함
→ 수입국 다각화 등 리스크 분산 필요, 수입과 비축의 적절한 조화 도모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상대국 · 지역과 수입 금액(2011년)



자료 :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2011년 확정치(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2012.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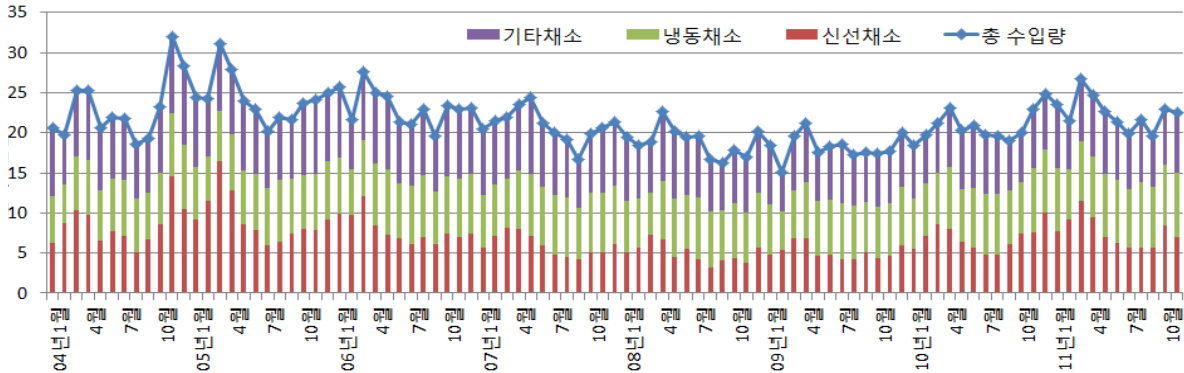
- 2011년 수입동향을 품목별 보면, 천연고무, 소맥 등의 수입액이 증가하였고, 대두, 목재칩 등의 수입액은 감소¹²⁾
- 국가별(금액 기준)로는 농산물에서 미국이 1위, 임산물, 수산물에서는 중국이 1위
- 수입의존 극복을 위해 종합적 대책 추진으로 식료안전보장 확립
 - (생산자재 확보) 비료 등 생산자재 수입국 다각화, 품종개량을 위한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생물자원 Genebank 사업 추진
 - (식료안전보장 매뉴얼 개정) 대지진 등 서플라이체인 단절시 식료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리스크 요인 검증 및 대책 마련
- 2005년 이후 감소하던 일본의 채소수입량이 2009년부터 재차 증가
 - 현재 채소류 수입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신선채소
 - 수입채소 중 신선채소비중이 가장 낮았던 2008년에는 26.6%에서 2010년에는 32.8%(약 82만톤)로 확대

11) 2011 『식료농업농촌백서』 p.164 농산물무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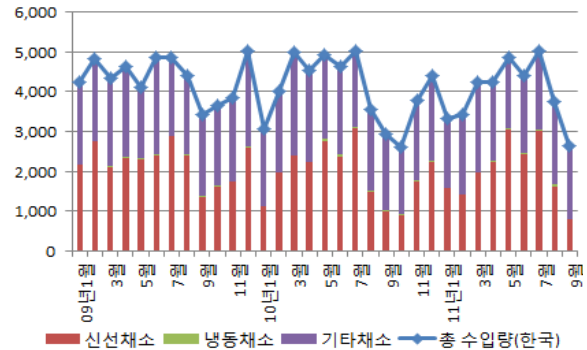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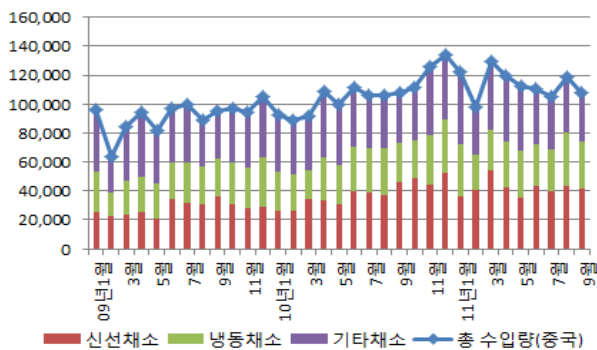
12) 농림수산물 수출입 개황 2011년 확정치(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정책과, 2012.4.27)

〈 일본의 채소형태별 월별 수입동향 〉

단위: 만톤



- 냉동채소는 약 34.1%(약 85만톤)로 신선채소와 여전히 수입을 견인
 - 일본의 2010년도 채소 총 수입량(약 250만톤)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02만톤으로 2009년 대비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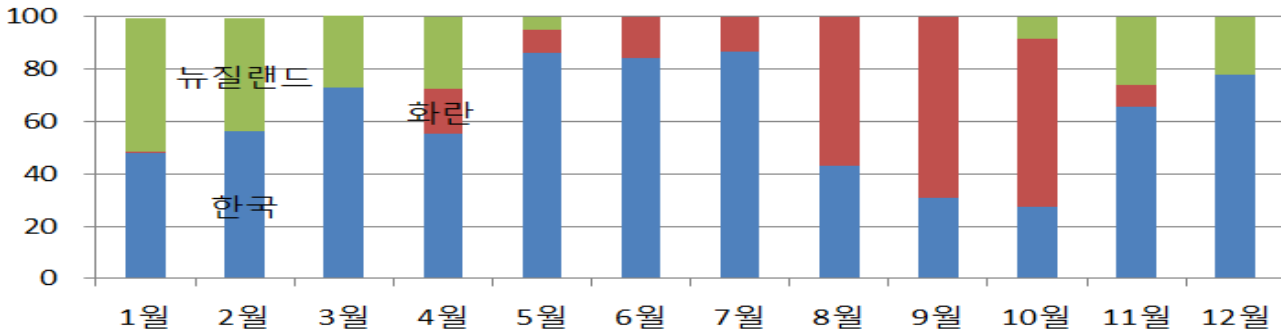


〈중국의 대일본 수출채소형태별 비중〉

〈한국의 대일본 수출채소형태별 비중〉

- 신선채소 상위 4개 품목이 신선채소수입량의 약 68%를 차지
 - 일본에 수입된 신선채소의 상위 4개 품목은 양파, 단호박, 당근, 대파
 - 파프리카는 전체 채소수입량의 불과 3.4%로, 상위 9위에 위치하는 품목
- 한국파프리카의 수출확대는 점유율 확대결과로, 수요량증가와와는 무관
 - 파프리카 수출량확대는 당분간 점유율확대를 피하거나, 수출단가인하를 통한 파프리카 수요확대이외에 자연적 수요확대 기대는 곤란
 - 일본유통업자는 한국산파프리카의 수요확대를 위한 가격인하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여름철 품질향상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반응
 - 2010년도 일본의 파프리카의 수입량은 총 25,400톤으로 이중 한국산이 약 64%를 차지하였으나, 여름철 재배에 해당하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시장점유율은 비교적 낮음

〈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내 월별 시장점유율 동향(2010년 수량기준) 〉



주 : 수입파프리카 평균단가 389엔/1kg(한국 365엔, 화란 469엔, 뉴질랜드 486엔)

□ 채소 수입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요 대책

- 외식용·가공용 채소의 특성 규명과 생산 장려
- 계약채소 공급안정제도와 산지육성사업
 - 계약수량 확보가 곤란할 때 대체상품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
 - 시장가격에 연동한 계약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하락 하면 가격보전
 - 계약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지원
- 가공·외식용 채소수요 대응 산지육성사업
 - 채소의 합리적인 생산·유통체계구축과 계약거래 코디네이터 육성
 - 계약거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출하단체는 실수요자의 당해 산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는 계약거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거래도입에 따른 산지의 전략수립, 제품개발, 판매촉진 등에 대해 지도기관 등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관련 전문가를 육성
 - *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실수요자의 니즈와 생산을 결합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제품개발에 관련된 교섭 등 중계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출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는 제품개발상의 고객화방법의 제안이나 판매촉진기획 등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

나. 한중일FTA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 무역·투자 촉진 및 3국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제도적 틀 제공으로 윈·윈·윈 관계 형성할 것으로 기대

- * 2012.11.20. 협상개시 선언('03년 민간공동연구 개시, '11년 공동연구 완료)
- 일본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1위, 21%), 한국(3위, 6%)에 대한 FTA는 경제 성장의 유지·증진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
 - 주요품목 관세율 : 자동차(중국 25%), 자동차 부품(한국 8%)
- 3국간의 무역밸런스는, 일본은 한·중에 대하여,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수출초과, 농산물은 중국이 한·일에 대하여 수출초과¹³⁾

□ APEC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구상 실현에 기여

단위: 억 달러, 2011년

	한·일	한·중	중·일
전 체	일본이 수출초과 264	한국이 수출초과 513	일본이 수출초과 147
농림수산물	한국이 수출초과 18	중국이 수출초과 35	중국이 수출초과 123

3. 일본의 관세현황

가. 개요

□ 일본의 관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 사항은 3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

-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국정세율과 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분류됨

세율 종류	내 용
기본세율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로, 「관세정률법」으로 규정 * 2012년 4월 현재 7,254 세율이 설정되어 있음
잠정세율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에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에 대신하여 적용되는 잠정적 세율로 「관세잠정조치법」으로 규정.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 2012년 4월 현재 433 세율이 설정되어 있음
특혜세율	개발도상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관세잠정조치법」으로 규정 · 특혜세율은 경제가 개발 도상이 있어, 특혜관세의 제공을 희망하고, 일본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나라·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실행세율(국정세율(특혜세율 제외)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원산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
협정세율	WTO 협정 상, WTO 가맹국·지역에 대한 일정을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약속(양허)하고 있는 세율(WTO양허세율) · 당해 세율이 국정세율 보다 낮을 경우, WTO 전 가맹국·지역 산품에 대하여 일정하게 적용 · 협정세율은 WTO 전 가맹국·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율이나, WTO 비가맹국이라도, 통상항해조약 등의 2국가간 조약(자유무역협정 제외)으로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WTO 가맹국·지역과 동일하게 협정세율이 적용
특정 특혜세율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EPA(경제연대협정)를 체결한 상대국 산품만을 대상으로 한 세율 · EPA에서는, 최혜국대우에 의한 실행관세 보다 낮은 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국정세율 및 협정세율에 우선해서 당해 세율이 적용됨 * 일본의 EPA 체결 상대국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13)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j/kokusai/renkei/fta_kanren/pdf/1207_genjyo.pdf

- 불공정한 무역거래와 수입 급증 등에 따른 특수관세 운영
 -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화물에 대한 「상쇄관세」,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덤핑가격)으로 판매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부당염매관세(덤핑방지세)」, 예상 못한 사정의 변화에 따라 증가한 수입화물에 대한 「긴급관세」 등

□ 동일본대지진 피해에 대응한 수속절차 변경(2011년 3월)

- 관세 및 소비세 면제와 신고 수속의 간소화
 -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호물자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며, 기증물품 등 면세명세서의 제출을 생략.
-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속의 간소화
 - 식품 및 음료의 수입시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가 필요하였으나, 구호물자로서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동 신고가 면제

나. 주요 관세

□ 일본의 관세율에 관해서는, 「관세정률법」 등의 별표에 정해져 있음

- 주요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11.7%로, 미국(5.5%) 보다는 높은 편이나, EU(19.5%), 한국(62.2%), 스위스(51.1%), 인도(124.3%) 등에 비해 낮은 편임¹⁴⁾
- 특히, 대두, 옥수수 등의 관세율은 0%이며, 채소의 관세율도 낮은 편임(3~9%).
- 일부 고관세 품목이 남아있어, 곤약(1700%), 쌀(778%), 사탕(328%), 버터(360%), 소맥(252%) 등이 높은 편이며, 소고기(38.5%), 오렌지(40%, 계절 20%), 가공용 토마토(20%) 등의 관세율도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실행 관세율표 참조 (<http://www.customs.go.jp/tariff/index.htm>)
 -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 관세협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각종 관세율과 통계치는 HS 조약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음. 부(部, 21개), 류(類), 항(項, 4자리수), 호(號, 6자리수)로 구성되어 있음

4. 동식물 검역제도

동물 검역제도

-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서는 검역 조치를 강화함
- 공항·항만에서의 모든 입국자에 대한 신발 소독 및 차량 소독
 -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수하물 검사 강화
 - 2005년 12월부터 나리타공항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현재 3개소(나리타, 하네다, 간사이공항)에서 6두의 검역탐지견이 활약 중

14) 자료 : OECD 「Post-Uruguay Round Tariff Regimes」 (1999년)

- 구제역 등의 발생국·지역의 모든 직항편 대상 안내 방송 및 일부 항공편 대상 질문표 배포 등
-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공항·항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곡물의 짚 및 사료용 건초, 가축 감염증의 병원체도 검역의 대상임
- 축산물의 경우 일부 품목 수입 금지 및 수입 금지품 이외의 경우에도 검사증명서가 필요함
 - 육류, 햄, 소시지 등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일부 지역 품목의 일본내 반입 금지를 규정

〈 일본의 동물검역 관련 법률 〉

관련법률	대상 감염증	동 물	축산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구제역, 우역, 전담성해 면상뇌증, 돼지콜레라 등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 동물	육류, 내장, 뼈, 뿔, 껍질, 털, 알, 생유, 분 등
	아프리카마역, 비저 등	말, 나귀 등 말과 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닭, 메추라기, 꿩, 타조, 호로새, 칠면조, 오리과의 조류(오리·거위)등의 가금류	햄, 소시지, 베이컨
	야토병 등	토끼	이상을 포함한 가공품
	부저병 등	꿀벌	
렙토스피라	개		
광견병 예방법	광견병	개, 고양이, 미국너구리, 여우, 스킵크	
감염증법*	에보라출혈열, 마르부르크병	원숭이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관한 법률

식물 검역제도

-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수입 식물에 대한 검역 실시
 - 수입식물의 종류, 수출국의 증가와 국제유통의 신속화 등에 따라 일본내 새로운 병해충 침입의 위험성이 증대한 것으로 파악
 - 농림업에 새로운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 수입시 식물검역 대상으로 명시
(리스크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병해충에 대하여는 잠정적인 검역 대상으로 분류)
 - 수입식물검역 대상 : 모종, 수목, 구근, 종자 등의 재배용 식물 및 야채, 과일, 절화, 목재, 곡물, 콩 등의 소비용 식물, 그 외 식물에 유해한 살아있는 곤충·미생물 등
 - 수입검사 결과, 수입금지품에 해당하지 않고, 식물검역 대상 병해충이 없을 경우 수입 가능하며, 수입검역 대상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불합격이 되어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 소독 조치가 명해진 경우 소독 조치 후 수입 가능
 - 검역유해동식물 판정을 위해 격리재배 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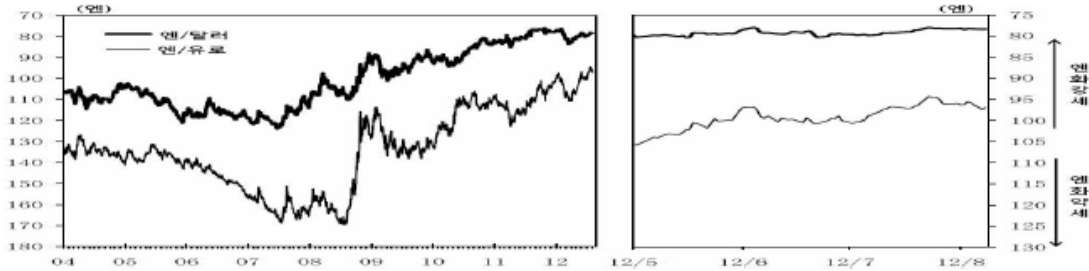
1. 일본의 경제동향

가. 환율동향

□ 엔화 환율 현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방향

- 2008년 8월 미국발 리만브라더스사태 영향으로 환율급상승 이후, 2011년 3월 동북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엔화 자금 확보를 예상한 투기자본의 엔화매입으로 재차 환율 급상승 -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일본 엔화로 자본이 이동하여 대 유로화 대비 엔화 환율까지 급상승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조치(자산매입 기금 증액,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 도입 등) 이후 83.96엔(3.21)까지 상승 후, 유럽재정문제의 재부각 등으로 5월 이후 다시 70엔대 후반으로 하락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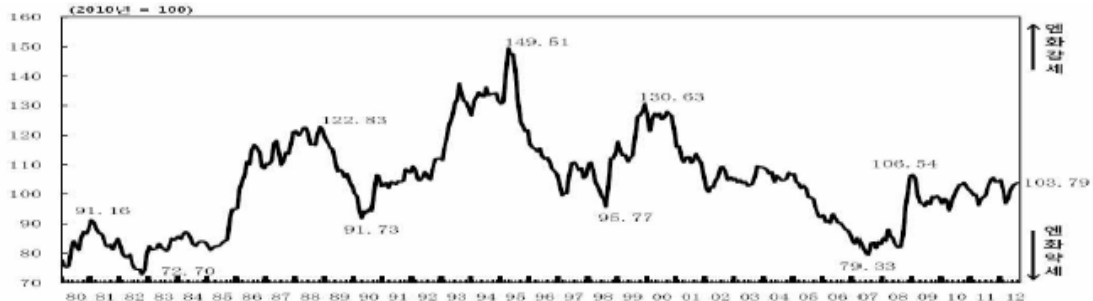
〈 엔/달러 및 엔/유로 환율 추이 〉



자료 : 일본은행(2012.8)

- 명목환율과 실질실효환율¹⁶⁾은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괴리 폭 확대 - 실질실효환율은 과거 최고치(95년 149.51) 보다 30% 정도 낮은 103.79 수준

〈 실질실효환율 추이 〉



자료 : 일본은행(2012.8)

15) 한국은행 자료 '최근 일본경제 상황 평가와 전망' (2012.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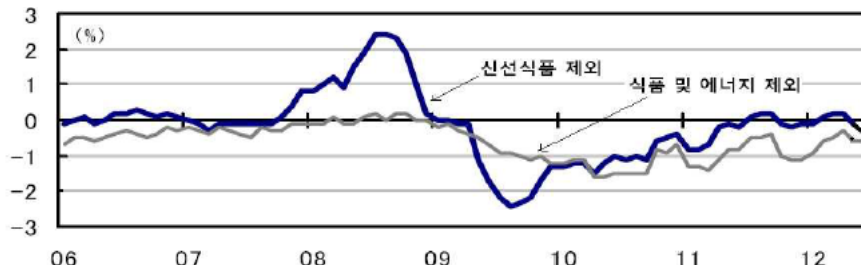
16)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양국간 거래가격을 무역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글로벌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표현하는 환율

- 당분간 엔고, 동북대지진, 원전사고의 트리플 악재 지속될 전망
 - 국가별 물가상승률의 차이, 세계적 저금리화·경기침체로 해외투자자본의 일본 환류로 엔화환율 상승 경향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일본과 각국 시장에서 경쟁관계 있는 한국의 원화환율 하락에 관심

□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상승의 영향

- 현재까지 환율상승과 소비침체가 겹쳐 소비자물가는 하락세 지속
- 2008년 리만사태 이후 급락한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왔으나, 대지진 이후 엔고현상 심화로 다시 하락
- 식품(주류 제외)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근원물가)는 2009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¹⁷⁾
-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전년동기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빠르면 금년 4/4분기 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¹⁸⁾

〈 소비자물가 증감률(전년동기비) 추이 〉



자료 : 통계청(2012.7)

□ 무역에 대한 엔화환율상승의 영향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엔화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은 확대될 전망
 - 가격면에서 엔화환율 상승은 특히 기계산업 분야의 환차손 확대
 - 원재료 수입비율 높은 소재산업분야 등 비 제조업분야의 환차익 확대
 - 향후 국제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일본경제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리스크

〈 엔화가치 상승이 기업수익에 미치는 영향 〉

단위: 천억 엔

	제조업	가공업종		소재업종
		기계	기계 이외	
80엔/달러	0.1	-0.5	0.2	0.7
75엔/달러	0.3	-3.7	1.1	3.2
70엔/달러	0.6	-6.8	1.9	5.8
65엔/달러	0.9	-9.9	2.7	8.3
60엔/달러	1.1	-13.0	3.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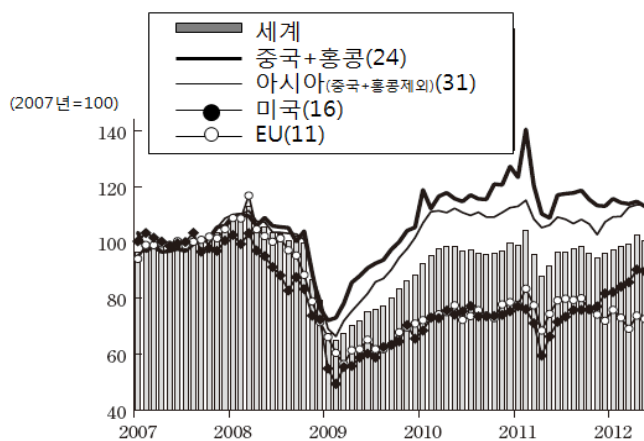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일본은행, 총무성 등을 바탕으로 일본총합연구소 작성

17) 한국은행 자료 '최근 일본경제 상황 평가와 전망' (2012.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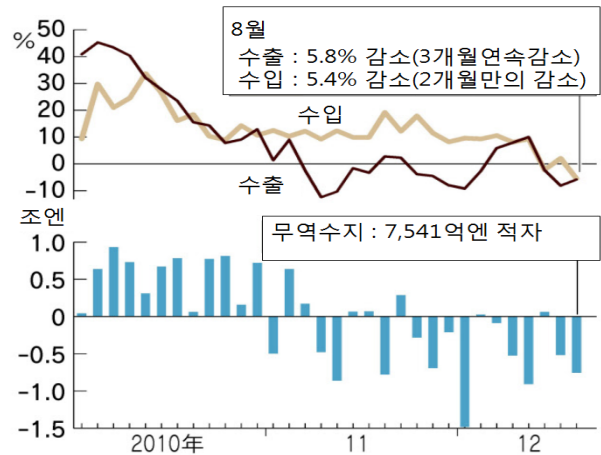
18) 한국은행 자료 '최근 일본경제 상황 평가와 전망' (2012.8월)

- 수량 측면에서 엔화환율 상승은 수출량 감소·수입량 증가를 유도
 - 리만사태 이후 20%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였고, 수출은 약 10% 감소
 - 엔화환율상승에 따른 마이너스영향은 6개월~2년 이후 나타나며, 2011년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미국으로의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 중국은 보합세, EU는 채무문제의 심각화에 따른 경기 후퇴로 감소 기조¹⁹⁾

〈 일본의 실질수출 동향 〉



〈 일본의 무역수지와 수출입액 〉



주 : ()안은 2011년도 점유율

자료 : Business & Economic Review 2012.8

자료 : 니혼케이자이신문, 2012.9.12²⁰⁾

- 2008년 리만사태 이후 환율상승으로 실질무역수지가 악화
- 유럽금융위기와 지진피해 등으로 무역수지도 당분간 악화상태 지속
 - 동북지역, 태국지역홍수 등 영향으로 부품공급 원활치 못한 것도 한 요인
 - 2013년까지 지진 이전수준의 무역흑자 실현은 기대 곤란

나. 경기 동향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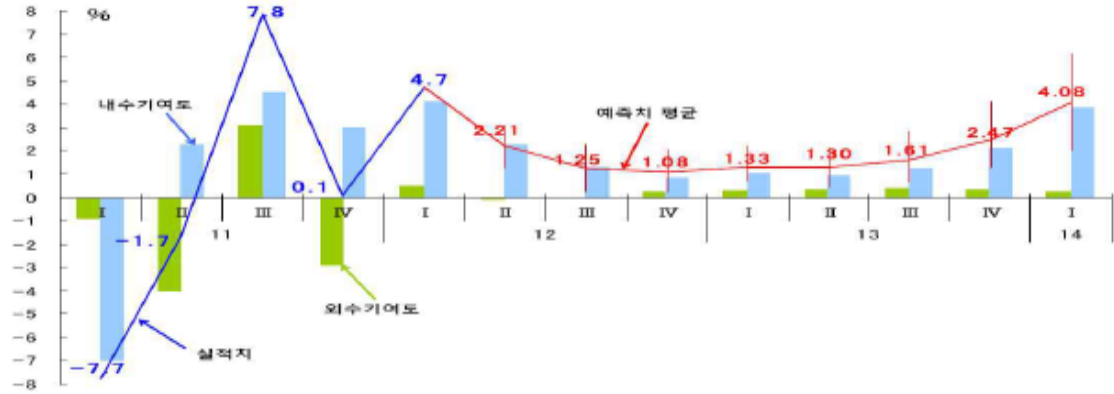
- 엔고, 해외경제 침체 등으로 수출은 당분간 부진하겠지만, 복구수요로 인한 경기 부양효과가 2013년 GDP성장을 견인 할 것으로 예상
 - 부흥수요 지속으로 당분간 플러스 성장이 이어지겠지만, 민간소비의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가 당분간 1% 초반(연률기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다가 소비세율 인상(현재 5% → 2014.4월 8%) 전 사전수요 증가로 성장률이 일시 크게 높아진 후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

19) 일본종합연구소, Business & Economic Review 2012.8

20) 니혼케이자이신문 속보>경제 '8月貿易収支、2ヵ月連続赤字 欧州向けが最大'

- 소비세율 인상법안이 지난 6월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최종 성립
(현재 5% → 2014. 4월 8% → 2015. 10월 10%)

〈 민간기관의 일본경제 실질GDP성장률 전망치 〉



자료 : 일본경제연구센터(ESP포케스터조사)(2012.8)

〈 일본의 경제·물가 전망 〉

전기 대비 연평균비율, %

구 분	2012년				2013				2014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실측)	(예측)			(예측)				(예측)
실질 GDP	4.7	1.6	2.0	0.1	1.3	1.2	1.3	2.8	4.5
개인소비	4.9	0.4	1.3	-2.0	0.6	0.7	0.9	3.2	6.8
주택투자	-6.0	16.4	16.7	4.5	2.7	3.0	8.5	8.7	-8.3
설비투자	-8.2	3.4	2.6	3.2	3.0	3.1	3.3	3.4	4.2
재고투자(기여도)	1.3	0.2	0.1	0.1	0.1	0.1	0.0	0.0	0.0
정부소비	3.0	0.6	0.8	0.8	0.5	0.3	0.2	0.5	0.7
공공투자	16.3	8.2	4.5	2.1	-0.5	-4.7	-7.9	-2.4	-1.0
공적재고(기여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출	12.4	2.0	3.0	4.0	3.9	4.3	4.5	4.8	4.8
수입	7.9	3.9	3.6	2.4	2.6	2.5	2.5	3.8	4.9
국내민간수요(기여도)	2.8	1.3	1.7	-0.6	0.9	1.1	1.3	2.6	4.4
관공서수요(기여도)	1.3	0.5	0.4	0.3	0.1	-0.2	-0.3	0.0	0.1
순 수출(기여도)	0.5	-0.4	-0.2	0.2	0.2	0.2	0.3	0.1	-0.1

구 분	2012				2013				2014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실측)	(예측)			(예측)			(예측)	
명목 GDP	1.4	2.4	1.8	1.7	1.1	1.2	0.7	1.3	2.3
GDP디플레이트	-1.3	-1.0	-0.5	-0.3	-0.3	0.1	-0.3	-0.3	-0.1
소비자물가(신선제외)	0.1	-0.0	-0.0	0.1	0.1	0.1	0.1	0.1	0.2
완전실업률(%)	4.6	4.5	4.5	4.4	4.3	4.2	4.2	4.1	4.1
엔/달러 환율	79	80	80	81	81	82	84	86	88
원유수입가격(달러/배럴)	116	121	104	111	115	115	115	115	115

자료 : Business & Review 2012.8, 일본총합연구소

- 유럽재정 문제와 엔화 강세, 전력부족문제, 과도한 재정적자 등은 일본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

다. 무역정책

- 일본이 체결한 경제연대협정(EPA)의 특징은 포괄적인 대상 분야와 낮은 자유화율(관세 Tariff Line 기준 80%대)
 - EPA 발효 13개국, 교섭 중 3, 연구·논의 중 7(2012.5월 시점)
 - 일본측의 농산물 제외 요구에 따라 상대국의 제조업 중심 민감품목 역시 제외함에 따라 자유화율이 낮음²¹⁾
- 민주당 APEC·EPA·FTA 대응검토 프로젝트팀의 대정부 「경제연대추진에 관한 제언」 제시(2010.11.4)
 - 경제연대의 추진과 농림수산업의 재생·강화와의 병립 강조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 구상의 착실한 진행
 - TPP에 있어서는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비관세분야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
- TPP 교섭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세계의 주요국과 경제연계를 추진하는 「포괄적 경제연계협정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2010.11.9)
 - 주요 무역국과 경제연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국내개혁의 선행적 추진
 - 경제연계추진과 자급률 향상(41%→50%), 국내농업·농촌진흥을 병행
 - 칸 나오토총리는 '10년 11월 13일에 요코하마(横浜)에서 개최되는 APEC총회를 앞두고, TPP 협상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음

21) 石川 幸一(國際貿易投資研究所 客員研究員), “日本のFTAとTPP”(『季刊 國際貿易と投資』, 2012)

- 다만 농업분야의 경우 일괄 타결시 농업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는 점에서 '농업구조개혁추진본부'를 신설하여, 「식과 농림어업재생을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2011.10.25)
- 연두담화에서 2011년을 「평성(平成)개국」의 원년으로 하고 무역자유화와 국내 농림어업의 양립을 천명
- 일본 정부는 농업 개혁의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TPP 교섭에 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황
- 2011년 5월에는 정책추진지침을 각의 결정
 - 「FTAAP·EPA를 위한 각료회의」에서 「기본방침」에 기초한 경제연계추진이나 경제안전보장확립 등 국가간의 신의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사고방법은 지진·원전피해 농어업인의 정서, 국제교섭의 진척상황, 산업공동화를 배려하면서 검토한다는 지침
 -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교섭참가의 판단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 2011년 5월 미·일 수뇌회담에서 TPP참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한다는 방침 전달 하였으나,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강한 반발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
- 2011년 11월 호놀룰루 APEC정상회담에서 노다총리는 TPP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
 - 다양한 정보수집 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익의 시점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
- TPP교섭이 타결될 경우 농업이 괴멸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야당과 여당에서도 찬반 논란
 - 특히, 농림수산성 및 농림위원회의원이 맹렬하게 반대
 - 농림수산성은 국경조치철폐로 인한 농수축산물생산 감소액 4.1조억엔 중, 특히 쌀(약 19.5천억엔)이 전체 피해금액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일본이 TPP교섭에 참가하려는 의도와 과제

- 한국의 적극적인 FTA(한미, 한EU) 추진으로 수출 면에서 일본보다 우위 확보 상황 인식, 수출산업계 중심으로 시장의 조기개방을 요구
 - 일본 국내 여건 상 교섭 참가가 수차례 연기되자, 우선 '교섭' 참가로 일본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추후 'TPP 참가'를 결정할 것을 주장
- 시장 개방 우위 선점을 위해 양자협상인 FTA, EPA 보다, 참가국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TPP 교섭 참여 의사 표명
- TPP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TPP참가국(9개국)의 동의가 필요
 - TPP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세철폐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 이미 EPA를 체결한 국가를 비롯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들로부터도 동일한 관세철폐를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
 - TPP교섭참가국간 이미 양국 간, 다자간FTA가 발효·교섭중인 국가 다수

- 교섭참가 9개국사이에 양국 간 교섭은 36건이나, 이중 양국 간 FTA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10건임
- APCE가맹국(21개국·지역) 전체에서도 양국·다자간 FTA 다수 발효
- APEC가맹국 전체의 무역액(2009년 3조7,594억 달러)에 차지하는 FTA발효완료 국간의 무역비율은 51.3%를 차지
- TPP교섭 참가국간에는 이미 상당수 양국·다자간 FTA발효·교섭 중
 - 현재 TPP에 참여하는 9개국 GDP합계는 16조 달러로, 미국(88%)과 호주(6%)가 94%를 차지하며, APEC전체 GDP 중 TPP참가국 비율은 50.65%
 - 일본은 9개국 중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6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
 - 2009년 기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약 82.2%로, 무역확대가 경제성장의 절대조건이지만, 동년 무역의존도가 약 22.2%에 불과한 일본은 무역확대만이 경제성장의 절대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자유화 반대론자의 주장

< 광역FTA구상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위치(2009년~) >

단위: %

		ASEAN+3	ASEAN+6	APEC (FTAAP)	TPP (P9)
세계인구에 차지하는 구성비	67.3억명	31.2	49.2	40.4	7.4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구성비	57.8조달러	21.4	25.6	55.1	27.7
일본과의 무역액(수출입)	1조1,323억달러	38.9	45.9	70.8	25.2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	7,404억달러	19.4	25.3	59.8	40.6

주1 : ASEAN+3 : ASEAN, 일본, 중국, 한국

ASEAN+6 : ASEAN,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APEC(FTAAP)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환태평양전략경제연계협정(TPP) :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뉴질랜드,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주2 : 세계경제는 세계의 명목GDP(시장환율환산 달러기준)

주3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잔고 중 TPP는 통계제약을 이유로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6개국 합계이며, APEC는 브루나이, 칠레, 파푸아뉴기니아, 페루 제외

주4 : 세계인구는 180개국 합계

〈 TPP교섭참가국의 기존 FTA와의 관계 〉

	교섭참가국									옵서버	비고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부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일본
교 섭 참 가 국	싱가폴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칠레	◎	◎		◎	◎	◎	◎	○	○	◎
	부루나이	◎	◎	◎		△	◎	△	◎	◎	◎
	미국	◎	△	◎	△		◎	◎	△	△	◎
	호주	◎	◎	◎	◎	◎		△	◎	◎	△
	페루	◎	△	◎	△	◎	△		△	△	◎
	베트남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캐나다	△		◎		◎		◎			
일본	◎		◎	◎		△	◎	◎	◎		

주 : ‘◎’는 FTA발효, ‘○’는 서명, ‘△’는 교섭 중

□ 일본정부의 환율정책 기본방향

- 2011년 10월 일본은 환율급등에 대해 ①환율상승 고통완화와 고용기회 해외유출 방지, ②고환율 이익환원을 기본 대응방향으로 설정
 - ①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고용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광업 지원, 기업 R&D·생산거점에 대한 입지보조, 신규수요(절전·신에너지)촉진 등
 - ②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해외투자·해외자원확보, 해외연구자 초빙활용, 해외 유학촉진, 국민·소비자에 대한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 환원 등

- 대책의 기본골격은 환율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거점을 국내에 만든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경기침체와 국내산업공동화를 예방한다는 점
- 국비 2조엔 투입하여 사업규모 총 23.6조엔 규모의 대책으로 실질국내 총 생산 (GDP)증가효과 약 0.5%, 고용 약 30만명 유지·창출을 기대
- 2011년 12월 엔화환율상승에 대한 종합대책을 각의 결정
 - 2011년도 3차 보정예산에 산업공동화대책 5천억엔 계상, 4차 보정예산에 외환 시장개입자금인 「외국환율자금증권」에 15조엔 증액하여 46조엔분 발행
 - 1달러 75엔, 1유로 100엔에 이르면 2011년 하반기 제조업 전체 경상이익 1,200억 감소(일본총합연구소추산)

2. 일본 경제정책의 기본시점과 방향

가. 신 성장 전략과 경제 대책

□ 일본의 신 성장 전략과 경제 대책

- 2010년 9월 「신 성장전략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 각의결정
- 경제대책은 두 가지 시점과 다섯 가지 골격으로 구성
 - 환율상승과 해외경제침체 등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동시에 저탄소사회구축 등 「새로운 성장전략」의 조기추진이라는 시점에 입각한 대책

〈 일본이 추진하는 신 성장전략의 개요 〉

일본의 신 성장을 위한 7전략 21국가프로젝트

2010년 6월 18일 각의 결정

전략 1 : 환경·에너지대국 전략(그린이노베이션)

- (1) 「고정자산취득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가능에너지·조기 확대
- (2) 「환경미래도시」 구상
- (3) 산림·임업재생플랜

전략 2 : 건강대국전략(라이프이노베이션)

- (4) 의료실용화촉진을 위한 의료기관선정제도
- (5) 국제의료교류(외국인 환자유치)

전략 3 : 아시아경제전략

- (6) 해외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인프라 전개
- (7) 법인 실효세율 인하와 아시아거점화 추진
- (8) 글로벌 인재육성과 외국인 인재 등의 유치확대
- (9) 지적재산·표준화전략과 일본문화의 세계화 추진
- (10)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의 구축을 통한 경제연계전략

전략 4 : 관광·지역 활성화 전략

- (11) 「종합특구제도」 창설과 철저한 항공자유화추진 등
- (12) 「일본방문 외국인 3,000만명 프로그램」 과 「휴가사용 분산」
- (13) 중고주택·리모델링시장의 배증(倍增) 등
- (14) 공공시설의 민간개방과 민자유치사업 추진

전략 5 : 과학·기술·정보통신 입국 전략

- (15) 「Leading 대학원」 구상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
- (16)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 활용의 촉진
- (17) 연구개발투자 강화

전략 6 : 고용·인재육성전략

- (18)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체화 등
- (19) 「실천경력향상(경력단위제도)」 제도와 「개인별 지원제도」 의 도입
- (20) 공공영역의 재검토

전략 7 : 신 금융 입국전략

- (21) 종합적인 거래소(증권·금융·상품)개설을 추진

□ 일본의 신 성장 전략과 경제대책의 기본골격

- 정책기본골격은 「고용」·「투자」·「소비」·「지역방재대책」·「규제·제도개혁」
- 새로운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고용」기반조성
 -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 입지지원(에코카, LED, 리튬전지 등 그린산업)
 - 엔화 환율상승 등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하여 고용을 유지
 - 인력수요가 큰 중소기업 등과의 매칭을 강화하여 고용의 장을 마련
- 산업공동화예방을 위한 「투자」기반조성
 -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 입지추진사업 확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 저탄소 사회실현을 바탕으로 한 「소비」기반조성
 - 주택 에코포인트제도, 가전 에코포인트제도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에코관련 가계수요지원
-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역 방재대책」
 - 병원 등의 내진대책, 긴급방재대책
- 「규제·제도개혁」조기추진
 - 예산·세제지원 등의 재정조치 이외에 수요·고용창출효과가 큰 규제·제도개혁을 추진
 - 도시재생·주택, 환경·에너지, 의료·계호, 관광진흥 등 지역 활성화, 경제전략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제도개선 100선을 발굴추진

나. 일본 재생 기본 전략과 경제 부흥

□ 「일본 재생 기본 전략」(2011.12.24 각의 결정)²²⁾

- 대지진·원전사고로부터의 부활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총력 조기 복구, 원전사고지·피해자 생활재건), 에너지·환경정책의 재설계(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수립)
-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병립
 - 성장력 강화, 엔고·경기침체에 대응한 거시경제 운영과 EU 경제위기 대비, 사회보장·세제 일체 개혁의 착실한 실현
- 「신 성장전략」의 실행 가속과 강화·재설계 : 경제, 사회, 국제 3대 프런티어(새로운 가능성의 개척) 제시
 - 더 나은 성장력 강화 조치(경제 프런티어 개척), 두터운 중산층의 부활(사회 프런티어 개척), 세계 속의 일본의 존재감 강화(국제 프런티어 개척)
- 새로운 프런티어에의 도전
 - 글로벌리제이션과 동시에 일본의 가치관 재인식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삶 추구(인구 감소·고령화 등 극복)

22) 「일본재생 기본전략」(2011.12.24)

일본 중의원 총선거 관련 각 당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I 핵심요지

- 일본 중의원 총선거(12.16)를 앞두고 자민당(11.21), 민주당(11.27), 일본 유신회(11.29)는 선거 공약을 발표함
- 금번 선거에서는 TPP, 원전 재가동 등 경제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바, 핵심 경제 이슈별 주요 정당 입장은 아래와 같음

구분	민주당	자민당	일본 유신회
TPP	· 추진할 방침이나, 최종적으로 정부가 판단 - 다만, 농업, 식품안전, 국민 건강보험 사수	· 예외 없는 관세철폐에는 반대 - 한편, 협상참가에 대한 일정조건 제시	· 추진할 방침 - 다만, 국익에 반할 경우에는 반대
원전 재가동	· 2030년대까지 원전제로 추진	· 3년 이내에 결론 도출	· 2030년까지 원전을 점차 폐지(fade-out)

구분	민주당	자민당	일본 유신회
금융 완화 정책	· 정부·일본은행 공동으로 과도한 엔고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	·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고 '대담한 금융완화' 실시 ※ 정부·일본은행 연계강화를 위해 일본은행법 개정도 염두	· 일본은행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일본은행의 명확한 역할분담 제정 -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정부·일본은행간 정책협정으로 체결
사회보장 및 재정 건전화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 대책 '급부조치' 실시 · 203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화 ※ 소비세 인상분 전액 사회보장비용 충당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 대책 '경감세율' 적용 · 203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화 ※ 소비세 인상분 전액 사회보장비용 충당	·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고령자 고용확대 추진과 동시에 연금제도 재구축 · 재정수지 적자제로 목표설정 및 소비세율을 11%로 인상

- 주재국 언론은 민주당의 선거공약이 현실적이기는 하나, 정책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공약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일본 경제계는 자민당의 TPP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와 무리한 금융완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민주당의 원전제로 및 경제성장의 동시추진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평가
- ※ 11.26~28간 여론조사 결과(총선거 투표예정 정당 및 전체응답자 대비 비율)
 - △자민당 23%, △일본 유신회 15%, △민주당 13%

1. 각 당의 경제분야 선거공약 구성

- 민주당이 11.27(화) 발표한 중의원 총선거(2012.12월) 공약은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 경제정책,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5대 중점정책으로 구성됨
 - △(경제정책) TPP 등 경제연계 및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 △(에너지 정책) 원전제로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방침, △(사회보장·세제개혁) 소비세 인상분 전액 사회보장비용으로 충당 및 저소득자 대책 등 명기
- 자민당은 11.21(수) 선거공약을 발표하였고, 동 공약에는 경제정책, 대외통상정책, 에너지 정책,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 부흥대책 등이 포함됨
 - △(경제정책) 엔고 완화 및 디플레이션 극복 대책 등을 통한 일본경제 재생 방안, △(대외통상정책) TPP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대응 방향, △(에너지 정책) 원전 재가동 여부 판단, △(사회보장·세제개혁)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과 재정 건전화, △(부흥대책)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복구 가속화 방침 등 명기
- 일본유신회가 11.29(목) 발표한 선거공약은 경제·재정, 에너지, 사회보장 등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됨
 - △(경제·재정)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 재정건전화 방침, △(에너지) 탈원전 체제 구축, △(사회보장) 공적연금 개선방안 등 명기

2. 각 당의 주요 과제별 공약 비교

가. TPP 등 대외통상정책 관련

- 민주당은 국익 확보를 대전제로 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함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실현을 위해 일본의 TPP 협상참가와 한·중·일 FTA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TPP 참가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판단
 - 다만, 일본의 농업, 식품 안전성, 국민건강보험은 반드시 사수
- 자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자유무역체제 확립을 위해 주요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다만, TPP와 관련해서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TPP 협상참가에는 반대’라고 명기하며, 동 협상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

〈TPP 협상참가에 대한 판단기준〉

①자유무역 이념에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 거부, ②국민건강보험제도 고수, ③식품 안전기준 준수, ④정부 조달 및 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적용, ⑤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조항에 불합의 등

- 일본 유신회는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할 것임
 - TPP 협상참가를 추진(다만, 국익에 반할 경우에는 반대)
 - 여타 FTA 협정을 확대시킬 방침

나. 에너지 정책 관련

(1) 민주당

- 3대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2030년대까지 '원전 제로'를 도모함

〈3대원칙〉

① 40년 운전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②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얻은 원전에 한해 재가동하며, ③ 원전의 신·증설 중단

- 이를 위해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할 예정
- 아울러, 원전 폐로 및 기존의 재가동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해 원전관련 기술 승계 및 인재 확보를 위한 계획을 2012년중 작성할 방침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질적 필요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관점에 근거하여 향후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임
 - 아울러, 2013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의 직접처분 연구를 개시하고, 향후 처분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
- 또한,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을 확대할 것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에너지 분야를 일본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
 - 이에 따라 2030년의 온실가스 20% 삭감(1990년 대비)을 도모

(2) 자민당

- 일본내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 3년 이내에 결론을 도출하고, 늦어도 10년 이내에 '전원(電源)구성 최적 믹스(mix)'를 확립할 것임
 - 이에 따른 원전 안전성은 원자력규제 안전위원회의 판단에 위임
 - 아울러, 원전 재가동에 대한 판단여부가 확정되기까지 당분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서 향후 3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방침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방안〉

① '고정가격매입제도' 확충, ② 다양한 종류의 풍력·수력발전 개발 및 보급, ③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립 확대, ④ 전력 사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촉진 등

- 환경과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환경 분야의 기술 개발을 주도 및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 실현을 도모함

- 축전지,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환경관련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환경 비즈니스로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 투유자를 활성화할 방침
-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삭감(2005년 대비)을 목표

(3) 일본 유신회

- 2030년대까지 원전을 점차 폐지(fade-out)시키는 탈 원전 의존체제를 구축할 것임
 - 이를 위해 ①안전기준 확립, ②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침 책정, ③전력 공급 책임 및 배상책임 명확화 등 원전정책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
- 아울러,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통해 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첨단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 달성을 도모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최대화, 전력시장 자유화, 발전·송전 분리 등을 통해 상기 목표 달성을 추진

다. 경제정책 관련

(1) 민주당

- 일본은행과 공동으로 엔고 및 2014년 디플레이션 극복을 도모할 예정임
 - 당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연속적인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초에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
 - ‘일본재생전략’(12.7월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환경, 의료, 농림어업의 고도화를 통한 내수 확대와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촉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평균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 달성을 도모
 - 아울러, 급격한 엔고가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포함하여, 과도한 엔고 및 환율변동에 대해 외환개입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
- 또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자산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로 연결 시킬것임.
 - 2012년 정기국회에서 성립된 ‘우정 민영화법(개정)’에 근거하여, 신속히 일본우정(郵政)의 주식을 매각하여 부흥재원을 확보할 예정
 - 전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파 경매 등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추진

(2) 자민당

- 엔고 완화 및 디플레이션 극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내각에 설치할 ‘일본경제 재생본부’를 사령탑으로 명목성장률 3%이상의 일본경제 재생을 도모함
 - △ ‘잃어버린 국민소득 50조엔 회복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축소균형 분배정책에서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로 전환을 추진하고,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 규제완화 및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을 실시

- 아울러, 최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2013년 초에 대규모 추경예산과 2013년도 일반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2~3년간 더욱 탄력적으로 경제·재정 정책을 운영할 예정
- 또한, 금융완화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의 연계 강화 체제를 구축하여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설정하고, 국채관리정책에 상호 협력하기위해 일본은행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대담한 금융완화정책'을 추진
- 재무성과 일본은행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또한 참가시켜 '관·민 협조 외채 펀드'를 창설하여, 외국 채권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엔고 대응 방안 검토
- 아울러, 부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가속화시킬 방침임
 - 5년간의 집중부흥기간에 대한 부흥 사업비 19조엔이 13년 말에 이미 2조엔 이상 초과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부흥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을 억제하지 않고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할 예정

(3) 일본 유신회

-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명목경제 성장률 3% 이상 및 물가 상승률 2%)을 도모할 것임
 - 물가 상승률 목표치 등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간 정책협정(accord) 체결하고, 일본은행법을 개정을 통해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을 구분
 - 농업, 의료, 복지, 보육 분야의 성장 산업화, 신규 시장 참여에 대한 규제 철폐 및 완화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경쟁력 강화 정책 실시

3. 각계 반응 및 평가

- 주재국 언론은 민주당이 금번 중의원 총선거 공약에 대해 높은 실현가능성을 강조하여, 자민당 공약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 한다며 관찰함(닛케이 10.28)
 - 노다 총리는 11.27(화) 기자회견을 통해, 자민당 공약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민주당 공약이 보다 현실적임을 강조
 -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각되는 정책이 다소 빈약하고 지적
- 아울러, TPP 협상참가와 관련해서는 공약 내에 TPP 협상참가에 대해 '정부가 판단함'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민주당내 반대세력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함(닛케이 10.28)
 -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며 (TPP 참가의사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명하고, 국익확보를 대전제로 일본의 농업 및 국민건강보험 고수 등 협상참가 조건을 부연

- 또한, 11.29(목) 발표된 일본 유신회의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여타 정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애매하다고 지적함(닛케이 11.30)
- 일본 경제계(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는 금번 각 당의 주요 공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함(요미우리 11.30)
 - △(TPP) 경제동우회는 자민당이 TPP 참가와 관련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원전정책) 경단련은 민주당이 제시하는‘원전제로’정책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고 반발
 - △(금융정책) 일부 산업계에서는 자민당의 적극적 금융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추진을 높게 평가한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경단련은 일본은행법 개정 등 무리한 금융완화로 세계에서 일본의 신뢰가 추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
- 닛케이 신문과 TV도쿄가 11.26~28간 여론조사 결과, 현시점에서는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우세하고, 제3세력인 일본유신회가 약진하여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함(닛케이 11.29)
 - 12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지난번 여론조사(11.16~18간) 결과 보다 2%P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중 23%로 수위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체 응답자의 13%에 불과(지난번 결과보다 3%P 하락)
 - 한편, 일본유신회는 태양당과의 합당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15%가 투표하겠다고 하는 등 상승 추세
 - 11.16~18간 여론조사 결과(총선거 투표예정 정당 및 전체응답자 대비 비율): △자민당 25%, △민주당 16%, △일본유신회 11%, △태양당 4% 등

4. 주요 각 당의 경제분야 공약 요지

□ 대외통상정책

	민주당	자민당	일본유신회
TPP 협상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FTA 등과 동시 병행으로 추진하며, 정부가 판단 · 다만, 국익 확보를 대전제로 농업, 식품안전, 국민건강보험 등은 반드시 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TPP 협상참가에는 반대 · 한편,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식품 안전기준 사수 등 6개의 TPP 협상참가 조건 제시 · 여타 주요국과의 FTA 협상은 국익에 따라 적극 추진 · 국제 리더십을 발휘, WTO 도하 협상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협상참가 추진 · 다만, 국익에 반할 경우에는 반대

□ 에너지 정책

	민주당	자민당	일본유신회
원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원칙 하에 2030년대 원전제로 사회 실현 도모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승인을 받은 원전만 재가동 · 원전 신·증설 중단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의 향후 방향성 재정립 · 원전 입지지역 경제 및 고용에 충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 향후 3년 이내 결론 도출 · 원전 안전성 판단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위임 · 늦어도 10년 이내에 지속가능한 전원구성의 최적 믹스(mix)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을 주도할 탈 원전 의존체제 구축 · 원전 정착 메커니즘·규범을 재검토 · 기존 원자료를 통한 발전은 2030년대까지 점차 폐지(fade-out)
신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을 비약적으로 확대 · 환경 및 에너지 분야를 일본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여 동 분야 고용 확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가격매입제도 확충, 풍력 및 소규모 수력발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 확대 · 전 국민의 절전 및 에너지 절약 의식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민주당	자민당	일본유신회
지구 온난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에 온실가스 (1990년 대비) 약 20%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온실가스(2005년 대비) 약 80% 삭감 ·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일본 주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협의체 창설 제창 	

□ 경제정책

	민주당	자민당	일본유신회
엔고 완화 및 디플레이션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에 디플레이션 극복을 도모 · 2013년 초에 긴급 경제대책 실시를 위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 2020년까지 평균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2% 실현 · 공동문서에 근거하여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정부·일본은행이 하나가 되어 최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고 완화 및 디플레이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명목 경제성장률 3% 이상을 달성 · 2013년 신정권 발족 후 신속히‘제1탄 긴급경제대책’을 단행하고, 이를 위한 추경예산 등 편성 · 정부와 일본은행사이의 협정(accord)를 통해 구미선진국 수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2%) 설정 · 일본은행법 개정을 포함한‘대담한 금융완화정책’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행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일본은행의 역할 분담을 재구축 · 명목 경제성장률 3%이상, 물가 상승률 2% 설정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의료, 농림어업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여 신산업과 고용 창출 · 철저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업 및 산업 보호 · 세계 최첨단 연구기반 정비를 통해 세계 연구자들을 끌어 모으는 연구거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산하의 ‘일본경제재생본부’내에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하여, 장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특정해 세제 및 재정 지원 · 일본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첨단 설비투자 촉진 등의‘일본경제 재생·산업 경쟁력 강화법(가칭)’을 제정 · 법인세 인하 및 기업 규제 완화 실시 · 10년 후 청년층 실업률 목표를 4년간에 걸쳐 50% 축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폐지 · 농업, 의료, 복지, 교육을 10성장 산업화
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엔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민 협조 외채펀드’를 창설하여, 외국채권 구입을 통한 엔고 대응 검토 · 전체 GDP 대비 금융 분야의 비중을 영국수준의 10%대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에 대한 정책 협정(accord) 체결

□ 사회보장확충 및 재정건전화

	민주당	자민당	일본유신회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증세분은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 · 소비세 증세에 따른 저소득자 대책으로 '급부조치' 실시 ·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를 통해 고령자 의료제도 및 연금제도 개혁 추진 · 자녀양육 예산을 증액하여 아동수당 및 현물급부 등을 통해 일과양육 병행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인상분 전액은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 대책으로 식품류 등에 '경감세율' 적용 검토 · 연금제도 개혁 등을 '사회보장제도 개혁국민회의'를 통해 논의 및 실시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 공정한 제도로 개선 · 아동수당을 부활시키는 등 지속적 양육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연금제도를 부과 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변환하는 등 연금제도 재구축 · 세입청을 창설하여 사회보험료, 소득과세를 공평·공정하게 징수
재정건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재정 규율 준수를 통해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화 추진 ※ 2015년에 재정수지 적자를 2010년 대비 50% 삭감 · 2013년 세제개정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화 추진 ※ 2015년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0년 대비 50% 축소 · 향후 5년간을 '집중재정 재건기간'으로 설정하고, 매년 2조엔 규모의 공무원 인건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수지 적자 제로를 위한 목표 설정(재정책임법 제정 등) · 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고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새로운 재정조정 체계로서 지방 공유세 창설

Ⅱ

중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일반사항

- 국가명칭 :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 수도 : 북경
- 행정구분 : 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
 - 23개 省 : 하북(석가장), 산서(태원), 요령(심양), 길림(장춘), 흑룡강(하얼빈), 강소(남경), 절강(항주), 안휘(합비), 강서(남창), 산둥(제남), 하남(정주), 호북(무한), 호남(장사), 광둥(광주), 해남(해구), 사천(성도), 귀주(귀양), 운남(곤명), 섬서(서안), 감숙(란주), 청해(서녕), 복건(복주), 대만(대북)
 - * () 성도임
 - 5개 자치구 :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녜하회족자치구, 티벳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 4개 직할시 : 북경, 상해, 천진, 중경
 - 2개 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 경제특구(5개) :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廈門), 해남(海南)
 - 서부대개발지역(12개) :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섬서상, 감숙성, 청해성, 녜하자치구, 신강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광서자치구, 저장자치구, 중경
- 면적 : 약 960만km²(한반도 면적의 43배, 남한의 약 97배)
- 인구 : 1,347백만 명(2011 기준)
 - 연령별 : 0~14세(19.4%), 15~59세(69.0%), 60세 이상(11.6%)
 - 성별 분포 : 남(51.5%), 여(48.5%)
- 기후
 - 대륙성이 비교적 강한 대륙성 계절풍 기후임
 - 중국은 지역과 위도가 넓고 지형의 높이와 지형형태, 산맥의 방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온과 강우량의 차이가 뚜렷한 다양한 기후를 지니고 있음
 - 동부는 계절풍 기후이며(아열대 계절풍 기후, 온대 및 열대 계절풍 기후로 구분함) 서북부는 온대 대륙성 기후, 청장고원은 고한기후임
- 언어 : 漢語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언어 병용)
 - 중국의 표준어는 만다린(보통화)라 불리는 한족 공동어로 전국 각 민족의 범용언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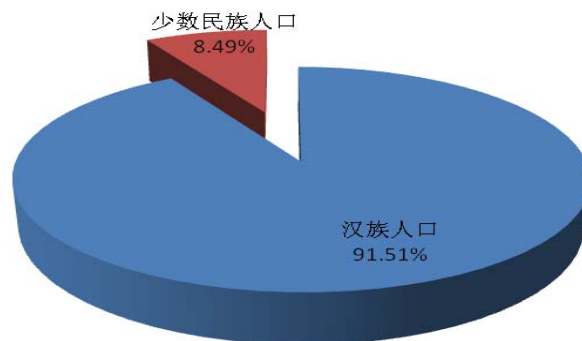
- '56. 2. 6일에 국무원에서 만다린 추진에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만다린에 대한 정의를 보면 “베이징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언어로 하며 모범이 되는 현대 백화문작품을 어법의 규범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55개 소수민족은 한 민족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가 둘 또는 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는 약 80여종 이상임

□ 종교

- 중국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로 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및 기독교를 신봉하며 중국 국민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불교는 중국에서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도교의 발원지는 중국이며 1,7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이슬람교는 서기 7세기에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중국의 회족, 위구르족 등 10여개 소수민족들이 주로 믿는 종교임
- 천주교는 서기 7세기부터, 기독교(신교)는 서기 19세기에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아편전쟁 후 대규모로 전래되었음

□ 민족 구성 : 한족 91.51%, 소수민족 8.49%

〈 2010년 중국 민족 구성도 〉



* 자료 : 제6회 중국 인구조사

- '10년 6차 중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족인구는 1,225,932,641명으로 91.51%이며, 소수민족은 113,792,211명으로 8.49%를 차지함
- '00년 제5차 전국 인구조사와 비교할 경우, 한족인구는 66,537,177명이 증가(5.74%)하였으며, 소수민족은 7,362,627명이 증가(6.92%) 증가하였음

2. 경제상황

가. GDP 및 성장률

〈 2006~2012. 9월 중국 GDP 총액 및 성장률 〉

연도	국내 생산 총액(억 위안)	전년대비 성장률(%)
2006년	216,314	12.7
2007년	265,810	14.2
2008년	314,045	9.6
2009년	340,903	9.2
2010년	397,983	10.3
2011년	471,564	9.2
2012년 1~9월	353,480	7.7

자료 : 중국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 공보

〈 2006~2012. 9월 중국 GDP 총액 및 성장률 추세도 〉



* 자료 : 중국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 공보(단위 : 억 달러)

나. 1인당 GDP

- '11년의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은 35,083위안에 달하였으며 평균 환율로 환산할 경우, '02년 U\$1,135불에서 '11년의 U\$5,432불로 상승하였음

〈 2006~2011년 중국 1인당 GDP 및 성장률 추세도 〉



* 자료 : 중국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 공보 (단위 : 위안화)

다. 외환보유고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06년 말에 1조 달러를 초과하였고, '09년 말에 2조 달러, '11년 말에 3조 달러를 초과하여 현재 총 3조 1,811억 달러를 보유
- 외환보유규모는 6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06~2012. 9월 중국 외화보유 및 성장추세 / 단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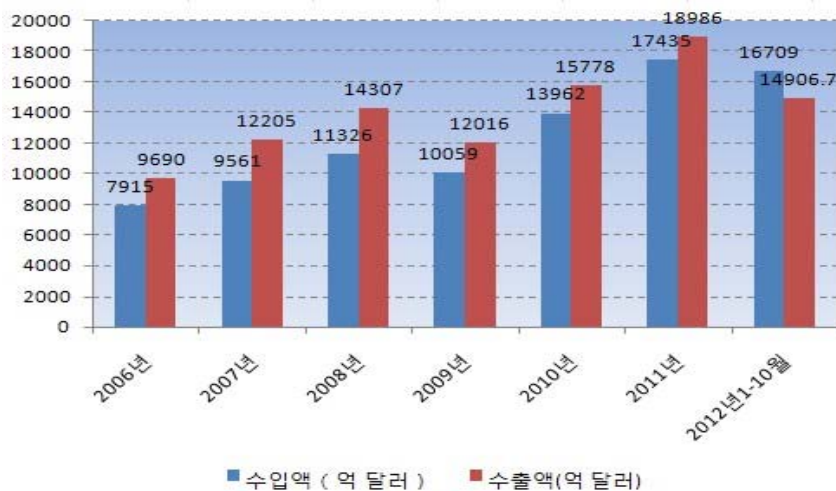


* 자료 : 중국 2011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통계 공보 (중국 인민은행)

라. 수출입 총액

- '11년 중국 연간 화물 수출입 총액은 36,421억 달러로 전년대비 22.5% 성장하였으며, 그중 수출액은 18,986억 달러로 20.3% 성장하였음
- 수입은 17,435억 달러로 24.9% 성장하여 무역흑자는 1,151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전년에 비하면 264억 달러 감소하였음

〈 2006~2012. 10월 중국화물 수출입 총액 추세 〉



* 자료 : 중국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단위 : 억 달러)

3. 정치상황

가. 정치체제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의 사회주의 국가(93년 헌법 제1조 규정)
- 정부형태 : 실질적 공산당 일당통치(형식상 8개 정당존재)
- 의 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 정치조직 구분
 - 국가주석 : 후진타오²³⁾
 -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 : 공산당
 - 입법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 우방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이며 동 대회의 상설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임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함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 행정구 및 군에서 선발된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민족도 반드시 적정 정원의 대표가 있어야 함
- 국가 행정기관 : 국무원(총리, 원자바오), 지방각급 인민정부
- 국가 정책자문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 : 자칭린)
- 국가 군사지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시진핑)
- 국가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 국가 검찰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

나. 주요정책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표방
-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을 모토로 하여 양적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경제발전을 추구함
- 대륙-대만간 국가통일 실현(1국 2체제 방식)
- 평화공존 5원칙 등을 기조로 하여 패권주의 반대, 세계평화를 옹호함
- 유엔가입 : 1971.10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다. 정치제도

- 중국 정치제도는 '49.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후 중국대륙에서 이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정권, 정부제도, 국가와 사회관계 등 근본문제를 규범화한 법률, 체제, 규칙 및 관례임

23) 새 지도부는 2013년 3월 정식 출범할 예정임(신임국가주석 시진핑, 신임총리 리커창 포함 상무위원 7인 모두 내년 3월 임명)

-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의 근본 정치제도로, 인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며, 인민대표는 선발절차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음
-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다당 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4. 한중관계

가. 일반사항

- 한중수교일 : 1992년 8월 24일
- '10년 제6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재중 한국인은 120,750명으로 나타남

〈 2002~2012. 8월 한중 양국 무역 수출입 총액 〉

단위: 억 달러

년도	총액	대중국 수출 (A)	대중국 수입 (B)	차액 (A-B)
2002년	440.7	285.7	155	130.7
2003년	632.3	431.3	201	230.3
2004년	900.7	622.5	278.2	344.3
2005년	1119.3	768.2	351.1	417.1
2006년	1343.1	897.8	445.3	452.5
2007년	1599	1037.6	561.4	476.2
2008년	1861.1	1121.6	739.5	382.1
2009년	1562.3	1025.5	536.8	488.7
2010년	2071.7	1384.0	687.7	696.3
2011년	2456.31	864.26	1342.05	477.49
2012. 1~8월	1393.17	536.52	856.65	320.13

자료 : 중국 상무부

- 10년간 한중 양국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02년 500억 달러에서 '11년 2,456.3억 달러에 달하여 약 5배 성장하여 한국에게는 중국이 일본, 미국을 뛰어넘은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었으며 중국에게는 한국이 제6대 무역파트너 국가가 되었음

〈 2002~2011. 8월 한-중 수출입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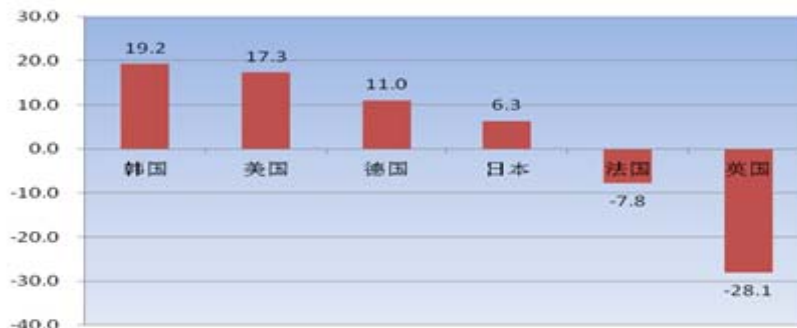


나. 한중 경제동향

○ 수출입 동향

- 한중 상호 무역액은 급속히 증가하여 양국 간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대중국 무역흑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한중 양국 무역액은 '0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1,119.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11년에는 2,456.3억 달러에 달하는 등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었고, 중국의 수입도 수출을 초과하며 대 중국 무역흑자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 임
-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향후 한-중 간 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짐

〈 국제 금융위기 후 주요국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



자료 : 한국산업연구소

- 한중 무역구조는 단일구조에서 복합구조로 발전

〈 2011년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상품구분	2010	2011	동기대비
총액	116,838	134,205	14.86
기전제품	47,375	50,057	5.66
광학, 시계, 의료설비	21,224	22,986	8.30
화학제품	12,160	16,456	35.33
광산제품	7,390	11,818	59.92
플라스틱, 고무	9,887	11,022	11.48
기본금속 및 제품	8,155	9,153	12.24
운수설비	5,348	6,608	23.56
방직품 및 원자재	2,720	2,962	8.90
가구, 완구, 잡항제품	404	569	40.84
식품, 음료, 담배	404	549	35.89
섬유펄프, 종이	508	467	△8.07
활동물, 동물제품	219	445	103.20
가죽제품, 가방류	318	338	6.29
도자기, 유리	233	229	△1.72
귀금속 및 제품	198	206	4.04
기타	296	340	14.86

* 자료 : 중국 상무부

〈 2011년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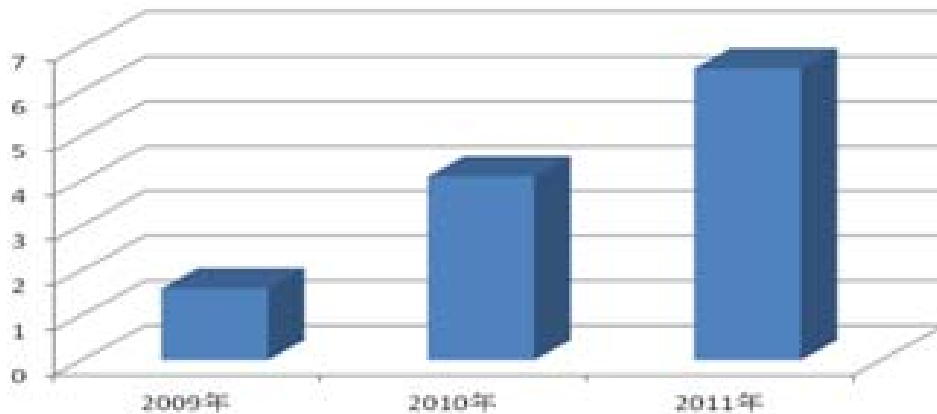
상품 구분	2010	2011	동기대비
총액	71,574	86,426	20.75
기전 제품	30,461	35,647	17.03
기본 금속 및 제품	11,400	15,073	32.22
화학 제품	5,085	6,850	34.71
방직품 및 원자재	5,126	6,235	21.63
광학, 시계, 의료 설비	3,070	4,056	32.12
광산 제품	2,437	2,646	8.58
운수 설비	2,719	2,427	△10.74
도자기, 유리	1,992	2,293	15.11
플라스틱, 고무	1,626	2,072	27.43
가구, 완구, 잡항 제품	1,888	2,061	9.16
식물 제품	1,009	1,316	30.43
신발, 우산 등 경공업 제품	1,000	1,247	24.70
식품, 음료, 담배	1,054	1,166	10.63
활동물, 동물 제품	985	1,155	17.26
가죽 제품, 가방류	732	914	24.86
기타	988	1,267	28.24

- 중한 양국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양국 무역구조도 과거의 단일구조에서 점차적으로 복합형으로 발전하며 상품종류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전기제품, 광학 의료설비, 화공제품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제품으로 '11년 수출액은 각각 500.6억달러, 229.9억달러, 164.6억달러로 각각 5.7%, 8.3% 및 35.3% 성장하였으며, 대중국 수출총액의 66.7%를 차지하였고, 종이와 도자기, 유리 수출의 감소를 제외하고 대 중국 기타 주요 수출상품은 모두 증가세임
- 한국의 대중국 3대 수입상품은 기전제품, 기본금속 및 제품, 화공제품 등으로, '11년 수입액은 각각 356.5억 달러, 150.7억 달러, 68.5억 달러로 각각 17%, 32.2% 및 34.7% 성장하여, 각각 수입총량의 41.3%, 17.4%, 7.9%를 차지
 - 이외에도 주요수입상품 모두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방직품 및 원자재, 가구, 완구와 같은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우세를 볼 수 있음
-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반도체(4.2%), 전자제품(5.5%)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침체로 액정패널, 강철제품, 석유제품, 기계의 수출은 각각 9.8%, 9.6%, 13.8%, 10.2% 하락

다. 투자 동향

〈 2009-2011년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

단위: 억 달러



자료 : 한국 지식경제부

- 한국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2011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에 따르면, '11년에 외국인의 대 한국 직접투자액은 136.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 성장하였음
 - 이중,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6.5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2% 성장하였고, 투자 중점영역은 지역개발 등 서비스업임
- '09년 연간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액은 1.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0년에는 4.1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11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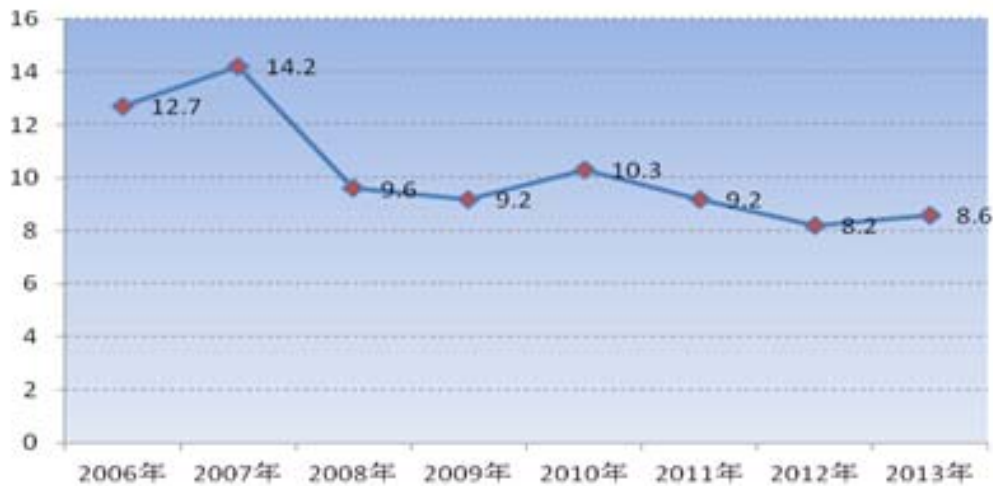
-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투자 전체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모집정책과 한미 FTA, 한EU FTA를 이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중국기업들로 인하여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II 경제 동향

1. 경제 지표 및 정책

가. 중국GDP 성장률 및 전망

〈 2006~2013년 중국GDP 성장률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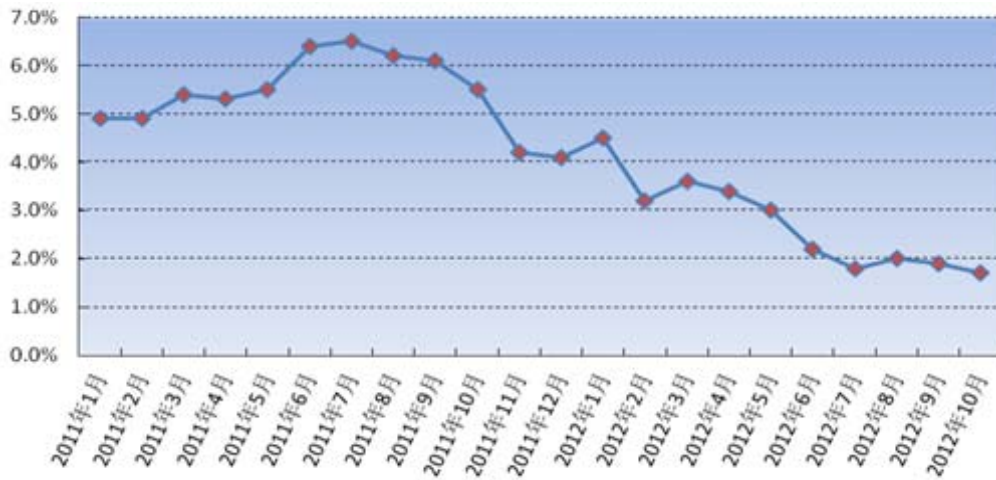


* 자료 : '06~'11년(중국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
'12~'13년(세계은행 전망자료)

-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12년 GDP 성장률은 8.2%, '13년은 8.6%로 성장속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의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계생산율을 향상 시켜야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산업경쟁력을 전이하는 것이 필요함

나. 물가

〈 2011~2012년 중국 CPI 〉



〈 2011-2012년 중국 CPI 〉

시 기	CPI(동기대비 %)	시 기	CPI(동기대비 %)
2011. 1월	4.9	2011. 12월	4.1
2011. 2월	4.9	2012. 1월	4.5
2011. 3월	5.4	2012. 2월	3.2
2011. 4월	5.3	2012. 3월	3.6
2011. 5월	5.5	2012. 4월	3.4
2011. 6월	6.4	2012. 5월	3.0
2011. 7월	6.5	2012. 6월	2.2
2011. 8월	6.2	2012. 7월	1.8
2011. 9월	6.1	2012. 8월	2.0
2011. 10월	5.5	2012. 9월	1.90
2011. 11월	4.2	2012. 10월	1.70

자료 : 국가 통계국

- '12년 하반기부터 중국물가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임
 - 특히, 7, 8, 9월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8%, 2.05%, 1.9% 수준으로 안정적인
- 10월 전 국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대비 1.7%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전월에 비하여 약 0.2% 하락함
- '12년 물가는 4% 정도로 연초 정부 목표대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되나 대규모적인 화폐의 충격 또는 대외요소의 영향을 받을 경우, '13년 통화팽창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투자과열 혹은 자본 유입 속도의 급증이 나타나는 경우, '13년 물가상승은 통화 팽창이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경계가 필요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서 '12년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증가 목표는 10%대이나 무역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므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 외국자본 활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외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함
- 2012년 세계경제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무역·투자 보호주의의 심화와 해외 주문량이 감소로 중국의 해외수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3년에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의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넘칠 것으로 전망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의하면, '13년 수출증가액은 '12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10년 간 중국의 대외무역 연간 성장률은 21.7%로, 동기 세계무역 연 평균 10%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중 연간 수출성장률은 21.7%, 세계수출 점유율은 '02년의 5%에서 '11년 10.45%로 상승하였는데, '12년 세계적인 경기악화와 중국의 노동원가 상승으로 인한 저렴한 원가경쟁력 하락 및 구조조정 확대 상황을 고려하면 '13년의 수출증가율은 '12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다. 통화

< 2012년 통화정책 시행과정표 >

2-1-2 2012년부터 통화 정책의 조정표

일시	금리 조정
2월24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금리 0.5% 인하
5월18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금리 0.5% 인하
6월 8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금리 0.25% 인하
7월 6일	금융기관 1년 만기 예금금리 0.25% 인하, 1년 만기 대출 금리 0.31% 인하

자료 : 중국인민은행

- 2012년 3월의 통화정책 “2개회의”에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가 확정되어 경제변화에 따른 지급준비율 적기조정을 결정하였으며, 유효한 거시경제정책 실시와 시중통화량 관리로 총 수요공급의 균형 조절과 물가상승 방지를 목표로 삼음
- 2012년 중국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6월8일, 7월6일에 각각 이자율을 인하하였으며, 2월24일, 5월18일에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처음으로 이자율 하락을 통한 경제부양을 지원하였음
- 2012년 상반기 통화팽창압력이 감소하자 CPI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월에는 동기대비 CPI 성장속도가 2010년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여 통화정책의 조정률이 커졌음

- 중국인민은행은 예금금리 이자율과 지급준비율을 각각 2회 인하하였음
- 2012년 5월 이후 M2확장은 완만히 성장하고 있으며 대출총액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장기대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하락하자,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구조조정이 심화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시장이 예상과 어긋나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시작하여 투자확장이 억제되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

라. 부동산

- 중국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전국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일부 도시에서 가격상승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토자원부에서 실시한 구입제한 및 대출제한 제도 등 부동산 억제정책이 차츰 효과를 나타나며 투기수요가 확실히 억제되었으며 상품주택²⁴⁾ 부동산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냈음
- 2012년 상반기 토지 공급량은 동기대비 하락하였는데, 토지가격 상승폭도 감소하여 토지입찰 포기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수량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남
- 2012년 상반기 토지공급은 5.97만ha 그중 주택용 토지공급은 4.08만ha임. 최근 5년간 토지사용 및 주택용 토지가 매년 성장세였으므로 2012년 상반기 부동산 토지공급량은 최근 5년 평균대비 126% 성장, 주택토지 공급총량은 최근 5년 평균대비 116% 성장하였으며 개발가능 토지가 주택준공과 판매량을 초과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보임
- 2012년 상반기 전국 도시 토지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동기대비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중점구역의 주택 토지가격 역시 여전히 하락 중으로, 1·2분기 주요도시의 상업서비스 및 주택 토지가격의 변화는 작년 하반기의 추세를 이어가, 상승폭이 매분기 축소되고 있으며, 2분기 상업서비스 및 주택 토지가격은 동기대비 연속 4분기 하락세임
 - 양자강 삼각주, 주장 삼각주, 환발해지역의 토지가격은 1분기의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105개 주요 도시 중 53개 도시의 주택용 토지가격은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여 동기대비 하락한 도시는 전분기의 19개 도시에서 32개로 증가하였음

마. 정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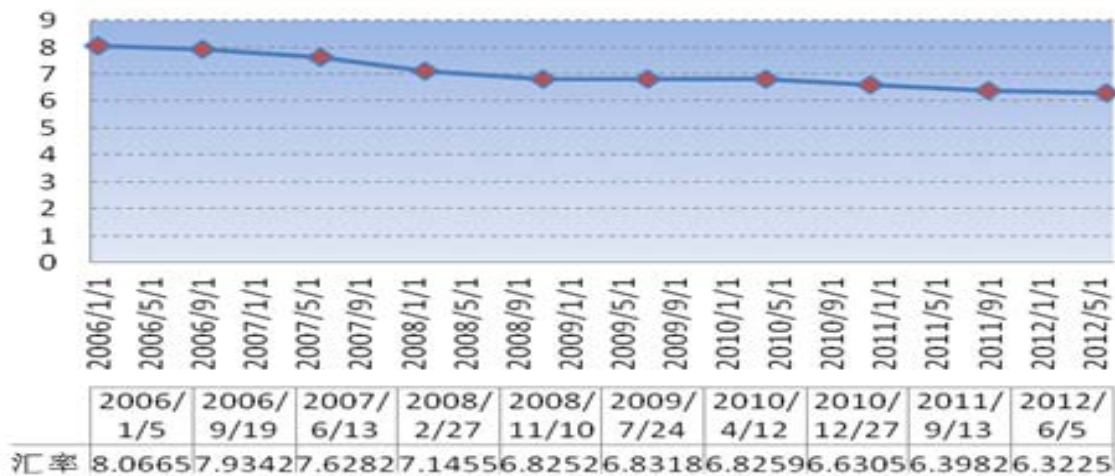
- 2006~2011년 전국 공공재정수입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2011년 연간 공공재정 수입은 10조 3,740억 위안이며 전년보다 2조 639억 위안이 증가하여 24.8%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재정수입은 5조 1,306억 위안으로 전체예산의 49.5%로 20.8% 증가하였음

24) 상품주택: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

- 2012년도 재정예산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행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을 보임
 - 첫째,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기업 및 국민의 부담을 경감
 - 둘째, 국민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증진
 - 셋째, 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민생을 중점적으로 보장 및 개선
 - 넷째, 경제구조의 조정 및 지역협조 발전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추진
- 2012년에 중앙재정에서 지출한 예산을 종합하면,
 -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및 취업, 주택보장, 문화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총 1조 3,848억 위안으로 19.8% 증가하였음
 - 중앙재정이 “3農”의 지출에 배정한 예산은 1조 2,287억 위안으로 17.9%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에 배정한 예산은 4,026억 위안임
- 2013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안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예산규모는 확대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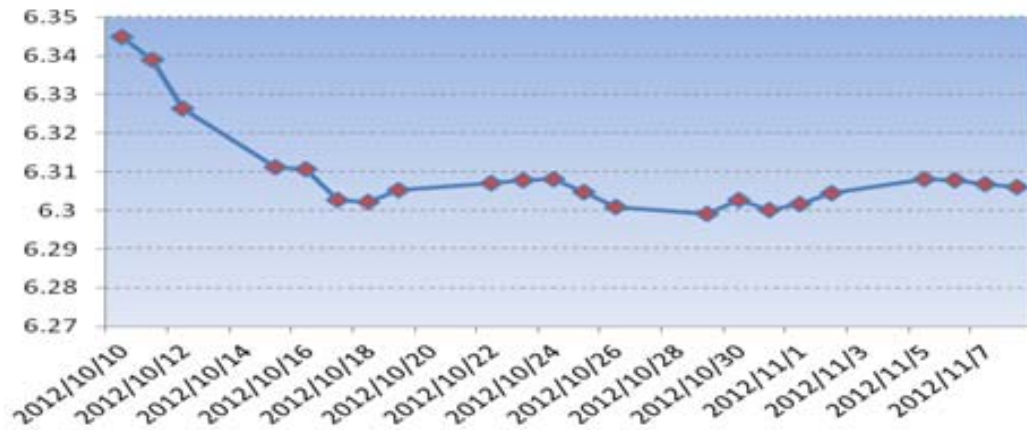
바. 환율동향 및 정책

〈 2006. 1월~2012. 6월 인민폐 환율/달러 환율 추세도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2012.10.10~11.7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 개방개혁 이전 : 정부에서 외환수지를 통제하고 외환을 배분하는 ‘**계획환율제도**’ 시행
- 1981~1993년 :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식환율인 공정한환율과 외환조절센터에서 실제 외환거래 시 적용되는 시장환율이 병존하는 ‘**이중 환율제도**’ 시행
- 1994~2005.7월 : 시장수급이 반영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율을 관리(1997년 이후 달러당 8.28위안에 고정된 **사실상 고정환율제도 운영**)
- 2005.7월~현재 :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관리변동환율제 실시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 환율제도**)

- 2005.7~2008. 6월 : **통화 바스켓제도 도입**
- 2007. 5월 : 환율 일일변동 폭 확대($\pm 0.3 \rightarrow \pm 0.5\%$)
- 2008. 7월~2010. 6월 : 사실상 6.82~6.83위안에 고정
- 2010. 6월~ : 통화 바스켓제도 복귀 이후 2012년 4월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pm 0.5\% \rightarrow \pm 1.0\%$)

1. 중국농업의 현재 상황

가. 중국 국내 농업환경

- 기회요인
 - 첫째, 중앙정부는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이를 신속한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
 - 둘째, 중국은 공업발전을 이뤄내 농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셋째, 중국은 “제12차 5개년” 기간에 도시화율이 50%를 초과하였고, 도시화의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역할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경제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민 소비구조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에 집중 할 수 있는 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 농업의 현 문제점
 - 농업분야가 타 산업분야보다 뒤떨어져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의 낙후와 낮은 농업기계화율은 물론,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농촌의 생산요소가 급격히 감소. 한 예로 공업화 및 도시화의 신속한 진행과정에서 경작지 잠식으로 비농업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대량 이동하면서 농촌 노동력은 과잉과 부족이 공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농번기와 새로운 농촌건설에 일손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농업은 생산단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시민과의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힘든 상황임

나. 해외 농업 환경

- 중국의 농산품 시장에 대한 국제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여, 농산품 수출입에서 기술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보호무역 관련조항은 중국 농산품 수출의 주요한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농업에 대하여 높은 보조금을 매기고 있음

다. 주요 농업지표

〈 2006~2012년 곡물 생산량 및 증가율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2011년 연간 곡물생산량은 5억 7,121만톤으로 전년대비 2,473만톤 증가(4.5% ↑) 하였음
- 하곡 생산량은 1억 2,627만 톤으로 2.5% 증가하였으며, 추곡 생산량은 4억 1,218만 톤으로 5.1% 증가하였음

〈 “제12차 5개년”기간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계획 〉

3-1-1 “제12차5개년”기간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의 주요한 지표

구별	지표	2010년	2015년	년 평균증가율 (%)
농산품 공급 능력	곡식 파종면적(억묘)	16.48	>16.0	
	곡식 종합 생산 능력 (억톤)	>5.0	>5.4	
	면화 총 생산량 (만톤)	596	>700	>3.27
	기름 총 생산량 (만톤)	3230	3,500	1.62
	당류 총 생산량 (만톤)	12,008	>14,000	>3.12
	육류 총 생산량 (만톤)	7,925	8,500	1.41
	금단 총 생산량 (만톤)	2,765	2,900	0.96
	우유 총 생산량 (만톤)	3,780	5,000	5.75
	수산물 총 생산량 (만톤)	5,373	>6,000	>2.23
	농산품 품질 안전 일반 검사 전체 합격률 (%)	94.8	>96	>[1.2]

구별	지표	2010년	2015년	년 평균증가율 (%)
농업 농촌 산업 구조	목축업 생산가치 대 농업 총 생산가치의 비중(%)	30	36	[6]
	어업 생산가치 대 농업 총 생산가치의 비중 (%)	9.3	10	[0.7]
	농산물 가공산업 가치와 농업 총 생산가치 비율	1.7	2.2	[0.5]
	농촌 기업가치 연평균 증가율 (%)			10
	농경 총 생산가치 연평균 증가율 (%)			9
농업 물질 기술 장비 조건	농업 과학기술 발전기여도 (%)	52	>55	> [3]
	농업 기계 총 동력 (억 KW)	9.2	10	1.68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 기계화 수준 (%)	52	60	[8]
	증가한 농촌의 유효 관개면적 (억묘)			[0.4]
	농업관개용수의 유효 이용 계수	0.5	0.53	[0.03]
	농촌 실용 인재 총수 (만명)	820	1,300	6.8
농업 생산 경영 조직 방식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이 보유한 농호수량(억호)	1.07	1.3	3.97
	젓소 규모화 양식 비중 (%) (연간 사양 100마리이상)	28	>38	> [10]
	생 돼지 규모화 양식 비중 (%) (연간 500마리이상)	35	50	[15]
농업 효익과 농업 수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연평균 증가율			5
	농업노동력 이동(만명)			[4000]
	농촌 거주민 1인당 순수입(위안)	5,919	>8,310	>7
농업 자원 이용 및 환경 보호	농작물 줄기 종합 이용율 (%)	69*	>80	>[11]
	농가의 가스보급율 (%)	33	>50	>[17]
	수생생물의 묘종 방류 누계 (억마리)	289		[1500]

주: [] 5년간 누계 /. * 2009년 통계/ 820만 농촌 실용 인재 수량은 2008년말통계/ 농촌
거주민 순 수입의 절대가치는 2010년 가격으로 환산/ 증장 속도는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
계산

자료 : 전국 농업 및 농촌경제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 “제12차5개년” 기간에 중국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목표
 - 곡식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력을 향상하고 현대 농업건설의 발전을 추진하고 농촌 수입을 크게 향상시켜 농민생활을 풍족하게 발전시킴
- 구체적인 발전 지표(2015년 까지 목표)

구 분		2015년 목표
농산품 공급능력	곡식 파종면적	16억묘 이상
	곡식 생산능력	5.4억 톤 이상
	면화, 당류 생산량	면화(700만 톤), 당류(14,000만 톤)
	유지 생산량	3,500만 톤
	육류 생산량	8,500만 톤
	가금卵 생산량	2,900만 톤
	우유 생산량	5,000만 톤
	수산물 생산량	6,000만 톤
	농산물 품질검사 합격률	96% 이상
농업농촌 산업구조	목축업 생산가치	농업 생산가치 대비 36%
	어업 생산가치	농업 생산가치 대비 10%
	농산 가공품 생산가치와 농업 총생산가치 비례	2.2:1
	농촌기업	연평균 10% 증가
	농경생산 총 가치	연평균 9% 증가
	기타	농업관광, 문화 등 농업농촌 서비스업 신속발전
농업기술 장비수준	유효 관개면적	4,000만묘 증가
	농업관개용수 이용계수	0.53
	농업기계 동력	10억 KW
	농업 기계화율	60% 이상
	농업과학 공헌율	55% 이상
농업생산경영 조직방식	산업화조직 농가 수	1.3억 호
	젓소 100마리 이상 규모화 양식 비중	38% 이상
	돼지 500마리 이상 규모화 양식 비중	50% 이상
농업효율과 농가수익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증가율	연평균 5% 이상
	농촌 거주민 1인당 수입	연평균 7% 이상

라. 주요 농업 정책

-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으로 현대농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제12차 5개년” 농업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음

1. 양곡의 생산능력을 제고

- 생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업구조를 최적화하여 주요구역을 건설, 곡식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95%이상의 자급률을 확보
- 양곡 파종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양곡품종의 구조를 최적화하며 주요 생산구역을 확대

2. 농업 과학기술 및 장비수준을 대폭 상승

- 농업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를 양성하고 농업 기초시설 건설을 보강, 농업 기계화 및 시설을 신속히 발전시켜 농업의 재해방지와 재해감소 능력 강화

3.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의 조정 및 최적화

- 농업을 구조조정하여 농산물 가공업을 가속 발전시켜 농촌기업 발전 능력향상, 농업 및 농촌 서비스업을 확대시키고 농업 농촌 신흥 산업을 육성

4. 농민들의 수입증가 추진

5. 농업 공중서비스 대폭 발전

- 농업의 공익성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고 농촌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보강하며 농촌사회 사업발전을 추진

6. 농업발전체계의 완성 및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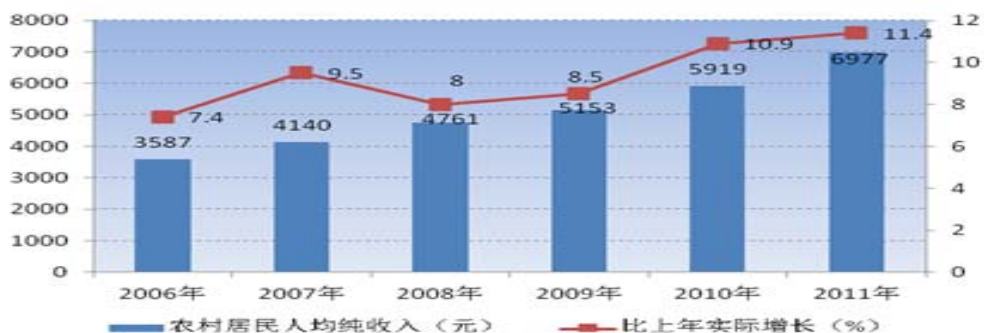
- 농촌 토지관리 제도를 합리화하고 규모화된 경영을 발전
- 농민 전문합작사를 대폭 발전시키며 농업 산업화 발전품질을 향상 및 현대 농업 시범지역 건설 보강

7. 농촌 생태환경 보호강화

-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실시하여 경작지를 보호하고 수자원의 보호 및 농업 생물 자원을 보호하여 농업의 에너지 절감 및 농촌 환경관리를 신속히 추진

마. 농민 수입의 변화

〈 2006~2011년 농촌 거주민 1인당 순수입 증가율 〉



* 자료 : 중국 201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

- 2011년 농촌 거주민 1인당 순수입은 6,977위안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가격 요소를 차감한 실제 성장률은 11.4%임

2. 중국 농산품 무역동향

가. 농산품 수출입 동향

- 무역규모의 빠른 증가 및 무역적자 확대 추세
 - WTO 가입 이후 중국 농산품 무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 농산품 무역액은 '02년 304.3억 달러에서 '11년 1,540.3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3대 농산품 무역 국가로 성장하였음
 - 농산품의 수출입은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입 증가속도는 수출을 크게 앞질러 '03년과 '04년의 농산품 수입증가율은 각각 52%, 48%로 전체 수입증가율 10~17%를 훨씬 초과하여 '04년 이후 농산품 교역은 흑자에서 적자 전환되었음
 - 수입액은 '08년, '10년, '11년 3개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중 '11년의 농산품 수입액은 939억 달러에 달하였고 수출액은 601.3억 달러에 불과하여 농산품 무역수지 적자는 337.9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2002~2012. 10월 중국 농산품무역 통계 〉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입액	수출액(A)	수입액(B)	차액(A-B)
2002년	304.3	180.2	124.1	56.1
2003년	401.3	212.4	188.9	23.5
2004년	510.6	230.9	279.7	△48.8
2005년	558.3	271.8	286.5	△14.7
2006년	630.1	310.3	319.8	△9.5
2007년	775.9	366.2	409.7	△43.5
2008년	985.5	402.2	583.3	△181.1
2009년	913.8	392.1	521.7	△129.6
2010년	1207.9	488.8	719	△230.2
2011년	1540.1	601.1	939	△337.9
2012. 10월	1428.6	506.2	922.5	△416.3

자료 : 중국상무부, 중국해관

〈 2002~2012. 10월 중국 농산품 수출입량 추세도 〉



- 제품구조의 변화가 크고 대중 농산품 위주로 적자
 - 중국 주요농산품 수입 품목은 대두, 대두유, 종려유, 면화, 밀 등으로 중국의 곡물 및 유류 자급률은 크게 하락하여 수입의존도가 이미 10% 내외로 상승하였으며, 식용 식물유의 수입도 증가하여 내수기업의 제조 식물유 생산량의 20%에 불과함
 - 곡물 수출은 '02년 1,484만 톤에서 '11년 121만 톤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채소수출량은 매년 증가하여 '11년 755만 톤에 도달, 중국에서 수출량이 가장 높은 농산품이 되었음
 - 식물유, 섬유방직 등은 주요 적자 농산품목이며, 채소와 과일은 주요 흑자 품목임
- 시장구조의 다원화와 수출의존도 하락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수출입은 안정되었으나 아시아는 농산품의 주요 수출시장, 미주는 최대 수입시장으로 WTO 가입이전과 변화가 크지 않음
 - 중국 상무부에 의하면, 수출대상국 의존도 하락이 눈에 띄는데 그중 대 일본 의존도 변화가 가장 큰데, 일본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품 비중은 '00년 35.5%에서 '11년 18.3%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한국과 홍콩의 비중도 하락하고 있으나, 미국의 비율은 11% 증가하여 중국의 2대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중국의 대미 농산품 수출비중은 '00년 23%에서 '11년 25%로 상승하여 중국농산품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음
- 농산품 무역에서의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 성장
 - WTO에 가입한 10여 년간 중국 농산품 수출입 경영주체는 국영기업에서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으로 크게 변하여, WTO 가입 전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상황에서 완전히 바뀌었음
 -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각각 286.1억 및 217.8억 달러, 수입액은 각각 309.8억 및 368억 달러로, 이는 중국 농산품 무역 수출총액의 83.8%와 수입총액의 72.2%임
 - 이와 반대로 국유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 중이며 WTO 가입초기 수출량에 비해서도 감소하여, '11년에 국유기업의 수출농산품은 7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였지만 '00년에 비하면 11.6억달러가 감소한 수치임
 - '11년 국유기업 농산품 수입총량은 213.6억달러로 이는 외자기업의 58%수준임. 수출입 경영주체가 국유기업에서 외자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농산품 무역의 시장화 정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나. 한중간 농산품 수출입 동향

- 교역규모의 꾸준한 확대
 - 중국 농산품의 대 한국 수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11년 중국의 농산품 수출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 다음의 3번째 수출대상국임

- 해관통계에 의하면 '02~'11년 10년 간 중국 농산품의 대 한국 수출은 농산품 수출 총액의 약 6~12% 사이이며 최근 2년간 약 7%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도 매년 꾸준히 증가
- 중국 농산품 대한국 수출이 최근 10년간 105% 증가한 반면 한국 농산품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은 392%에 달함

〈 한중 농산품 교역액 〉

단위: 억 달러

연도	중국 대 한국 수출액	중국 대 한국 수입액
2002년	20.4	1.3
2003년	25.6	1.5
2004년	21.2	2
2005년	28.5	2.5
2006년	28.9	2.3
2007년	36.0	3
2008년	31.7	3.3
2009년	28.3	3.1
2010년	35.3	4.2
2011년	41.8	6.4

자료 : 중국해관

〈 2002~2011년 한중 농산품 수출입량 추세도 〉



○ 노동집약적 농산물이 대중 이뤄

- 대 한국 농산품 무역에서 중국수출이 점차 증가하는데, 주요 품목은 곡식, 수산물, 야채, 기름씨 등으로 주로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농산품임
- '11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농산품 주요품목은 당면제품, 냉동야채 및 조합야채, 옥수수, 대두, 당근 및 무, 냉동생선 등임

3. 관세 현황

- WTO 가입 이후 10여 년 간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점차 하락하여 '01년 23.2%에서 현재 15%로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2001~2011년 중국관세 변화 〉

연도	관세 총수준(%)	공업품 평균(%)	농산품 평균(%)
2001년	15.3	14.8	23.2
2002년	12.0	11.4	18.1
2003년	11.0	10.3	16.8
2004년	10.4	9.5	15.6
2005년	9.9	9.0	15.3
2006년	9.9	9.0	15.2
2007년	9.8	8.95	15.2
2008년	9.8	8.9	15.2
2009년	9.8	8.9	15.2
2010년	9.8	8.9	15.2
2011년	9.8	8.9	15.2

자료 : 상무부 《신농촌 상보》

- 중국은 곡식, 식물유, 면화, 식용당류, 양모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밀 수입의 90%가 국영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품의 국영무역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05년에는 양모 및 모조의 수입지정 경영제도를 철폐하였고 '06년에는 두유, 종려유, 채종유 수입쿼터를 취소하고 9% 단일 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4. 동식물 검역 제도

가.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관련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검역국은 수출입 및 고객이 휴대하거나 우편물로 발송하는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장착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장착용기, 포장물, 포설자재, 유행성 전염병 지역에서 온 운송도구와 법률, 법규, 국제조약, 다자간 협정에서 명시되거나 무역계약에 약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역과 감독관리를 실시

- 동물의 전염병, 기생충병 및 식물 위험성병, 벌레, 잡초 및 기타 생물 전입전출에 유해한 것을 방지하고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과 인체의 건강을 보호를 통하여 대외 무역의 발전을 추진함

나. 검역 조치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 리스크 분석 및 관리조치, 검역심사, 해외 사전검사, 해관재검, 차단검역, 실험실 측정, 검역 제거처리, 예경보 및 신속반응, 검역 감독관리 등

다. 수입 동식물 검역심사제도

- 중국의 수입 동식물검역 심사제도는 국가 관련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물검역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생물 리스크 분석원칙에 의거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에 대한 검사로서 최종적으로 수입 과정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

라. 동식물 검역심사 제도의 목적

- 수입동식물 검역심사제도의 목적은 중국의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안전을 보호하고 외래 유해생물이 수입될 수 있는 동식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과 함께 중국으로 유입되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임

마. 동식물 검역 심사 제도의 근거

- 법률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및 실시조례, <식물검역조례>임
- 중국과 수출국이 서명한 양국 검역협정(협정, 비망록, 검역 의정서 등이 포함)
- 수출국 또는 지역의 동식물 역정상황

바. 수출입 동식물 검역심사 범위

- 품질검사총국 동식물부는 해마다 수출입 동식물 검역심사를 3만회 이상을 수리하며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동물검역 심사

- 활동물 및 활동물의 배아, 정액, 수정란, 종계란 및 기타 동물 유전자 물질
- 비식용성 동물제품 : 가축류, 털류, 뼈 뿌리 및 제품, 명교, 누에, 동물성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료용 유청 파우더, 생선 파우더, 육류 파우더, 뼈류 파우더, 육골분, 유지, 혈액 파우더, 혈액 등 동물성분이 포함된 유기 비료

2. 식물검역 심사

- 총 7가지 제품 : 신선과일, 담배류, 곡식류(밀, 보리, 옥수), 대두, 사료류, 서류(고구마, 감자), 식물재배 매질 등(유채씨)

3. 특허심사

- 동식물 병원체(균종, 독종 등이 포함)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동식물 병이 유행되는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동물시체, 토양 등

4. 수출입 검역심사에는 수출입 동물 및 수출입 농업 유전자 전이 제품이 포함

5. 최근 중국 농산품 무역 동향(2012. 7월)

- 가. 2012년 1~7월간 중국 농산물 수출입금액은 983.7억달러를 기록하여 동기대비 18.1%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중 농산물 수출금액은 343.8억달러로 동기대비 3.5% 성장하였음
- 농산물 수입금액은 639.9억달러로 동기대비 27.7% 성장하여 이 기간 중 중국은 296.1억달러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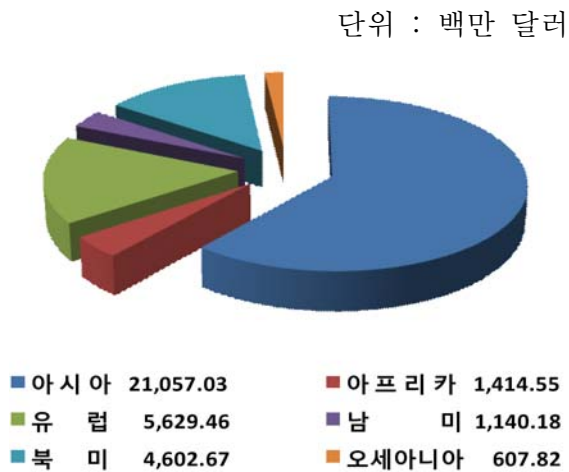
나. 최근 중국의 농산물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임
- 이는 중국의 소득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국내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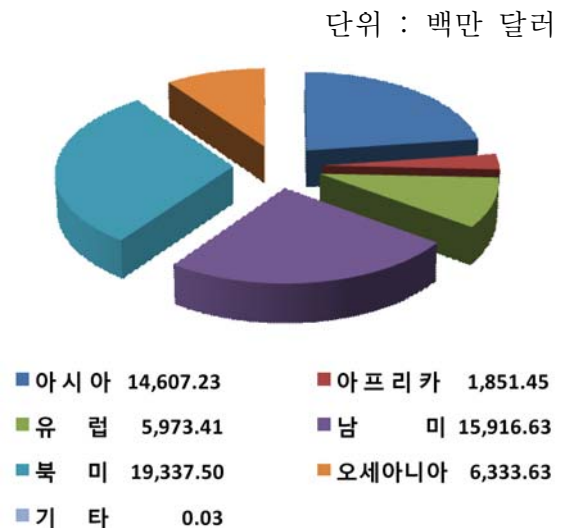
다. 2010. 8월~2012년 7월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210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유럽은 56억 달러, 북미지역에는 46억 달러어치 수출하였음

라. 2010. 8월~2012. 7월 기간 동안 중국은 최대수입지역인 북미에서 193억 달러, 그 다음으로 남미에서 159억달러, 아시아에서 146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함

〈 2010.08~2012.07 농산물 주요 수출지역 〉



〈 2010.08~2012.07 농산물 주요 수입지역 〉



Ⅲ

미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일반·정치

- 국 가 명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수 도 : 워싱턴 DC
- 면 적 : 982만 6,675 km²
- 인 구 : 3억 874만명 (2010년 인구조사)
- 기 후 : 대체로 온화한 기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기후 특징을 가짐
- 언 어 : 영어
- 종 교 : 개신교, 로마 카톨릭교, 유대교 등
- 민족구성 : 백인(79.9%), 흑인(12.8%), 히스패닉계(15.1%), 아시아계(4.4%), 원주민(0.97%) 등
- 정부형태 : 대통령제
- 국가원수 : Barack Obama

2. 경제사항

- 실질GDP성장률 : 2.0% (2012년 3/4분기)
- 명목GDP총액 : 15조 75억 달러
- 1인당 GDP(명목) : 4만 8,313달러 (2011년 기준)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0.6% (2012.8.기준)
- 실 업 률 : 8.1% (2012.8.기준)
- 외환보유액 : 1,526억 5,200만 달러 (2012.9.24.기준)
- 대 외 채 무 : 16조 144억 달러 (2012.9.24.기준)
- 수 출 액 : 1조 4,974억 달러(2011년 기준)
- 수 입 액 : 2조 2,358억 달러(2011년 기준)

3. 한국과의 관계

- 수 교 년 도 : 1882년
- 한국교민 수 : 217만 6,998명(2011년 기준)
- 대 한국 수출액 : 435억 달러(2011년 기준)
- 대 한국 수입액 : 566억 달러(2011년 기준)
- 한국 대미 투자 : 164억 달러(2011년 기준)
- 미국 대한 투자 : 24억 달러 (2011년 기준)

1. 경제 일반 동향

□ 경제 회복세 약화

- 미국경제는 2011년 4/4분기에 4.1%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2년 1/4분기 2.0%, 2/4분기 1.5%로 성장률이 하락하다가 3/4분기에 다시 2.0% 성장률 상승세를 보임
- 유럽재정위기와 경기침체,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일본 대지진 등으로 경제 회복세 둔화
- 2013년에는 2012년 말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지출 감축 조정, 기존 감세조치 연장여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실업률은 2012년 8월 기준, 8.1%에 머물러 있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8%를 하회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량(2.3%상승전망) 회복만큼의 고용은 늘지 않음

〈 실업률 추이 〉

단위: 만 명, %

구분	2012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자	6.8	8.7	4.5	14.1	9.6
실업률	8.1	8.2	8.2	8.3	8.1

출처 : Department of Labor

- 미국 달러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몰려 한동안 강세였으나 유럽 중앙은행과 FRB의 추가 양적완화 시행으로 다시 하락
- 2013년 원/달러 환율은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정책 시행과 한국의 대외신인도 개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지속 예상으로 하락할 전망
- 기준 금리는 0.00~0.25%이나 2013년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여 추가적 금리인하와 주요국의 국채금리 하락이 예상됨
- 민간소비지출은 고용시장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감소되고 있으나 3/4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개인 소비지출 증가율 〉

단위: %

구분	11.2Q	11.2Q	11.3Q	11.4Q	12.1Q	12.2Q
소비지출	3.1	1.0	1.7	2.0	2.4	1.5
재 화	5.4	△1.0	1.4	5.4	4.7	0.3
내 구 재	7.3	△2.3	5.4	13.9	11.5	△0.2
비내구재	4.6	△0.3	0.4	1.8	1.6	0.6
서 비 스	2.0	1.9	1.8	0.3	1.3	2.1

출처 : Department of Commerce

-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1년 3/4분기 19.0% 증가하였으나, 2012년 2/4분기 3.65% 감소
- 산업생산은 2012년 1/4분기에 감소하다가 2/4분기에 증감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임
- 0.8%(2012년 4월) → △0.2%(5월) → 0.4%(6월) → 0.5%(7월) → △1.2%(8월)

2. 무역현황 및 정책동향

가. 수출 동향

-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부터 높은 수출증가율(21.04%)을 보이며 특히 대중국, 한국, 브라질 수출이 급등
- 2011년은 경기회복둔화로 전년대비 15.82% 증가에 그치고 12년에도 회복이 더딤
- 주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상업용 비행기, 승용차 및 기타차량, 자동차용 부품임
- 2011년 기준 석유화학 제품이 91,527백만 달러, 상업용 비행기가 90,177백만 달러

〈 미국의 국별 수출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9	2010	2011	전년대비(%)
합 계	1,056,043	1,278,263	1,480,432	15.82
캐나다	204,658	249,105	280,890	12.68
멕시코	128,892	163,473	198,378	21.35
중 국	69,497	91,881	103,939	13.12
일 본	51,134	60,486	65,706	8.63
영 국	45,704	48,414	55,881	15.42
독 일	43,306	48,161	49,156	2.07
★한 국	28,612	38,846	43,415	11.76

출처 : Department of Commerce

나. 수입 동향

- 수입은 2010년에 증가하다 2011년 이후 경기회복둔화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대지진으로 대 일본수입이 감소하고 대 한국 수입이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주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컴퓨터 등임
- 2011년 기준, 원유 336,687백만 달러, 자동차 123,240백만 달러

〈 미국의 국별 수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9	2010	2011	전년대비(%)
합 계	1,559,625	1,913,160	2,207,824	15.40
중 국	296,374	364,944	399,362	9.43
캐나다	226,248	277,647	315,347	13.58
멕시코	176,654	229,908	262,864	14.33
일 본	95,804	120,543	128,925	6.95
독 일	71,498	82,429	98,663	16.69
★한 국	39,216	48,875	56,661	15.93
영 국	47,480	49,775	51,236	2.94

출처: Department of Commerce

다. 최근 무역정책 동향

- 미국은 경기침체를 계기로 국가 수출확대 정책(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
 -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통상장벽 제거, 통상법 강화, 구제협력 강화를 추진
 - 각 부처 참여 수출 진흥 내각(EPC: Export Promotion Cabinet)설립
- 2011년도에 이미 수출입은행, 농무부, 상무부 국제무역 관리청에 대한 예산 확충
-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업계, 동업조합을 통한 시장조사, 홍보, 국제무역 분쟁해결 등 업계 간 협력 모색, 대기업과의 협력, 농무부 시장접근 프로그램, 상무부 서비스 프로그램 활용, 중소기업 수출장벽 해결을 위한 수출 진흥 프로그램 추진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에 있어 500명 이하, 연간매출은 수출기업의 경우 2,500만 달러 이상(고부가가치 중소기업)과 500만 달러 이상(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농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의 99.7%, 종사자의 49.4%, 매출액의 38.3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음
- 상무부는 5년 내 수출 2배, 200만명 일자리 창출을 주요업무방침으로 정함
- 국가 수출확대 정책은 수출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됨

라. 기관별 수출지원 내용

- 농무부
 - 수출 신용보증 프로그램: 시장접근 프로그램, 수출보험
 - 수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유제품 수출 인센티브 사업, 수출 진흥 프로그램
 - 해외고객 발굴, 바이어정보 수집, 마케팅 서비스, 경제 분석, 해외시장 조사, 기술적 지원, 농무부 주관 박람회 지원, 세미나, 숙박비 지원
- 수출입은행
 - 수출 신용업무: 수출자금, 수출 신용보험, 구매자 금융, 구조금융 및 프로젝트 금융, 운송장비 금융
-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
 - 개도국 및 신흥국 투자 중장기 대출 또는 보증: 중소기업 금융, 보험(비 상업적 보험)
- 중소기업청(SBA)
 - 중소기업 대출보증: 수출비용 조달보증, 수출 운전자금 보증
 - 국제무역 대출: 고정자산 확대자금
 - 지역사무소 운영, 중소기업 개발센터 운영,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운영
- 미국 투자전담 기구(TDA)
 - 외국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기업 보조금 지급
 - 국제회의, 워크숍 주관, 시장정보 출간
- 상무부
 - 수출지원 및 마케팅 서비스, 카운슬링, 정보지원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세계 전역에 비즈니스 정보센터 운영(국제 지역정보 제공), Trade Information Center 운영(미국정부 정책, 관세정보 등)
 - District Export Council 운영(중소기업에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 국방부
 - 시장정보, 시장기회 조사, 중소기업 대변인 역할 서비스
 - 비즈니스 비자센터 운영(외국 고객에 대한 비자접수 절차 편의 제공)

3. 한미 FTA동향

□ 한미 FTA이행 6개월 평가보고서

※ 미 의회 경제공동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가 2012년 9월 26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

- 한·미간 상품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대한민국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

- 공산품 수입확대가 무역적자의 주원인으로 2012년 상반기 중 공산품 무역수지 적자는 110억 달러로 비 농산물 분야 흑자규모를 훨씬 초과
- 흑자분야: 농산물 및 가금류 20억 달러, 폐기물 및 스크랩 10억 달러, 광산물 6천만 달러
- 미국에서는 한미 FTA의 중장기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무역적자가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농산물 분야 관세인하로 대 한국 수출증가 기대,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한 전자제품 경쟁력 확보 기대

4.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 전망 (자료출처 : KOTRA)

가. 경제정책 전망

-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당면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중산층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적인 수요를 진작시키는 ‘상향식(Bottom-up)’경제기조는 견지할 것으로 전망
- 당면과제인 재정절벽 해소와 일자리 창출 해결을 위해 제조업 부흥, 에너지 자립, 중소기업지원 확대, 인적자원 개발, 부유층 증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 시행을 공약한 바 있음

나. 통상정책 전망

-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확대, 공공조달부문의 미국산 철강 및 제조품 우선 사용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통상협정으로는 다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TTP)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며 당분간 통상정책 추진보다는 가장 시급한 재정절벽(Fiscal Cliff)해소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

다. 한국의 대미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 기회요인
 - 한국은 TTP회원국 대다수와의 FTA가 체결 및 발효된 상태로 추후 TTP협상 참여에 유리하며, TTP협상 내용 중 회원국에게는 ‘미국제품 의무조달사항’(Buy American Provision)의 적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한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확대에 유리
 -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태양광, 풍력 등의 한국의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또한 향후 미국시장 진출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

○ 위협요인

- 지난 4년간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심의 및 판정의 급증과 미국 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12년 9월 중순부터 시행중인 연준(FRB)의 3차 양적완화로 인해 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됨

Ⅲ 농업동향

1. 농업 일반 현황

가. 대내외 환경

- 미국은 주요 농업생산국이며 소비국인 동시에 수출, 수입국가
- 농업 생산성의 증가로 농가 수는 감소하였지만 규모는 확대되어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2007년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농가 수는 220만호 (2011년: 218만), 평균 농장규모는 418 에이커임
 - 전체 농지면적은 9억 2,200만 에이커로 농경지 비중은 40.8%
- 2007년 농업부문 생산액은 3.265억 달러이나 GDP비중은 0.7%에 불과함
- 농업부문 종사자는 약 2,867천명이며 이는 미국 전체 고용인원의 1.6%, 농촌지역 고용인원의 5.9%에 해당
 - 농업관련 산업(농업 서비스, 가공, 마케팅 등)종사자는 추가로 3,564,522명이 종사
- 2010년 순 농가소득은 7만7천 달러로 상당부분이 2002년 농업법에 따른 직접 지불제도에 힘입은 바가 큼
-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여 25만 달러 이상의 농가가 계속 증가추세
 - 25만 달러 이상 농가는 22만 4천 농가로 2000년보다 6만호 증가

〈 부문별 생산액 〉

단위: 10억 달러

	1990	2000	2007	2009
농업부문 생산액	188.5	220.4	326.5	322.7
곡물	83.2	94.8	150.9	164.2
- 식량작물	7.5	6.5	20.7	14.5
- 사료작물	18.7	20.5	62.0	49.7

	1990	2000	2007	2009
- 면화	5.5	2.9	5.7	3.3
- 유지작물	12.3	13.5	31.2	31.7
- 과일, 견과류	9.4	12.4	18.9	17.4
- 채소	11.3	15.5	20.4	21.0
- 기타	15.6	21.0	25.3	26.0
축산물	90.0	99.1	139.7	117.4
- 육류	51.1	53.0	64.7	57.2
- 낙농제품	20.2	20.6	34.8	23.9
- 가금류	15.3	21.9	36.8	32.6
- 임업, 서비스 수익	15.3	26.5	42.6	41.1

나. 농업정책 기본 방향

- 농업구조의 시기별 변화에 따라 농업 정책도 변화를 거듭함
 - 과거 가격지지 정책 → 시장친화적 정책(1985~1990)
 - 식품안전, 반독점, 유통, 농촌은행, 선물거래 → 환경규제, 기초영양 섭취, 농업 노동자 보호, 농촌 토지이용 계획
- 시장실패의 결과로 정부개입을 지지하지만 위험관리는 생산자와 책임을 분담
- 매5년마다 농업법을 보완 및 수정하여 예산에 반영
 - 2008년 식품보호 및 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으로 2012년까지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을 규정함(보호농업 강화, 바이오 에너지 지원)
- 농무부 예산은 2010년 현재, 국가예산 3,613,100백만 달러의 4.9%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다가 식품보조 예산이 증가하여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 농무부 예산 〉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5	2010	2012
농가보조	32,124	39,554	46,108	43,011
지역개발	12,964	11,626	29,649	36,369
식품보조	26,507	47,878	90,803	111,977
식품안전	771	952	1,172	1,020
환경보호	6,055	7,985	9,710	10,438
유통규제	991	1,805	2,899	2,549
연구개발	2,208	2,435	2,731	2,773
전 체	100,214	112,867	178,650	204,962

※ 출처 : USDA

다. 주요 농업정책

□ 정책의 기본구조

- 오늘날 대부분의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시대에 수립
 - 1949년의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은 미국의 물가와 소득지원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틀로 알려져 있음
 - 일련의 농업법(The Farm Act) 모두가 농가소득문제와 농산물 가격문제를 지원하는 법률로, 이외에도 농산물 거래, 외국 식량원조, 자연보호, 산림,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보조, 농식품 조사 및 교육, 농촌개발, 농산물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 정책 내용

- 작물지원 정책
 - 2008년 농업법에서 새로운 수익보조 프로그램인 수입보전 직접지불제도 도입
 - 과거 재배작물, 산출량, 전국단위 지불단가에 따라 생산자에게 매년 지급 (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면화, 쌀, 콩, 유지작물, 땅콩)
 - 경기순환 상쇄지불제도(Counter-cycle Payment) : 해당 작물의 시장가격과 지불 금액을 합한 금액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자액을 보전함
 - 설탕지원 : 대출지원으로 가격지지,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할당제, 무역제한, 과잉공급 예상 시 에탄올 생산전환(1981년부터 시작)
- 낙농지원 정책
 - 낙농분야는 농업생산액의 27%를 차지하지만 불안정한 생산가격, 수요공급의 불균형, 생산자의 약한 교섭력 등의 문제가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임
 - 주요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격차별정책과 통합제도, 경기순환 상쇄 생산자 지불 제도, 낙농제품 구매, 낙농품 수입제한, 관세할당제도, 수출보조 등

□ 무역정책

- 농산물 수출은 생산량 대비 20%, 생산액 대비 18%를 차지하는 중요 부문임
 - 낙농수출 인센티브 프로그램(DEIP)은 미국시장가격으로 낙농품을 구매하여 국제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조
- 수출보조 이외에 시장접근 프로그램, 해외시장 개발 프로그램, 신흥시장 프로그램, 특수작목 기술지원 등이 있음
 - Market Access Program(MAP): 생산자, 수출자, 민간기업, 무역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박람회, 시장조사, 소비촉진, 기술지원, 무역지원, 교육분야에 해당
 -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FMD): 농산물의 시장창출, 확대, 장기 수출 시장 유지에 지원

- Emerging Market Program(EMP): 신흥시장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에 재정지원
- 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TASC): 특수작목의 수출에 따른 위생검역 등 기술 장벽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에 재정지원
- Quality Sample Program(QSP): 무역기관들이 신흥시장의 잠재적인 바이어에게 보내는 소량의 견본제품 지원

□ 환경정책

- 토양침식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6%가 농업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환경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음
 - 농지휴작프로그램: 농지를 일정기간 휴작함
 - 영농이용 토지보존 프로그램: 환경보전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 농지확보 프로그램: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지원
 - 기술지원: 환경영향 요소 개선지원
 - 환경보존: 정부지원 수혜자에게 습지와 침식이 용이한 토양의 보존 및 보호의무 부여

□ 농촌개발 정책

- 농촌경제의 미미한 농업 비중과 도농간의 후생경제지표 격차가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개발 프로그램 운영
 - 경제개발: 농촌지역에 신규 사업과 고용기회를 유발
 - 기반시설개발: 농촌사회의 부족한 기반시설 및 수준 향상
 - 특별수요 프로그램: 주택, 보건의료, 건강 등 기본서비스 향상

□ 에너지 정책

- 옥수수, 대두 등 바이오원료(에탄올, 바이오디젤) 생산자에 대한 조세우대, 융자, 자원지원, 규제프로그램
 - 바이오 원료는 조세정책, 환경정책과 연관되어 농업법의 범주 밖에 있으나, 2008년 농업법에서 바이오 원료 정제능력 발전을 위해 2008~2012년 기간 중 12억 달러의 기금 조성의무를 규정

□ 국내 식량지원 정책

- 단기간의 식량불안에 노출된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영양가 높은 건강식단 권장, 농업지원 목적의 농산물 구매지원
 - 보조영양 지원프로그램(SNAP): 저소득 가구에 식품구매 지원(Food stamp)
 - 아동 영양 프로그램(CNP)
 - 여자와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조프로그램(WIC)
 - 농산물 분배 프로그램

□ 유통정책

- 대량거래, 단순한 유통경로, 유통정보 발달 등으로 유통 효율성이 높음
 - 포장, 운송, 저장의 표준화까지도 이루어짐
- 유통정책은 유통시설이나 물류지원보다는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둠
- 1930년 파카법(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95수정)에 의해 신선농산물의 계약과 분쟁해결 절차를 명시
 -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는 소매상, 도매상, 중개인, 운송업자, 무역업자 등 유통참가자는 면허를 받아야 함
 - 신속한 대금지급과 위탁판매 대금의 정확한 계산
 - 등급, 품질, 원산지 등의 투명성 확보
 - 유통참가업체 종사자들에게도 파카법에 대한 인터넷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권장
-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품목별 자조금제도 운영
 - 자조금은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교육, 표준화, 마케팅, 품질향상, 연구개발에 사용
- 유통정보 제공
 - 시장뉴스를 통해 400여개 품목의 수요공급 및 가격정보를 수집제공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조사요원을 고용하여 400종의 보고서를 발간 무료제공
- 검사업무
 - 표준화 업무와 현장 검품 업무 서비스 제공

□ 차기 농업법안

- 거의 5년마다 농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하 양원에서 차기 농업법안에 대한 정책 논의 중 (2008년 농업법은 2012년 9월말에 시효만료)
- 상원은 2012년 6월에 새로운 농업법안을 승인하고 하원은 7월에 농업위원회에서 승인, 현재 하원 전체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음
- SNAP²⁵⁾예산삭감에 대한 하원 민주당의 반발
 - 차기 농업법안에서 SNAP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78%
 - 경기침체에 따라 수급이 증가하고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실정
- 직접 고정지불(10년간 496억 달러)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른 지불(ACRE) 및 재해시의 보완 전 소득지원(SURE)의 후속제도 마련
- 유제품 가격지지와 우유 부족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마진보험과 공급관리 방안 마련
- 작물보험 예산액 증액
 - 군 단위 소득손실보험, 땅콩 수입보험, 쌀의 신형보험 등

25) SNAP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이나 구호 대상용 식량카드 프로그램

- 소득에 따른 지불을 주장하는 옥수수, 콩 중심의 중서부와 현행 직접 고정지불 및 부족지불을 희망하는 땅콩, 쌀 중심의 남부간의 이해 조정
-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2013-2022회계연도에 총 9,930억 달러가 소요됨
 - 주요 항목별 소요액: SNAP 7,720억 달러(78%), 품목지원 및 보험 1,540억 달러 (16%), 농업보호 640억 달러(6%)

2. 농식품 무역동향

□ 농산물 무역동향

- 농무부 경제연구청(ERS)에 의하면 2011년에 136,339백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98,946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37,393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상무부에 의하면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로서 2010년 기준으로 16,856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중국 17,552백만 달러, 멕시코 14,575백만 달러, 일본 11,819백만 달러, 한국 5,308백만 달러임
 - 주 수출 품목은 곡물 및 사료 25.3%, 유지작물 및 생산물 23.5%, 동물 및 생산품 19.3%, 면화 5.05%, 채소 및 가공품 4.65%, 과일 및 가공품 4.55%
- 주 수입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 주 수입 품목은 채소 및 가공품 10.7%, 과일 및 가공품 10.3%, 유지작물 및 제품 6.0%, 커피 및 제품 5.2%

〈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수 지
2005	63,182	59,291	3,891
2006	70,948	65,326	5,623
2007	89,990	71,913	18,007
2008	114,760	80,488	34,273
2009	98,453	71,681	26,772
2010	115,815	81,858	33,958
2011	136,339	98,946	37,393

출처 : ERS

〈 대 한국 부류별 수출 〉

단위: 달러

구 분	2010	2011
전 체	5,306,946,009	6,968,642,081
Animal & Animal Products	1,427,093,051	2,094,287,117
Grains & Feeds	2,282,430,780	2,865,309,147
Fruits & Prep ex Juice	243,723,008	325,368,556
Vegetables & Prep	107,727,777	116,514,378
Oilseeds & Products	517,059,805	440,253,524
Cotton, ex Linters	157,560,650	393,909,170
Essential Oils	15,889,349	17,775,683
Sugar & Tropical Products	121,720,397	156,529,943
Nursery & Greenhouse Products	975,898	638,480
Selected Non-AG Exports	394,342,042	468,945,527

출처 : ERS

- 미국의 2011년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69억 6,864억 달러
 - 주요품목: 소고기, 밀, 옥수수, 콩, 면화 등
 - 한미 FTA체결 이후 과실류와 견과류 수입증가

IV 관세 및 검사 검역제도

-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DHS)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관세청 등 22개 기관을 통합운영
 - 종전의 관세청 업무와 연방이민귀화국(USCIS), 동식물 검역소의 검사업무는 관세국경보호국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통합
- 관세행정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기본업무인 테러방지와 무역의 원활화라는 양대 목표 하에 수행됨
 - 무역의 모든 단계(제조, 운송, 수입, 하역, 보관, 배급)에서 민간협력과 관리강화
 - 대표적인 조치는 해상화물, 항공, 철도, 트럭화물의 화물정보 사전제출제도임
- WTO Traffic Profile에 의하면 2009년 미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4.7%였음

- 한미 FTA체결과 함께 미국은 3년 내에 유관세 농산물 689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 한국이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유관세 농산물은 587개
- 미국 도착물품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상 주 내용은 통관자격유무와 관세 행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등
 - 제출서류: 물품목록, 통관자격 증명, 상업송장 또는 견적송장, 포상명세서등
- CBP의 물품 도착확인과 예상관세 납부절차를 거쳐 통관이 완료되는데 원산지 표시가 주요 의무사항이며 검사, 검역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져야 통관, 인수 가능
- 농산물은 농무부의 검역, 검사를 거치며 필요에 따라 FDA검사가 진행됨
 - 치즈, 우유, 유제품: 농무부, FDA
 - 과일, 채소, 견과류: 일부품목에 대한 농무부의 등급검사 및 식품안전국 검사
 - 가축 및 동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출항 출발 전 동식물 검역소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고 동물은 수의학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며 지정항에서 통관
 - 육류, 가공류, 달걀제품: 동식물 검역소, 식품안전국, FDA, 야생동식물 보호국의 소관사항 검사
 - 식물과 식물제품: 동식물검역소 검역, 농무부 수입규정 준수
 - 식품, 의약품, 화장품: FDA 검사 및 생물학적 바이오 테러리즘 대비/ 대응법에 의한 공장등록, 선적 전 사전통지(PN)
 - 증류주, 알코올 7.5%이상의 포도주, 맥아음료는 재무부 허가 필요

IV

네덜란드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일반사항

-
- 국 명 : 네덜란드 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 면 적 : 41,526km² (지표면-33,948km², 내수면-7,578km²/전체 면적의 18%)

 - 기 후 : 서안해양성 기후, 4계절, 북위 50°-53°에 위치

 - 수 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인구-75만 명

 - 인 구 : 16,725,902명(2011년 말 기준)

 - 언 어 : 네덜란드어(Dutch), Frisian(북동부 Friesland에서만 사용)

 - 주요도시 : 로테르담, 헤이그(정부소재지), 유트레흐트, 마스트리히트 등

 - 종 교 : 카톨릭-27%, 기독교-17%, 이슬람교-6%, 힌두교-1%, 불교-1%

 - 민족구성 : 네덜란드-80.7%, 인도네시아-2.4%, 터키-2.2%, 모로코-2%, 기타- 5.6%

2. 경제사항

-
- 실질 GDP 성장률 : 2012년 △0.50% 전망 (2011년, 1.2%)

 - 명목 GDP 총 액 : 601,973 백만유로 (2011년)

 - 1 인 당 G D P : 34,661 유로(2011년)

 - 외 환 보 유 액 : 44,319 백만 유로(2012. 9월 기준)

 - 수 출 액 (2011년) : 409,358백만 유로, 전년 대비 10.2% 증가

 - 수 입 액 (2011년) : 364,922백만 유로, 전년 대비 9.9% 증가

 - 제 1 교 역 상 대 국 : 독일

 - 노 동 인 구 : 7.86백만명

 - 가 용 직 업 수 : 7.90백만개 (Number of jon openings)

 - 실 업 률 : 5.8%(실업자 - 456천명)

 - 인플레이션(CPI) : 2.3% (2011년)

 - 주택 평균 가격 : 241,000 유로

3. 정치 사항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베아트릭스 여왕 (Queen Beatrix) / 1980. 4. 30 즉위)
- 내각 : 내각은 11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상(1명), 부수상(1명) 및 장관, 무임소장관, 정무장관 등 총 18명의 장관으로 구성됨
- 의회제도 : 양원제로 구성(상원-Eerst Kamer, 하원-Tweede Kamer)
 - 상원 : 지방의회에서 선출/75명,
 - 하원 : 직접 선거로 선출/150명
- 주요 정당 : VVD(자민당), PvdA(노동당), CDA(기독교민주당), PVV(자유당) 등

4. 한국과의 관계

- 수교년도 : 1961. 4. 4.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 1968. 12. 24. : 주한 네덜란드 공관 설치 및 초대 대사 임명
 - 1969. 10월 :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 설치
- 한국교민 : 약 1,700명 (교민, 주재원, 유학생, 국제기구 근무자 등 포함)
- 한국수출액 / 한국수입액 : 3,651백만 유로 / 1,962백만 유로
 - EU내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의 교역 상대국
- 대한 투자 현황 : 미국, 일본에 이어 제 3위의 대한국 투자국임
 - 2011년 6월 기준 1,228건/ 204억불 투자

II

경제동향

1. 경제지표

- 네덜란드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정책,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 등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은 2012년 GDP 성장률을 $\Delta 0.50\%$, 2013년은 0.75% 의 저조한 회복세 예상(2012.9.18)
 - 이는 2012년 3월 전망치인 $\Delta 0.75\%$ 에서 회복한 것으로 상반기 수출 증가와 재정지출에 기인한 것임
 - 향후 2년간 수출 및 투자 회복 등 긍정요소보다는 국내 소비(재정 및 가계) 위축, 실업률 증가, 구매력 감소 등으로 부정적 경제전망 유지
- 주요 국제경제 기구 또한 2012년 네덜란드 경제전망에 대하여 당초 전망보다 하향 조정함
 - IMF: 1.5% (2011년 4월 전망치) $\rightarrow 1.345\%$ (2011년 9월 전망치)

- EU: 0.5%(2011년 10월 전망치) → △0.9%(2012년 2월 전망치)
- OECD: 1.9%(2011년 5월 전망치) → 0.3%(2011년 12월 전망치)

□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로 정부당국의 긴축재정 부담 증가

- 당초 2010년 Mark Rutte의 연정 내각 구성 당시, 2011~2015년까지 5년간 누적 180억 유로의 재정감축을 연정합의서에 포함
 - 재정수지 적자목표 : (2013년) GDP대비 2.7% → (2015년) 1.8%
- 2012~2013년 재정적자는 GDP의 3.7%~2.7%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인은 임금 인상억제에 따른 소득세 감소, 소비둔화 영향으로 부가세 감소, 주택가치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 세수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
 - 네덜란드의 수상과 연정참여정당의 대표들은 2012년 3월 5일부터 90~16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감축계획을 협의 중

□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물가상승률대비 낮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가계구매력 감소 영향으로 내수시장 침체 심화

- * 주택가격은 2008년 정점대비 2011년 말 10%이상 하락
- 가계구매력은 2011년 전년대비 △1.0%에서 2012년 △1.75%포인트로 0.75%포인트 하락 전망
- 이에 따른 내수소비는 2000년 GDP의 약 50%를 점유하였으나, 2011년의 경우 약 46%수준으로 하락

□ 모기지론에 대한 과도한 세금공제혜택으로 주택담보부채 크게 증가

- 네덜란드는 모기지론 이자의 100%를 소득에서 30년간 공제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금혜택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
 - * GDP 대비 가계부채: 81.8%(2000년)→132.7%(2010년)

〈 최근 5년 네덜란드 주요 경제지표 동향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망)
경제성장률	1.8	△3.5	1.7	1.2	△0.50
재정수지	0.5	△5.6	△5.1	△5.0	△3.7
수출증가율	7.6	△16.5	20.1	9.0	△3.25
수입증가율	9.5	△18.4	21.1	9.9	△3.25
실업률	3.8	4.8	5.4	5.4	5.5
물가상승률	2.5	1.2	1.3	2.3	2.25
유로/달러	1.47	1.39	1.33	1.39	1.29
금리동향	4.23	3.68	2.98	2.98	2.3
정부예산규모 (% of GDP)	46.2	51.4	51.2	49.8	50.0?
주택가격지수	112.2	108.4	106.3	103.8	*95.0

- * 출처: 네덜란드통계청(CBS), ECB : 유로/달러, 금리동향, CPB(2013년 전망)
- * 2012년 수출입 : 1~8월까지 누계
- * 2012. 9월 자료 : 인플레이션, 실업률, 주택가격지수
- * 주택가격 : 2005년=100으로한 가격 변동 지수

- CPB는 2013년 1.25%의 경제성장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 수 있으나, 2014년(1.5%)까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2008~2014년 동안 6년간의 경기침체는 1930년대 경제공황이후 처음으로 평가

2. 경제정책 (CPB- Macro Economic Outlook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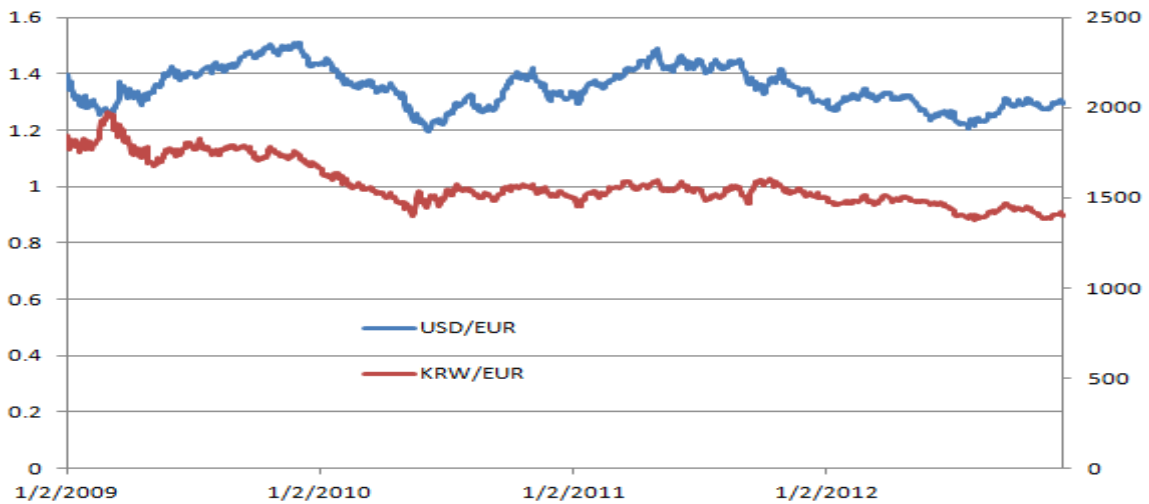
-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에 대하여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 의사 천명(2012. 9. 6.일 발표) 및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2012. 9. 12)으로 독일의 지원 계획 참여 가능성 열림
 - 4년 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 불안 해소 및 남유럽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퍼지고 있는 부동산 및 유로화 붕괴 우려 불식 목적
- 2012년 12월 ECB의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유럽 장기대출프로그램 (The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LTRO)’ 결정
 - 단기효과에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인 측면에 역효과 우려 상존
 -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승인을 전제로 자본시장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 및 IMF(국제통화기금)의 모니터링 권한 부여 검토
-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재정을 통한 지원은 민주주의 적합성(‘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유로존 가입국가의 적정예산(3% 이내의 재정적자 허용) 정책 및 통화정책의 독립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하고, 아울러 현재의 위기에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ECB의 적극적인 역할 이외의 다른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임
- 2011년 6월의 IMF 권고(Netherlands: Staff report Article IV Consultation), 2012년 OECD 권고 (OECD Economic Surveys Netherlands 2012)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단순긴축재정으로는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제한적임
 - 역으로 ‘GDP 감소 → 실업률 증가 → 실업급여 증가 →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재정 감축을 권고하고 있음
- 네덜란드정부 역시 긴축재정을 통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현 상황에서 일정기간의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 재정 수입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한-네간 경제통계비교 (2011년 기준) 〉

구분	한국	네덜란드	비고
수출	5,565억불 (세계 7위)	6,601억불 (세계 5위)	한국의 약 1.2배
수입	5,244억불 (세계 9위)	5,975억불 (세계 7위)	한국의 약 1.1배
무역수지	321억불	626억불	한국의 약 2.0배
무역의존도	92.9%	146.5%	GDP대비
재정적자	0.8%	5.0%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22.7%	65.6%	GDP대비
실업률	3.4%	4.5%	
국가신용등급	A	AAA	S&P 기준
국채이자율	3.81%	2.32	10년만기 국채기준

출처 : 네덜란드 통계청(인구, 재정적자, 국가채무비율, 실업률), IMF(총 GDP, 1인당 GDP), WTA(수출, 수입), Standard&Poors(국가신용등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De Nederlandsche Bank(국채이자율)

3. 환율 동향



출처 :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

- 지난 4년간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은 많이 하락하였으나 달러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
 - 1유로당 달러 : (09.1.2) 1.3945 → (11.1.4) 1.3305 → (12.12.7) 1.2941
 - 1유로당 원화 : (09.1.2) 1,843.1 → (11.1.4) 1,496.2 → (12.12.7) 1,400.3

- 그러나 교역의 상당부분은 EU권역 내에서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교역 변화는 크지 않은 편임
 - 네덜란드에서 농산물을 EU로 수출하는 비중 : 81.4%
 - 네덜란드에서 농산물을 EU에서 수입하는 비중 : 60.8%
- 최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내년에도 유로존 경제가 취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로화는 하락하고 달리는 강세를 나타냄
 - 유로권 경제는 저조한 경제활동이 내년까지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에나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
- ECB는 금년과 내년의 유로존 경제성장을 전망치도 하향조정
 - 금년 경제성장을 전망의 중간치를 -0.4%에서 -0.5%로 하향조정
 - 내년 성장률도 +0.5%에서 -0.3%로 대폭 하향함

III 주재국 농업정책 동향

1. 주재국 농업현황

EU는 1958년 이래 공동농업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목표는

- 식품을 적정시장가격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
- 농업인에게 합리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
- 이 정책은 사회와 세계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수정

현재의 공동농업정책은 2013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이 전개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LTO는 2013년 이후 유럽의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을 제안
 (LTO Netherlands View on European Policy after 2013)

가. 내외부 환경변화

- 세계 인구는 현재 60억명에서 2025년에는 8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과 농산물 수요증가로 이어짐
 - 유럽인들은 충분한 양의 건강하고 다양한 식품을 필요로 함
 - 또한 경관, 생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지속적인 생산방식을 요구함
- 또한 유럽인들의 지구의 기후변화 우려로 그린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
 -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제3국에서 수입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유럽인들의 의존도를 낮춰 기후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
 - 또 다른 변화는 농업에 대한 경영과 농촌 삶의 관심 증대

- 한편, 세계 농산물 시장은 점차 장벽이 없어지면서 **자유화**
 - 이에 따라 다소 느슨한 제3국 농산물의 유럽시장 접근이 용이해짐
- 이러한 동향이 **농업계의 변화를 촉진**
 - 원가절감으로 농가의 규모화 및 전문화가 촉진됨
 - 시장정보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됨
- 어떤 농가는 규모화 대신 **다양화를 추구**
 - 여가, 관광시설 제공, 지속적 에너지 생산 등

나. 기본 방향 및 정책 제안

- 주재국 (유럽)의 농업정책은 다음 4가지 목표에 중점
 - 충분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식품
 - 활기찬 농촌 사회
 - 농업분야의 지속적 생산
 - 경쟁력을 가진 농업과 원예
-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아래사항이 요구됨
 - 농업에 대한 공공적인 평가
 - 경제적으로 강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
- 유럽의 정책은 시장 및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이상적인 유럽의 농업 및 농촌정책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아래 사항을 통해 농업 및 원예 경쟁력을 향상

- 농업의 지속적인 생산 시스템
- 전문마케팅 실시와 사회적 책임 이행
- 네덜란드 농업이 해외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면 혁신 필요
- 유럽은 아래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생산, 기술, 시장에서의 혁신과 연구
 - 연구, 공공관계, 교육의 형태로 지식을 공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
 -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방법 등 사회적 추세를 따르도록 장려하는 정책
 - 농장 인수를 쉽게 하는 것
 - 농업 인프라에 투자하여 구조적 개선 추진
 -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 물류증진을 포함한 농업생산 구조개선
 - 동식물 질병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시장조건의 부정적 결과를 제한하는 것
 - 건강한 유럽시장과 소비자 보호

② 경관관리에 대한 보상

- 농업인은 농촌을 관리하고 가꾸는 주체
- **농업활동은** 국민들이 여가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경관을 만들어 줌
- 동시에 농업은 지역경제를 대표하고 농촌 삶에 필수불가결함
- 그러나 시장은 이런 분야를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음
- ha당 보조금의 형태로 보상이 필요하고 이는 공평함

③ 그린, 블루 서비스에 대한 보상

- 농업인들은 정부와 자투리 땅을 관리하거나 일시적인 물 보관에 대해 약정을 맺을 수 있음 (이러한 것들을 그린 또는 블루 서비스라고 함)
-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재원으로 보상받아야 함

④ 특별한 지역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

- 유럽에는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꺼리는 악조건지역이 많음
- 사회가 이러한 지역의 농업활동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면 정부는 이에 재정 보조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중요성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상도 지역별로 달리 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 농업 지표 (2011년 기준)

구 분	네덜란드	한국
전체 인구 (천명, nl-12)	16,726	49,779
농가 수 (호)	70,392	1,163,000
국토면적 (Km ² , nl-08)	41,543 (지표면 33,719)	100,150
인구밀도 (Km ² 당)	496 (지표면 대비)	497
농지면적 (Km ² , nl-08)	22,758	16,980
국토대비 농지점유율 (%)	67.5% (지표면 대비)	17.0%
농가당 경지면적 (ha)	31.4	1.46
농지가격 (원/m ² , kr-08)	7,337	26,881
1인당 국민소득 (\$)	49,730	20,870
농가소득 (천원)	75,530	30,148
전체 무역수지 (억\$)	561	308
농식품 무역수지 (억\$)	341	△255
모든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25	15
파프리카 생산량 (톤/10a)	26	10
유리온실 면적 (ha)	10,250	274

출처 : Land- en tuinbouwcijfers 2012 (LEI, CBS)

라. 농가 소득 변화

단위: 천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생산	376	395	382	459	458
비용+감가상각비	324	360	367	401	430
특별 이익/손실	△1.2	0.9	△0.8	△0.2	-
농업 소득	51.1	35.9	14.5	57.8	29.0
기타농업소득	19.7	12.5	23.2	21.1	21.0
농가소득 총액	70.8	48.4	37.7	79.0	49.0
세금	8.9	7.2	4.0	3.7	4.0
가계소비	48.3	48.3	47.4	48.7	48.0
저축액	13.6	△7.0	△13.7	26.5	△3.0

2. 주재국 농식품 무역동향

가. 농식품 수출입동향

단위: 십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43.5	50.1	60.5	66.5	72.2
수입	25.1	28.3	37.5	41.1	47.7
무역수지	18.4	21.8	23.0	25.4	24.5

나.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230	252	190	243	386
수입	14	65	65	82	95
무역수지	138.0	132.2	106.5	158.6	217.4

출처 : KATI

3. 주재국 관세 현황

- 관세규정, 특히 관세율은 상품의 세관관세번호에 따라 좌우되는데,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품목분류에 의하면 코드 0203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 혹은 냉동 돼지고기)에 속하며, 더 구체적인 11자리 코드번호는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는 한

불가능하고 현재 적용되는 세율 (“정하는 기준”)이 포함된 품목분류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전자 관세에서 찾을 수 있음

<http://www.belastingdienst.nl/> : 관세 일반 사항

<http://gebruikstarief.douane.nl/> : 품목 관세율 (only in Dutch)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관세 및 부가세)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① 수입 관세 평가액

- 1) 판매자/위탁자 즉,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가격
- + 2) 유럽 공동체 국경까지의 비용 (특히 운송비 및 보험료)
- = 3) 관세평가액 (관세 등급을 위한 기준)
- = 3-1)* 농식품의 경우 일부는 중량 단위로 관세율 적용
- x 4) 관세율(네덜란드/EU 수입관세율 -<http://gebruikstarief.douane.nl/>)
- = 5) 수입관세 평가액

② 수입 부가세(VAT) 평가액

- 1) 수입관세 평가시 품목 평가액
- + 2) 가) 에서 산출된 수입관세 평가액
- + 3) 첫 번째의 국내 목적지 (네덜란드)까지의 운송비
- = 4) 수입부가가치세 평가액 (수입부가가치세 등급을 위한 기준)
- x 5) 수입부가가치세율 (수입부가가치세율은 수입관세율 웹사이트 참조)
- x 5-1)* 농식품의 경우 대부분 6%(주류 제외)의 일괄 부가가치세율 적용
- = 6) 수입부가가치세 평가액

농식품을 수입할 경우는 EU에서 정한 ‘동식물 위생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 준수 필요

주요 농식품 수입 관세율

구분(HS code)	수입 관세	수입 부가세
냉동갈비(02021000)	8.50+117.866 eur/100kg	6%
황다랑어(03034212)	-	0% 혹은 6%
천연꿀(04090000)	17.30%	6%
송이버섯(0709591000)	-	6%
멥쌀(1006302110)	- (단, 원산지 미국: 175EORU/1000KG)	6%
인스턴트커피(21011100)	-	6%
맥주(22030000)	-	21%

출처 : <http://gebruikstarief.douane.nl/>

4. 주재국 동식물 검역제도

가. 검역제도

- 네덜란드의 검역제도는 기본적으로 EU 검역제도(EU Sanitary and Phytosanitary)를 따르고 있음
- EU 검역제도를 수행하는 네덜란드 기관은 ‘경제농업혁신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산하의 독립기구인 ‘Netherlands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이며 동 기관은 3개의 국(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 Agriculture and Nature Division
 - 검역증 발급, 축산 비료 관리, 유럽 보조금 구상, 규정 준수 확인
 - Veterinary and Import Division
 - 동물 건강 및 복지, 동물 먹이, 수출입 검역
 - Consumer and Safety Division
 - 동물 실험, 동물 부산물, 음식 제조 관리, 주류, 담배, 음료 등

나. 관련 법규

- 일반 식품 관련 법(General Food Law)
 - Regulation 178/2002
- 식품 위생 법(Food hygiene)
 - Regulation no 582/2004 for all food and feed
 - Regulation no 853/2004 for animal products
- 공무상의 조사 및 규제(Official Inspection and Controls)
 - Regulation no 882/2004
 - * 적정 인력, 자원, 교육 구비
 - * 신뢰할 수 있는 실험실 보유 및 국제기준 준수
 - * 다년 계획에 따른 위험 통제
 - * 공식 검사관 파견 가능
 - * 사전 검사 실시 가능

다. 수입 가능 식품군

- 동물 관련 식품(Food of animal origin)
 - 기초 생산물 : 고기, 생선 등
 - 가공 생산품 : 햄, 훈제 연어 등
- 비동물 관련 식품(Food of non-animal origin)
 - 과일, 야채, 시리얼, 줄기식품류 등

- 음료
- 기타 : 식탁용 소금 등

라. EU로의 식품 수출 기본 원칙(준수 사항)

- 동물 관련 식품(Food of animal origin)
 - 적합한 국가 및 사업자로 등록 등록되고 사전 검사 실시 요구
 - 규정을 준수에 대한 승인 혹은 그와 유사한 증빙
- 비동물 관련 식품(Food of non-animal origin)
 - 국가 등록은 필수적이지 않으나 수입업자가 신뢰할 수준이어야 함
- 관련자/기관/국가간 의무 공유 원칙
 - 식품 사업자(FBO-Food Business operators), 수입업자, 수출국과 EU내 검역 시행 국가 및 기관 모두가 식품의 안전공급에 대한 의무를 공유함

마. 수입 절차

수입에 적용되는 2가지 절차

- 사전 행정 조치 요청
 - 수출하고자 하는 EU국에 사전 허가 신청
 - 식품에 따라 다른 절차 적용 가능 (주로 동물성 식품과 비동물성 식품에 따라 결정)
- 수입 절차 확인
 -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른 절차 적용

사전 행정 조치 세부 내역

- 식품사업자(FBO)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혹은 유사한 증빙
- (수출 검역) 당국도 EU 당국과 같은 시스템(검사, 실험실 등) 보유
- (수출) 국가 및 해당 기관의 수출 신청
- 검역증
- 잔류 검사 프로그램의 조사항목/규정에 대한 답변
- (수출 지역) 식품검역공무원(FVO)의 현장 조사 및 적합할 경우 승인 조치
- 식품사업자는 해당 국가 관련 기관(식약청)에 등록해야 함

수입 절차 - 동물성 생산품

- 공공 건강 요건들(식품 위생)
 - 식품안전기준, 일반위생규정, HACCP 규정 준수, 생산시 적용되는 요건들
- 동물 건강 요건들
 - 수입업자는 EU법에 명시된 '건강 증명서' 및 필요시 규정된 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

- 아래의 위험성에 대한 기타 건강 확인 요건들
 - 오염/잔존물, 첨가물, 호르몬, 방사성물질 및 GMO 등
- (수출국의) 검역당국은 수출업자에게 해당 증명서를 제공
- EU에서 승인한 각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에 ‘일반가축입국서류(CVED-Common Veterinary Entry Document)’ 사전 통지
- BIP(국경검사소) 확인 : 신원 및 서류 확인, 육안 검사 실시 등

□ 수입 절차 - 비동물성 생산품

- 공공 건강 요건들
 - 식품안전기준, 일반위생규정, HACCP 규정 준수, 생산시 적용되는 요건들
- 식물 건강 요건들
 - EU 식품위생 요건에 부합. 일부 식물은 ‘식품위생증명서’ 첨부
- 아래의 위험성에 대한 기타 건강 확인 요건들
 - 농약 오염/잔존물, 첨가물, 신소재 식품 등
- 지정된 곳으로 반입(Entry at DPE-Designated Points of Entry)
- 승인 국가 목록을 요구하지 않음
- 도착시 사전 통지 의무 없음
- 일부 식물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서류 및 육안 확인 실시
- 고위험에 등록된 생산품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 실시 가능

바. 사적 혹은 자발적 기준들(Private or voluntary Standards)

- EU 검역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주로, 과일류, 야채류, 커피, 바나나, 오일에서 발생함
 - 품질, 환경, 사회적 측면 고려
 - 소매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자 및 이익단체 등
 - 일반 식품 규정에 대한 책임 측면이 더 강화될 수 있음
- 규제 관점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사항

사. 결론

-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 3세계 국가는 적절한 검역체계를 유지해야 함
- 동물성 생산물-고위험 생산물-의 경우 (수출) 해당 국가 및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 비동물성, 혹은 저위험 생산품은 보다 단순한 조건이 적용되나 위험이 감지되면 보다 엄격한 조건이 적용됨
 - 모든 생산품은 각자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음

공동농업정책 성립 이후 네덜란드 주요 농업정책

1. 개관

- EU 정책 이외에는 특별한 가격, 소득, 시장정책이 없으며, 이와는 거리가 먼 네덜란드만의 농업 농촌정책 시행
 - OVO(농업연구, 교육, 지도)의 체계적 시스템
 - 펀드 및 재정적 지원, 토지통합
- '83년 이전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과잉을 시장확대로 해결
 -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규모 확대 등이 강조
 -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농업인에게 성장기반 제공
 - 전문화 및 규모화
- '84년 이후 - 농산물 생산촉진에서 부작용 억제로 전환
(from promoting production to containing the damage)
 - 생산지원에서 환경·경관보전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전이함
 - 농업연구, 지도, 교육이 무상의 공공재에서 사유화가 이뤄지는 지식시장으로 이동하며 민영화됨
 - 지원방식도 계획에 입각한 사전투자보다 사후결과물을 따지는 결과중심으로 이동
(from funding input to funding output)

2. 연구, 지도, 교육 (OVO)

- 연구, 지도, 교육체제 간 긴밀한 협력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필수요소
 - '90년대 민영화 전까지 정부주도하에서 OVO시스템이 새로운 건물, 기계, 기술 등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 수행
- 현재 연구부문은 민영화되었지만 특정연구과제는 재정적으로 지원
 - 지도 서비스 부문도 완전히 민영화
 - 학교에서 하는 농업교육은 정부가 지원

3. 자금 지원

- 농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 '80, 협동조합은행(Robobank)
 - 1886년 설립한 Raiffeisenbank, Boerenleenbank를 100년 후 통합
- 농업대부 보증기금(Agricultural Loan Guarantee Fund) 설립('51)
 - 생산성 향상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신용 제공
 - '99년까지 48년간 62천건 25억유로 이상 대부

- 농업발전 재정비기금(Agricultural development & Reorganization Fund) 설립 ('63)
 - 기금설립목적은 농업의 발전과 재정비
- 정부의 자금지원에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음
 - 경영이양직불사업 - 농가가 더 많은 토지를 빌리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 새 기술과 장비구입, 건물건설을 촉진하는 농장의 현대화 및 혁신사업 - 노후화된 유리온실 교체, 신규낙농건물, 집약적인 축산시설 등
 - 이자보조사업 -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
- 산업투자법인(WIR)이 제정되어 투자를 장려
 - 투자를 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
 - 투자 장려를 위한 지원수준 - 투자금액의 12%(기본)에서 50%(특정지역)
- 가족 간 농업회사를 이전할 경우 시장가 수준보다 낮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
 - 농업자본축적 기회 확대, 농장승계를 통해 후계자 확보 유도
- 소작인이 빌린 토지를 토지가의 60%로 구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
 - 장기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률

4. 토지통합과 생산단지 정비

- 토지 통합을 위해 시기별로 법령을 제정, 상황에 맞게 추진
 - '16년 토지합병계획 - 농업인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실시
 - '24년 토지통합법 - 일정 다수가 합의하면 사업추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장치, 대규모 사업 추진에는 한계
 - '54년 새로운 법 - 정비지역 농지의 최대 5%를 자연보호, 유원지, 마을재건축, 경관증진 등 공익용도로 사용토록 조치
 - '85년 토지사용개발법 - 주체가 소유자와 토지사용자였으나 지역정부도 권리행사
- 집약 축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은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지역 재정비법”에 따라 축산농가 재배치 사업 실시
 - 유리온실 윈예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린포트(green port) 개발사업도 실시 - 노후화되고 흩어져 있던 유리온실을 5개 그린포트지역으로 집중화

네덜란드의 정책제안 (Dutch outlook 2020)

- '08년 네덜란드 정부는 EU에 2020년까지 중장기 공동농업정책 및 개혁방향을 제안 (Dutch outlook 2020)
 - 이 제안은 사회경제협의회(SER)의 권고문 “농업의 가치”(Value of Agriculture)에 기초한 것

〈“농업의 가치”에서 다루는 내용〉

- 농업은 식량 이외에 어떤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모두 제공될 수 있는지,
- 다 제공될 수 없다면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서 보호해야 하는 농업의 가치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기술함

□ 네덜란드 정부가 보는 “농업을 둘러싼 향후 여건변화와 추세”

- ①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
 - UN 세계인구 '25년 78억명, '50년 90억명
- ②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소비자 관심 증가
 - 동물 복지규정 및 규제도 동일한 경쟁조건 필요
- ③ 기후변화와 식량이 에너지 공급 원료로 전환
 - 식량 부족과 가격급등 등 부작용
- ④ 식량 생산 확대로 침식, 염류화 등 환경과 토양에 부정적인 영향 직면
 - 환경문제에 전 세계 차원에서 정책 강화 필요
- ⑤ 세계화
 - 다른 시장에 접근을 보장하는 방법, 속도, 조건
 - 동일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
- ⑥ 지역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농촌을 매력적이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

□ 이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농업의 가치별 정책 수단

가치	시장 작동	정책 수단
1 농업생산과 고용창출	- Yes - 시장에서 충족	▶ EU차원 시장규제 ▶ 지식과 혁신 정책 ▶ 훈련과 고용 정책
2 식량 안보	- Yes	▶ 농업용 우량농지 보전 ▶ 비상시 시장지지조치 유지
3 식품안전과 인간 및 동물의 건강	- Yes - 국제기준작동	▶ 시장규제 ▶ 건강 및 안전규정을 자가 고용 농업인에게 적용
4 동물 복지	- No - 국제기준미비	▶ 더 엄격한 기준개발 (EU/WTO) ▶ 혁신 촉진
5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 No	▶ 시장 규제 ▶ 초과성과 제공시에만 지불
6 자연과 생물 다양성 보전	- No	▶ 시장 규제 ▶ 초과 공공서비스에 지불
7 인간이 만든 경관과 여가복적의 자연환경 보존	- No	▶ 시장 규제 ▶ 초과 공공서비스에 지불
8 블루 서비스 (물 관리)	- No	▶ 초과 공공서비스에 지불
9 농촌의 활력 증진	- Yes	▶ 경제적 다양성(산업배치) 증진, ▶ 농촌정책

네덜란드 농업이 주는 메시지

1. 네덜란드 농정의 시사점

- 시장 개입보다는 연구, 지도, 교육에 정책 집중
 - 성과 중심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
- 토지통합과 생산단지 정비, 원예 및 축산 시설현대화 등 규모화
 - 지식과 혁신을 통한 전문화
- 자금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신용 제공 활성화
 - 성과 중심으로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 여건 조성
- 계획에 입각한 지원보다 산출물 내용을 따지는 결과 중심의 지원
 -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의 최적 분배

2. EU 농정의 시사점

- 생산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직불금은 지속적 감축, 지급기준 단일화
 - Coupled를 De-coupled로, 지역별, 농가별 차이를 축소
 - 직불금 상한선을 설정하여 균형 지급토록 유도
- 다양한 농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직불금을 연계
 - 친환경 보조, 자연보호지역 보조, 젊은 농가 보조 등과 연계
 - 동물 복지에 대한 규정 설정으로 향후 무역거래의 규제 조건 예상
- 직불금에서 감축된 재원을 '농촌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고 농가단체를 통해 농촌지역개발 추진
 - 보조금 지급 시비를 회피함과 동시에 농가조직화 유도
 - 농가단체가 주도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이익을 대변
- 향후 식량안보와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대비
 - 에너지 원료 사용 등 향후 식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 충족 준비

V

홍콩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일반사항

-
- 국 명 :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 위 치 : 중국, 광둥성 동남해안, 주강 입구 동쪽

 - 면 적 : 1,104 km²(서울 1.8배)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으로 구분

 - 기 후 : 아열대 몬순형 기후

 - 수 도 : 홍콩은 도시국가로 특정 수도가 없음

 - 인 구 : 715만명 (2012년 6월말)

 - 민 족 : 한족(95% 이상)

 - 언 어 : 중국어(공용어: 광둥어, 상용어: 보통어, 통용어: 영어)

 - 종 교 : 도교, 불교(34%), 기독교(4%), 천주교(3%), 이슬람교(1%), 소수 종교(1%), 무교(57%)

 - 건 국 일 : 1997년 7월 1일(홍콩특별행정구 성립일)

2. 경제현황

-
- GDP : US\$ 2,428억 (2011년)

 - 실질GDP성장률 : 5% (2011년)

 - GDP 1인당 : US\$ 33,300(2011년)

 - 실업률 : 3.2% (2012년 6월- 2012년 8월)

 - 물가상승률 : 3.7% (2012년 8월)

 - 화폐단위 : Hong Kong Dollar (HK\$)

 - 환율 : US\$1= HK\$7.75(2012년 10월)

 - 외환보유액 : US\$ 3,012억 (2012년 9월)

3. 정치현황

정부형태	행정수반 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국가원수	행정장관 : 령춘잉(Leung Chun Ying) 2012.7.1~2017.6.30
정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국양제(一國兩制)’하 고도자치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입법 및 사법권(외교·국방 제외) ■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반(行政長官, Chief Executive) : 홍콩 최고책임자, 임기 5년, 1차연임 가능 - 現 행정수반: Leung Chun-ying(梁振英) '12.7.1 제4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 입법부(立法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수 70명, 임기 4년('12.10.1-'16.9.30) - 입법회 의장 : Jasper Tsang(曾鈺成) ■ 사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원·고등법원·중심법원의 3심제

4. 한국과의 관계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 5월 영사관 개설 - '49.11월 총영사관 개설 ('12.9월 제25대 조용천 총영사 부임) ※ 북한은 2000.2월 총영사관 개설 ■ 對홍콩 수출 및 수입('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310억불, 수입 : 23억불 ※ 한국의 제4위 수출시장, 제2위 무역 흑자지역 ■ 對홍콩투자('11년말 누계) : 124억불 ■ 홍콩의 對韓투자('11년말 누계) : 47억불 ■ 인적교류 현황('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방문 한국인: 102만명 - 한국방문 홍콩인: 28만명 ■ 진출업체('12.6말) : 1,535개(법인수) ■ 재외동포 현황('11년말) : 13,60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자(7년이상) : 4,108명 - 일반거주자(6개월이상 거주) : 8,904명 - 일시체류자(학생) : 595명
------	--

체결협정	항공협정('96), 투자보호협정가서명('96), 주홍콩특별행정구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협정각서교환('97), 투자보장협정('97), 형사사법공조협정서명('98), 형사 사법 공조협정('00), 문화협력양해각서('04), 범죄인 인도협정('07)
對홍 교역규모	2011년 무역실적 - 수출: 192억 달러 (전년 대비12.2% 증가) - 수입: 78억 달러 (전년 대비: 14.2 % 증가) - 무역수지: 약 113억 달러 2012년 1-8월 무역실적 - 수출: 124억 달러 - 수입: 65억 달러 - 무역수지: 약 59억 달러
주요 교역품	- 수출: 반도체, 석유, 통신장비, 사무용기기 등 - 수입: 반도체, 통신장비, 여행용품, 전자회로용 전자기기, 사무기기, 신발 등
투자교류 (신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 홍콩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305건, US\$ 17억 3093만 - 2010년: 327건, US\$ 15억 870만 - 2011년: 287건 US\$ 15억 4188만 - 2012년 1-6월: 171 건, US\$ 10억 5004만 ■ 홍콩의 對 한국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93건, US\$ 7억 7348만 - 2010년: 77건, US\$ 9190 만 - 2011년: 112건, US\$ 5억 7240만

II 경제동향

1.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1	2012 추정
인구(백만)	7.02	7.07	7.15
GDP(십억US\$)	223.3	242.8	260.4
1인당 GDP(US\$)	31,800	34,300	36,017
실질 GDP성장률(%)	7.0	5.0	1.2
물가상승률(% CPI)	2.4	5.3	3.8
실업률(%)	4.4	3.4	3.3
수출(십억 US\$)	388.6	427.9	283
수입(십억 US\$)	431.4	482.6	321
소매시장 성장률(%)	18.3	24.9	7.2
관광객 증가율(%)	21.8	16.4	15.5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홍콩 통계국 (2012년 10월 기준)

가. 경제성장률

- 홍콩 경제성장률은 2010년 7%에 이어 2011년에도 5%로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국제경기 악화로 인해 2분기부터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음. 홍콩정부는 2012년 성장률을 1-3%로 예상하고 있음

나. 실업률

- 2010년 2분기(4.6%) 다소 상승했던 실업률은 꾸준한 경기회복과 함께 완화되어 2010년 실업률은 4.4%를 기록했고, 2011년 경제 활황으로 2011년 실업률은 3.4%로 감소하였음. 2012년 5월에서 7월간 집계된 실업률은 3.2%임

다. 물가

-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 역시 상승해 2009년 0.5%이던 물가상승률은 2010년, 2011년 각각 2.4%, 5.3%를 기록하였음. 2012년 8월 물가상승률은 3.7%임

라. 환율 (미달러와의 페그제)

- 홍콩달러는 미화 1달러 대비 7.75~7.85홍콩달러 수준(Convertible Zone)으로 고정되어 있음. 최근 미 달러 약화와 함께 홍콩달러가 동시에 약화된다는 우려가 표면화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5년 7월 중국인민은행이 미 달러와의 페그(peg)를 폐지한 후 수년간 20% 이상 평가 절상되었고, 싱가포르달러는 30% 가량 절상된 반면 홍콩달러는 고정 환율로 인해 결과적으로 2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중국 침체로 위안화 추가 평가절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홍콩입장에서는 중국제품 수입에 있어 달러이익의 폭이 작아졌음
 - 2012년 10월 미화 1달러 대비 홍콩달러 환율은 1:7.75임

마. 무역동향

- 2009, 2010년에 걸쳐 활기를 보인 홍콩의 무역은 글로벌경기침체와 함께 저조해지고 있음. 2011년 수출, 수입액은 각각 전년대비 10.1%, 11.9%의 증가율을 보인 후 (총 무역액 11.0%) 2012년 1~8월에는 전년대비 수출 +0.6%, 수입 +0.9%, 총 무역액 +0.4%의 소폭 성장을 보였음

바. 주강 삼각주 경제협력

- 중국대륙-홍콩 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약인 CEPA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점차 서비스영역(법률, 건설, IT, 전시, 시청각기구, 관광, 항공운수, 육로운수, 개인상점 등)으로 혜택을 확장하여 중-홍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2. 경제정책

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 홍콩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조건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홍콩정부의 노력으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2012년까지 18년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
 - 세계 1위의 자유경제권(미국 CATO연구소),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World Economic Forum,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EIU)으로도 선정되었음
- 홍콩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무차별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세 및 부지제공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모든 제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함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 법인세를 17.5%에서 16.5%로 인하하였으며, 개인소득세도 1% 인하하여 15%로 책정하였음. 이어 와인세를 철폐하고 30도 이하의 알코올 관세율 0% 법규를 제정하였음. 홍콩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환경 업그레이드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필수투자진출 지역으로서 인식되고 있음

나. 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 : 홍콩-광동성 비즈니스 기회 확대

- 홍콩-중국 간 경제협력협약(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과 중국 남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경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다국적기업, 혹은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기업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도 견지해 나갈 것임
- **홍콩-마카오-광동성을 특별협력구로 연결한 초대형 통합경제구역**의 조성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으며, 2008년 7월 홍콩-마카오-주하이 대교건설의 분담금과 예산을 확정하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 착공하였음
 - 광동성의 ‘하드웨어(값싼 노동력과 제조업, 풍부한 개발지)’와 홍콩의 ‘소프트웨어(선진 노하우, 풍부한 자금, 고급 전문인력)’가 조화를 이루어 세계최대의 메갈로폴리스로 거듭날 날도 멀지 않아 보임. 한국기업들에게는 홍콩-광동성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콩을 통한 중국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3. 주요 산업동향

- 홍콩의 초기기반산업은 제조업이었으며, 중개무역항을 배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음. 초기 홍콩의 주요산업을 이루던 선박, 방직 제조업 등은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업이 대부분임

〈 경제 활동별 GDP 구성변화 〉

단위: 백만 홍콩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농/어업/광업/채석	1,015/0.1	925/0.1	1,090/0.1	948/0.1
제조업	31,729/2.0	30,993/1.9	28,227/1.8	29,965/1.8
전기/가스/수도	40,685/2.6	39,585/2.5	34,961/2.3	34,466/2.0
건설	40,611/2.6	48,357/3.0	50,146/3.2	56,277/3.3
서비스	1,466,109/92.8	1,473,037/92.5	1,436,427/92.6	1,581,310/92.9
도소매/무역	374,614/23.7	393,913/24.7	365,880/23.6	408,361/24.0
음식점/숙박업	48,827/3.1	53,596/3.4	48,787/3.1	56,409/3.3
운송/물류	119,728/7.6	98,245/6.2	99,048/6.4	137,769/8.1
정보/통신	50,873/3.2	48,258/3.0	46,808/3.0	54,318/3.2
금융/보험	304,764/19.3	255,586/16.0	235,581/15.2	262,021/15.4
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	146,562/9.3	165,594/10.4	173,583/11.2	187,850/11.0
사회/개인서비스	254,391/16.1	269,601/16.9	279,453/18.0	285,630/16.8
부지소유권	166,352/10.5	188,244/11.8	187,286/12.1	188,952/11.1

자료 : 홍콩통계청(2012. 9 기준)

〈 경제활동별 GDP 년 증감률 〉

단위: %

경제활동	2010	2011	2011				20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농어업, 광산, 채석	3.9	-7.6	-13.9	-3.9	-3.6	-9.6	0.3
제조	3.5	0.7	3.5	2	0.2	-2.2	-1.6
전기, 가스, 수도	-0.2	1.2	-2.9	3.2	1.3	2.8	4.4
건설	15.4	7.5	23.4	-0.3	2.1	6.4	11.3
서비스	7	4.8	7.4	5.2	3.9	2.9	1.7
-도소매, 무역	16.7	8	15.4	7.1	4.9	6.3	0
-식당, 숙박	9.5	1.1	0.9	0.9	2.3	0.5	-0.7
-운송, 창고, 교통	6.1	6.5	9.2	4.5	6	6.3	5.4
-정보, 통신	1.5	1.6	2	1.5	0.8	2	-0.2
-금융, 보험	7.3	7.8	12.2	12.9	8.5	-0.7	3.9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2.3	1.4	2.3	1.3	0.9	1	2.6
-사회, 개인서비스	1.8	2.5	2.3	2.4	2.5	2.5	2.1
-토지소유	0.7	0.9	0.4	0.9	1.1	1.1	0

자료 : 홍콩통계청 (2012. 9월 기준)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입 현황

- 2010년 홍콩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22.8%, 2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2011년 수출입 성장률은 10%대로 다소 낮은 폭의 성장을 보였음
- 2012년 1-6월 수출입 성장률은 더욱 낮아져 1%대 전으로 나타났음
 - 주요 교역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며 중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 홍콩 주요 교역국 〉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0	2011	2012년 1-8월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체	819,982	910,494	604,007	0.4
중국	401,022	441,559	299,818	2.8
미국	65,545	69,505	45,229	0.4
일본	55,873	58,174	37,994	-0.2
대만	37,611	41,819	26,915	-2.8
싱가포르	36,973	39,846	24,992	-5.6
★한국	24,023	27,082	17,333	-5
인도	18,749	23,092	13,758	-12.8
독일	17,730	19,866	11,198	-16.3
말레이시아	14,165	15,079	9,825	-3.4
태국	14,209	15,264	9,563	-12.3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상품 교역규모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출	388.6	22.8	427.8	10.1	283	-
자체수출	9	20.4	8.4	-5.5	4.9	-16
재수출	379.7	22.8	419.4	10.5	278	0.03
수입	431.4	25	482.6	11.9	321	0.09
총무역액	820	23.9	910.5	11	604	0.4
무역수지	-42.8	-	-54.8	-	-38	-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서비스 교역규모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85.9	-6.8	105.7	23.1	120.6	14
수입	43.7	-7.1	50.8	16.3	55.7	9.6
총교역액	129.6	-6.9	156.5	20.8	176.3	12.6
무역수지	42.2	-	54.9	-	64.9	-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나. 주요 수출품목

- 홍콩의 주요수출품은 전자제품, 통신장비, 사무실기기, 전기장치, 진주/귀금속/보석, 컴퓨터, 의류, 완구 등임.

〈 홍콩 주요 수출품 〉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10	2011	2012 (1월-7월)	
			금액	증감률
전체	388,592	427,853	282,911	-0.2
통신장비	60,202	67,137	48,177	8.8
전자제품	63,719	68,164	44,347	-1
사무실기기	29,985	32,419	22,802	8.3
전기장치	28,948	31,426	20,545	-2.5
진주/귀금속	17,891	23,367	14,861	8.5
컴퓨터	12,684	16,220	12,220	13.5
시계	7,386	8,831	6,161	11.6
의류	10,408	10,462	6,163	-8.4
완구, 게임	11,338	11,711	5,947	-15.7
여행용품	5,349	6,095	4,028	0.1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주요 수출국 〉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0	2011	2012(1-8)	
			금액	증감률
전체	388,592	427,853	282,912	-0.2
중국	204,900	224,020	151,691	1.8
미국	42,576	42,407	27,807	1.3
일본	16,365	17,328	11,837	6.2
인도	9,545	11,989	6,730	-18.4
대만	8,795	10,932	6,602	-9.1
독일	10,338	11,444	6,309	-16.7
★대한민국	6,881	7,856	5,030	-5
싱가포르	6,536	7,211	4,707	-3.3
영국	7,792	7,524	4,505	-10.9
베트남	4,306	5,914	4,207	16.7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다. 주요 수입품

- 홍콩의 주요수입품은 전자제품, 통신장비, 사무실기기, 전기장치, 진주/귀금속/보석, 컴퓨터, 석유, 완구 등임. 2012년 1-7월 기간 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컴퓨터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짐

〈 홍콩 주요 수입품 〉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	2011	2012 (1월-8월)	
			금액	증감률
전체	431,390	482,641	321,095	+0.9
전자제품	80,740	84,163	52,497	-6.8
통신장비	53,430	62,819	46,922	+16.9
사무실기기	27,909	27,989	19,135	+1.9
전기장치	28,013	31,071	20,665	+0.6
진주/귀금속	22,190	31,363	21,013	+9.1
컴퓨터	13,467	17,729	14,144	+21.4
석유	12,698	15,808	9,993	-4.2
시계	7,399	9,684	6,725	+12.1
완구, 게임	9,846	9,967	4,829	-21.2
의류	6,869	6,854	4,092	-7.5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 주요 수입국 〉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0	2011	2012(1-8)	
			금액	증감률
전체	431,390	482,641	321,095	0.9
중국	196,122	217,539	148,127	3.9
일본	39,508	40,846	26,158	-2.9
싱가포르	30,437	32,635	20,312	-0.5
대만	28,816	30,887	20,284	-6.1
미국	22,969	27,099	17,422	-1
★대한민국	17,143	19,227	12,303	-4.9
말레이시아	10,860	11,412	7,277	-5.9
인도	9,204	11,103	7,028	-6.6
스위스	6,684	10,139	6,698	4.4
태국	9,783	9,812	6,021	-13.4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5. 對 한국 교역동향

가. 對 한국 교역현황

- 홍콩무역발전국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홍콩과 한국의 연간 무역 총액은 270억 달러(2011년)에 달하며 한국은 홍콩의 제 6위 규모의 교역국임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무역둔화 현상은 홍-한 간 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양국의 무역 총액 증가율은 2010년 28.2%에서 2011년 12.7%로 다소 감소하였음

〈 홍콩의 對 한국 무역통계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금액			
	2009	2010	2011	2012(1-8)
총수출	5,530	6,881	7,856	5,030
자체수출	153	192	185	114
재수출	5,377	6,689	7,670	4,917
수입	13,211	17,143	19,227	12,303
수입중 재수출분	10,522	14,225	15,272	10,179
총무역액	18,741	24,023	27,082	17,333
무역수지	-7,681	-10,262	-11,371	-7,272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의 대 한국 주요수출품은 반도체, 통신장비, 여행용품 및 핸드백, 사무기기/컴퓨터 등이며 2012년 1~8월 기간 중 홍콩의 대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로 소폭 감소하였음

〈 홍콩의 對 한국 수출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감률
전 체	6,881	100	7,856	100	5,030	100	-5
반도체, 전자밸브	1,639	23.8	1,726	22	1148	22.8	-2.4
통신장비	1,071	15.6	1,404	17.9	935	18.6	5.4
여행용품	444	6.5	597	7.6	415	8.3	5.3
전자회로용 전자기기	399	5.8	437	5.6	295	5.9	-1.4
사무기기/컴퓨터부품	460	6.7	433	5.5	202	4	-39.9
컴퓨터	247	3.6	319	4.1	160	3.2	-31.4
전자기기 및 부품	232	3.4	241	3.1	126	2.9	-15.7
신발	162	2.4	201	2.6	149	3	-11.7
사무기기	172	2.5	195	2.5	112	2.2	-15.1
완구, 운동용품	168	2.4	162	2.1	91	1.8	-18.2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된 품목은 반도체, 석유, 통신장비 등임

〈 홍콩의 對 한국 수입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감률
전체	17,143	100	19,227	100	12,303	100	-
반도체	6,937	40.5	7,037	36.6	4,424	36	-9
석유	1,544	9	2,969	15.4	1,815	14.8	-4.5
통신장비	1,591	9.3	1,691	8.8	1,223	9.9	10.1
사무용기기/컴퓨터부품	523	3	643	3.3	424	3.4	-9.9
스티렌 복합체	520	3	572	3	362	2.9	-10.6
전자기기	447	2.6	451	2.3	311	2.5	-3.3
전자회로용전자기기	406	2.4	511	2.7	290	2.4	-7.4
플라스틱	335	2	308	1.6	193	1.6	-7.6
가죽	184	1.1	210	1.1	155	1.3	16.3
약기 및 부품	189	1.1	270	1.4	114	0.9	-32

자료 : 홍콩무역발전국

나. 한·홍 교역 관계

- 홍콩은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무역 중간창고 역할 및 중국진출사업의 본부역할을 수행
 - 중국대륙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80%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 회계, 재무 등의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홍콩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약 650개사이며, 주로 제 3국, 특히 중국 관련 중개 무역을 하는 물품 교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융업(은행, 증권, 회계)과 물류업에도 다수 종사하고 있음
 - 홍콩한인상공회에 등록된 한국기업은 약 200개사임
-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홍콩시장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상대국이 되었음
 - 2011년 한국은 대 홍콩 무역에서 1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270억 달러에 달했음
 - 2012년 1~7월 기간 중 한국은 홍콩의 제 6위 규모의 교역국임

Ⅲ 농업동향

1. 홍콩 농업현황

- 홍콩 농가 수는 '11년 기준 1,861개소(등기)이며, 농업종사자는 약 4,700명
 - 주 생산 작물은 관상용 화훼류(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이며, 식용작물로는 엽채류, 국화과 작물, 수상작물이 있으나 소규모임
 - 경지이용은 '11년 기준 채소류 및 화훼류 450ha, 논작물 20ha, 과수류 276ha로 경지면적이 매우 협소함
 - 총 농산물생산은 US 615백만 불로 이중 작물생산 US 232백만 불, 축산물 US 176백만 불, 가금육 US 207백만 불을 생산하였음
 - 전체 농산물 소비에서 자국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선농산물 2.5%, 가금육 56.2%, 돈육 6.4% 등임
- 농가 1인당 수입액은 약 US\$ 16천불임(HK\$ 125천불)

2. 홍콩 농업정책

- 홍콩의 농업정책은 정부참여최소화로 자유 시장을 겨냥한 **완전개방정책**을 펴고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95% 이상임
 - 담배, 주류(30도 이상), 메틸알코올, 카본오일 4가지 품목 외 모두 무관세임

3. 농식품 무역동향

가. 농식품 수출입동향

- '11년 홍콩 연간 농식품 수입액은 약 US\$186억불로 자체 생산량이 거의 없어 식품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 '11년은 전년대비 17.3% 증가
 - '09) 139억불 → '10) 159억불 → '11) 186억불(17.3%↑)
 - 축산물이 76억불로 가장 많고, 가공식품·신선농산물 75억불, 수산물 35억불 등임

〈 홍콩 농식품 부류별 수입통계 〉

단위 : 천 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액	증감률
합 계	13,587,872	15,872,337	18,619,344	17.3
축 산 물	5,404,746	6,134,450	7,589,840	23.7
가공식품·신선	5,651,681	6,707,050	7,523,947	12.2
수 산 물	2,531,453	3,030,836	3,505,557	15.7

- 농식품 주요 수입국은 중국(21.1%), 미국(17.6%), 브라질(9.0%), 일본(5.1%) 등이며, 한국은 1.3%(244백만불)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음
 - 세부내역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육류, 내장, 가공식품, 신선농산물 등이 수입되며, 미국은 과일, 견과류, 육류, 수산물, 브라질은 가금류, 육류, 과실류, 일본은 수산물, 신선류, 한국은 가공식품 위주임

〈 홍콩 농식품 국가별 수입통계 〉

단위 : 천 달러, %

순위	수입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	합 계	13,587,872	15,872,337	18,619,344	17.3
1	중국	2,979,711	3,300,554	3,924,868	18.9
2	미국	1,921,660	2,731,863	3,273,165	19.8
3	브라질	1,596,759	1,422,416	1,670,324	17.4
4	일본	717,556	966,816	944,323	-2.3
5	태국	843,081	772,307	837,484	8.4
★17	한국	152,217	200,612	244,265	21.8

나. '11년 對홍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11년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305.5백만 불로 전년 대비 25.3% 증가

- 일본 대지진, 대만산 플라스틱 가소제 사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증가품목은 김치(35.8% ↑), 인삼(40% ↑), 과실류(55.8% ↑) 등이며, 감소품목은 채소류(3.7% ↓), 버섯류(61.5% ↓), 유제품(52.3% ↓) 등임

〈 對 홍콩 수출실적 〉

단위 : 톤, 천 달러, %

구 분	2010년(A)		2011년(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193,987	243,745	200,763	305,521	3.5	25.3
○ 농식품	192,420	215,765	198,793	274,247	3.3	27.1
[신선]	13,046	58,641	12,340	69,222	△5.4	18.0
- 채소류	1,317	8,626	1,345	8,308	2.1	△3.7
- 김치	536	1,777	683	2,413	27.5	35.8
- 인삼	104	27,789	148	38,891	42.8	40.0
- 화훼류	12	59	0	23	△98.4	△61.7
- 과실류	3,071	6,834	4,263	10,647	38.9	55.8
- 버섯류	5,206	8,974	2,047	3,455	△60.7	△61.5
- 돼지고기	18	76	53	200	194.0	161.6
- 가금육류	2,501	2,794	3,745	4,022	49.7	44.0
- 산림부산물	281	1,712	54	1,264	△80.7	△26.2
[가공]	179,374	157,124	186,452	205,025	4.0	30.5
- 가공식품	179,252	156,964	186,319	204,757	3.9	30.5
* 면류	5,472	7,646	6,429	9,962	17.5	30.3
* 소스류	271	670	392	1,098	44.6	63.9
* 주류	46,559	25,983	49,401	29,754	6.1	14.5
* 과자류	4,379	14,604	3,715	13,772	△15.2	△5.7
* 연초류	1,363	19,215	1,995	24,590	46.4	28.0
* 유제품	103	1,093	47	522	△54.2	△52.3
- 목재류	122	160	134	269	9.2	68.2
○ 수산식품	1,567	27,980	1,970	31,274	25.7	11.8
- 어류	414	6,559	654	7,691	58.1	17.2
- 연체동물	519	11,553	459	12,322	△11.5	6.7
- 해조류	112	1,771	159	3,029	41.7	71.0
- 갑각류	119	2,839	144	4,206	21.6	48.2
- 기타	404	5,257	553	4,026	37.0	△23.4

4. 관세현황

가. 수입 규제 제도

○ 자유로운 수출입 정책

- 홍콩은 전략물자, 의약품, 독극물 등 소수의 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 거래가 자유로우며 담배, 주류, 메틸알코올, 하이드론 카본 오일을 제외한 일반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무관세 정책을 쓰고 있음
- 육류, 채소류 등 식품 수입 시 비교적 간단한 검역 절차가 필요하나 홍콩 수입업자가 홍콩 위생국으로부터 검역을 받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님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써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수입 쿼터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유동적인 수출입 규제

- 홍콩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지만 중국산 제품 수입에 매우 민감함. 때때로 중국산 유사품, 위조품, 유해식품 등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임. 주로 식품 및 약품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로 계란과 우유를 들 수 있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지역 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가금류 소비가 많아 조류 독감에 특히 민감하여 발생 지역에 따라 닭고기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함. 실제로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하자 홍콩식품안전센터에서는 2008년 한국산 생닭에 대해 일시적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했음
-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5개의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토치기, 군마) 식품(유제품, 채소, 고기류)에 대해 3월 23일부터 수입금지령을 내렸음

나. 수출입 관련 법령

□ 수입 허가증 제도

-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펴고 있어 일반 수출입 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 절차는 없지만,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화학 약품 및 인삼 등의 한약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및 도소매 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 수입 허가증 발급 대상 : 마약류, 의약품, 동물, 살충제, 폭발물, 쌀, 냉동육, 오존 파괴 물질, 좌측 운전용 차량, 엔진(111.9kw초과), 광학 디스크 기기, 복사기, 화학 약품, 멸종 위기 동식물, 무기, 섬유, 가금류, 라디오 운송 장비,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 전략물자(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 물질 등) 등임

□ 수입 및 수출 조례(Import and export ordinance)

- 수입품 및 수출품에 대한 규제, 홍콩으로 이미 수입된 물품들에 대한 취급 및 운송, 해외로 수출된 품목의 처리에 대한 조례

□ 수출입 재고품 조례(Reserved commodities regulation)

- 수출 및 수입 시 발생한 재고 물품에 관한 조례

□ 오존층 보호에 관한 조례(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

- 1985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1987년의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하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함유 품목의 제조 금지, 수출입 통제에 관한 조례

□ 수출입 물품 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

- 환적 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휴대품, 4,000 홍콩 달러 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 목적의 1,000 홍콩 달러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빈 컨테이너, 인가된 배에 의한 포획어류 등임

다. 수입 규제 담당기관 :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E-메일: customsenquiry@customs.gov.hk
- 홈페이지: www.customs.gov.hk
- 주요업무 : 수출입 통관, 소비자 보호, 관세부과 물품 확인, 라이선스와 허가신청, 수출입신고,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류 검사

라. 수출입 신고서 양식

香港海關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HONG KONG

船隻抵港申報表
Vessel Arrival Declaration

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

船名 Name of Vessel 船隻呼號 Call Sign

航行次數 Voyage No. 泡位 Buoy No.

到港日期及時間 Date & Time of Arrival

(1) 船舶資料 Shipping Particulars

船東名稱
 Name of owner

國籍 註冊港口
 Nationality Port of Registry

噸位 — 毛重 註冊長度
 Tonnage Gross Registered Length

— 淨重 載客量
 Net Passenger Capacity

建造年份
 Construction Year

代理名稱
 Name of Agent

地址
 Address

電話
 Tel. No.

(2) 航程表 Voyage Itinerary

本船抵達香港前三個月內曾沿途停泊之港口。
 Ports has been called by the vessel during the 3 months before the date of its arrival in Hong Kong.

所經埠 Name of Port called	到達日期 Date of Arrival	離開日期 Date of Departure
.....
.....
.....
.....
.....
.....
.....
.....
.....
.....

(3) 貨單 Cargo Manifests

茲證明所附的貨物貨單其所載為在本船上輸入或輸出香港的貨物詳情。
 I hereby certify that the attached manifests contain full particulars of the cargo being imported or exported in or on the vessel.

港口名稱 Name of Port	提單號數 Bill of Lading No.	頁數 No. of Pages
..... 至 to
..... 至 to
..... 至 to
..... 至 to

茲證明本船並無貨物由 埠運來香港卸下。
 I hereby certify that there is no cargo from being discharged in Hong Kong.
(港口名稱 Name of Port)

只供海關填寫
For Official Only

已核對航海日誌，證實資料真實 Ship log verified and certified correct by
 簽署 Signature

(海關人員姓名、職階及所屬組別)
 Name/Rank/No./Unit/Division of attending officer

時間 Time/日期 Date: hrs. on / /
(時間 Time) 日 月 年

簽署
 Signature

姓名及職位
 Name & Rank

日期
 Date

CED 114 (Rev. 01/98)

마. 對 한국 수입규제 동향

- 홍콩과 한국은 상호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 규제 조치를 발효하지 않음. 특히 홍콩은 자유무역, 규제프리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로 수입 규제 품목은 기본적으로 매우 드뭄.
- 그러나 최근 한국산 분유의 요오드 함량이 부족하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롯데 초코파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음. 식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홍콩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타국가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가능한 준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 제품에 대한 홍콩의 과거 수입 규제 사례 〉

품목	사유	비고
생굴	바이러스 창궐	2006년 규제
생닭	조류 독감	2008년 규제
돼지고기(生)	상호 협정 미체결	-
소고기(生)	광우병 우려	-

자료 : 홍콩 세관

[홍콩, 한국산 분유 두 가지 제품을 요오드 함량 부족으로 발표]

- 홍콩 식품환경위생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에 대한 성분테스트 결과 한국산 분유 업체의 2가지 제품의 요오드 함량 기준치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발표(2012. 8. 8). 앞서 홍콩 당국은 일본산 분유 제품 2개에 대해 요오드 함량이 낮다는 이유로 섭취 중단 권고를 내린 바 있음. 하지만 해당 한국산 제품의 요오드 함량 부족은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음
- 일본산 분유에 이어 한국산 분유까지 요오드 함량 기준치 미달이라는 발표에 홍콩 내 언론에서는 분유 공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는데, 홍콩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수출되고 있는 분유 제품이 당장 유통이 금지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나 한국 분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판매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산 분유에 대한 인지도와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자 현지에서 한국 유통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롯데 초코파이 판매 중단 조치]

- 홍콩 식품환경위생청 식품안전센터는 롯데 초코파이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몬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식품 성분 표시에 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홍콩 내 해당 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음. 국가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몬드 성분이 필수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각각 다른데, 이번 홍콩정부의 조치는 캐나다 식약청의 조치에 의거 한 것임
- 홍콩 현지 배급사와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 약 5,000박스 분량을 전량 리콜 조치했으며,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검사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에 제품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됨. 롯데 초코파이의 홍콩 수출이 당분간 불가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국제조사들의 제과류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임

[전염병과 상호 협정 미체결로 인한 수입 규제 품목]

- 2006년에 한국산 생굴에 바이러스가 발생해 수입이 규제된 적이 있음. 또한 2008년 4월에는 한국 전라북도 일대의 닭과 오리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08년 4월 7일 한국 생닭의 수입 금지를 발표하였음. 홍콩의 기후는 습기가 많아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고 기승을 부리는 도시 구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이러스 침입 전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8개월 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음(2011.9)

[농심 라면류 발암물질 검출 관련 홍콩정부 자체 검사결과 미 검출 발표]

- 홍콩정부는 농심의 라면류 등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공식발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2012.10)

5. 관세제도

가 . 일반 관세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음.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됨

- 홍콩의 통관 및 검역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수출입 일반 : Import and Export(Registration) Regulations(Chapter 60)
 - 관세 일반 :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Cap. 109)
 - 식품검역 일반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 주요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

1. 탄화수소	관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중국 제조	HK\$ 419/kg
수입 시가	HK\$ 2197/kg
수입 담배	HK\$ 1706/1000개비
일반담배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된 그 외 모든 담배	HK\$2067/kg
3. 주세	
와인	0%
알코올 30%이하 주류 (맥주 등)	0%
알코올 30%이상 주류 (위스키 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자료 : 홍콩 세관

나. 와인 관세 폐지

- 홍콩정부는 2007년 80%에서 40%로 반감한 와인세율을 2008년에는 0%로 조정하였음. 이로써 **홍콩은 세계에서 부가가치세와 와인세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음.** 와인세 감면으로 인해 홍콩은 2012년까지 10억 홍콩달러, 2017년까지 30억 홍콩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수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홍콩 재정부 장관(John Tsang Chun -wah, 曾俊華)은 주류세 인하가 요식업뿐만 아니라, 여행업, 브랜드 판매에도 기여할 것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2011년 담배세, 자동차 등록세 인상

- 자유무역 도시인 홍콩은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나 일부품목(담배, 30도 이상 주류,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담배는 2009년도 50% 인상에 이어, 2011년에는 41.5% 더 올려, 현재는 한 갑에 50홍콩달러가 되었으며 담배 1갑당 세금은 홍콩달러 24불에서 34불로 증가하였음. 홍콩 세관에 따르면 2010년 한해 71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담배세가 38억 달러로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음

6. 통관수속

□ 수출입 신고관련 주요내용

- 홍콩은 수출입 자유방임정책으로 수입된 물품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나 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해당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공식 보건인증서를 제공해야 함
- 수입상품에 대한 통관관리는 송장(manifests)과 같은 서류검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에는 선택적 기준의 실질적인 조사(physical examination)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된 적송품은 관세청 담당자에 의해 조사를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음
- 수입과 관련된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음
 - 송장(manifests)
 -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그 외 유사한 서류
 -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
 - 기타 수입 라이선스와 같은 서류

〈 선적 절차 〉

순서	절차
1	선적
2	수출입 신고서 제출 (수출 후 14일 이내)
3	화물 도착 통지
4	관세사나 통관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통관 대행 (필요 시)
5	수출완료

자료 : 홍콩 세관

- 통관 시에는 Bill of Entry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상업 송장, 선화증권,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화물검사 증명서(필요 시)가 기본적으로 요구됨
- 수출입 물품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화물(일부 품목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 HK\$ 4,000(약 US\$ 518)미만의 우편물, 견본품, 광고목적의 HK\$ 1,000(약 US\$ 128) 미만의 수입품, 전시품,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 증정품, 중고 공컨테이너, 인가된 배에 의한 포획어류 등이 있음

- 기본적으로 홍콩의 특성상 97%이상이 비과세물품으로 B/L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화주의 직접 화물 수취가 가능한데 그 중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의 경우는 각각 수출입규정, 비축 물자 규정 등에 의해 홍콩 도착 7일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 대부분 상품은 신청 후 3-7일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은 자유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함
 - 수입 허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는 화물도착 4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수출입절차는 홍콩무역의 장점이며, 편리한 인프라시설로 수출입은 비교적 용이한 편임
- 어떤 품목이든 수입 또는 수출을 하려는 사람은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HK Customs and Excise)의 감독관에게 해당품목의 수입 및 수출이 있을 후 14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함
 - 신고는 크게 도착신고(arrival declaration) 및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로 붙임의 양식에 의해 작성해야 함
 - 홈페이지를 통한 “e-form”신고도 가능함
 - * http://www.info.gov.hk/digital21/eform/english/about_e_form_01.html
 - 만약 면제품목에 대하여 서류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품목의 관련 카테고리 적하목록(cargo manifest)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운송자(carriers/forwarders)에게 고지하여야 함
 - 홍콩으로 수입 시에는 "The Ozone Layer Protection Ordinance(Cap 403)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특히 수입 시 검역이 까다로운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라이선스(license)와 함께 수입허가(import permit) 또는 증명서(certificate) 등을 갖추어야 함
 - 라이선스는 연간단위로 부여되며, 수출입과 관련된 라이선스 수수료는 HK\$950임

No.	항 목
1	위험 약물(Dangerous Drugs)
2	화학물(Controlled Chemicals)
3	의약품(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ines)
4	중국 한약(Chinese Herbal Medicines and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5	가축(Live Animals)
6	식물과 식물해충(Plants & Plant Pests)
7	쌀,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육(Rice, Frozen or Chilled Meat and Poultry)
8	게임, 육류 및 가금육(Game, Meat and Poultry)
9	기타 금지품목(Other Prohibited Goods)

7. 화물의 통관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품목 수입에는 수입을 위한 수입자 자격증 및 유통을 위한 도소매 자격증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인삼 등의 한약재 역시 허가받은 수입자만이 취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 의약품 ○ 동물 ○ 살충제 ○ 폭발물 ○ 쌀 ○ 냉동육 ○ 오존파괴물질 ○ 좌측 운전용 차량 ○ 엔진(111.9kw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학디스크기기 ○ 복사기 ○ 화학약품 ○ 멸종위기 동식물 ○ 무기 ○ 섬유 ○ 가금류 ○ 라디오운송장비 ○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 ○ 전략물자(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물질 등)
---	--

자료 출처 : 홍콩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hk) 인용

□ 원산지 규정

- 홍콩의 기본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홍콩 보건위생법에 의거하며 수입 해당 당국의 식품의약 안전청에서 발급받은 식품허가증명서와 생산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이 규정임

□ 구비서류

- 적하 목록
- 수입/수출 라이선스
- 식품의약 안전청 통보서
-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유사한 서류
- 화물 선적서류 - 인보이스, 패키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

<붙임 1> 선박 도착신고서	<붙임 2> 수입 신고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香港海關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HONG KONG</p> <p style="text-align: center;">船舶抵港申報表 Vessel Arrival Declaration</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p> <p>船名 Name of Vessel: _____ 船隻呼號 Call Sign: _____ 船行代號 Voyage No.: _____ 船隻編號 Ship No.: _____ 到港日期及時間 Date & Time of Arrival: _____</p> <p>(1) 船舶資料 Shipping Particulars</p> <p>船主/船東 Name of owner: _____ 註冊港口 Port of Registry: _____ 船籍 Nationality: _____ 船籍國 Nationality: _____ 噸位 Tonnage: _____ 註冊長度 Registered Length: _____ 船身長 船身長: _____ 乘客容量 Passenger Capacity: _____</p> <p>建造年份 Construction Year: _____ 代理公司 Name of Agent: _____ 地址 Address: _____ 電話 Tel. No.: _____</p> <p>(2) 航程 Voyage Itinerary</p> <p>本報關單僅適用於由外來或由香港轉往香港之進口貨物。 Ports has been called for the vessel during the 3 months before the date of its arrival in Hong Kong.</p> <p>前港名 Name of Port called: _____ 前港日期 Date of arrival: _____ 離港日期 Date of departure: _____</p> <p>(3) 載貨單 Cargo Manifest</p> <p>茲聲明所報的貨物載單及其所有在本報關單上輸入或輸出香港均與事實相符。 I hereby certify that the attached manifest contains full particulars of the cargo being imported or exported in or on the vessel.</p> <p>進口日期 Name of Port: _____ 裝貨單號 No. of Lading No.: _____ 貨單 No. of Pages: _____ 裝貨單 No. of Lading No.: _____ 裝貨單號 No. of Lading No.: _____ 裝貨單號 No. of Lading No.: _____</p> <p>我特此聲明: 倘有在貨物裝單上未列明之貨物, 則該等貨物未經申報。 I hereby certify that there is no cargo from _____ being discharged in Hong Kong.</p> <p>申報人/代理人 Name of Declarant: _____ 簽署 Signature: _____ 職銜/職稱 Position: _____ 姓名/全名 Name & Surname: _____ 地址 Address: _____ 電話 Tel. No.: _____</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THE GOVERNMENT OF THE 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p> <p style="text-align: center;">香港海關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p> <p style="text-align: center;">DUTABLE COMMODITIES ORDINANCE, CHAPTER 609</p> <p style="text-align: center;">運進貨物申報表 Import Statement</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Sample for Reference 參考樣本</p> <p>報關日期 Date of Declaration: _____ 申報人/代理人 Name of Declarant: _____</p> <p>報關地點 Place of Declaration: _____ 報關時間 Time of Declaration: _____</p> <p>(1) 貨物資料 Description of Goods</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small;"> <thead> <tr> <th>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th> <th>數量 Quantity</th> <th>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th> <th>數量 Quantity</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2) 貨物資料 Description of Goods</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small;"> <thead> <tr> <th>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th> <th>數量 Quantity</th> <th>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th> <th>數量 Quantity</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3) 申報人/代理人 Name of Declarant: _____ 簽署 Signature: _____ 職銜/職稱 Position: _____ 姓名/全名 Name & Surname: _____ 地址 Address: _____ 電話 Tel. No.: _____</p> </div>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數量 Quantity																														

○ 수출입 통관 기본 규정 참조 아래 :

- http://www.censtatd.gov.hk/FileManager/EN/Content_93/B8XX0022.pdf

〈 통관부서 연락처 〉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무시간
항공 운송	852) 2116 4130	852) 2116 4201	24시간
해상 운송 Containerized Cargo	852) 2410 8045	852) 2420 2429	08:00~22:30(월-금) 09:00~17:00 (토)
해상 운송 -Sea Cargo	852) 2534 7188	852) 2854 1280	24시간
해상 운송 River Trade Vessels Cargo	852) 2180 8977	852) 2180 8976	08:15~18:15(월-금) 08:15~16:30 (토)
육상 운송 Lok Ma Chau Control Point	852) 2482 8758	852) 2482 2552	24시간
Lok Ma Chau Spur Line Control Point	852) 2486 0222	852) 3404 6066	06:30~22:30
Man Kam To Control Point	852) 2679 2000	852) 2679 5828	07:00~22:00
Sha Tau Kok Control Point	852) 2674 4384	852) 2674 9345	07:00~20:00
Shenzhen Bay Control Point	852) 3527 0069	852) 3527 0829	06:30~24:00
철도 운송	852) 2957 0219	852) 2363 8242	06:15~24:00

〈 웹사이트 / 관련법규 〉

구분	웹 사이트
홍콩 세관	http://www.customs.gov.hk/en/home/index.html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https://www.rocars.gov.hk/en/landing_page.html
홍콩 식약청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2.html
홍콩 세관 통관, 라이선스 발급 안내	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
홍콩 식품 환경위생국	http://www.fehd.gov.hk/english/publications/code/code_index.htm
홍콩세관 - 수입조례법령 60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홍콩식품안전청 - 냉동과자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홍콩식품안전청 - 육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홍콩식품안전청 - 유제품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8. 주요 품목별 통관제도

가. 일반 포장제품

□ 수입통제 및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

- 우유, 유제품, 냉동당과류, 계란, 육류 그리고 가금류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식품들은 보건과 지자체조례(cap 132)의 법적용을 받으며 야생동물류, 육류, 가금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위생청에서 인정한 공급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국한되어 있음
- 수입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따라 수입국의 식품청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가 없고, 또는 식품 및 환경 위생청에서 허가한 공식적인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 어떠한 계란, 육류 및 가금류도 홍콩에 수입해서는 안 되며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HK\$50,000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짐
- 특히 여행자들은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다른 나라의 식품청은 식품거래상들에게만 사업상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야생 동물류, 육류 또는 가금류를 홍콩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인증서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관련 기관을 확인하고 개인에게 공식 인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함

* 수입/수출 등록처 및 연락처

전화: 852) 2158-3041 / 2156-3042

팩스: 852) 2521-4784



나. 수입 우유와 우유음료 수입가이드

- 우유, 유제품 음료 수입업자들은 수출국가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의약청의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수입 시 품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우유, 유제품 수입업자의 수입 관련 신청
 - 제조업체의 허가 승인 신청
 - 홍콩에 수입되는 모든 우유, 유제품 음료 관련은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만 수입을 할 수 있음
 - 홍콩 식품 및 환경위생부서의 부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
 - 홍콩에 우유, 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함

- 우유,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 우유, 유제품 생산에 관련하여 생산 당국의 허가서
- 라벨이 첨부된 우유, 유제품의 빈 용기
- 우유, 유제품 및 가공 공장의 생산 설비와 물 공급 시설, 편의 시설, 열처리 방법에 관련된 정보
- 다음의 목적을 위해 생산국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필요
- 위생적인 환경 하에서 우유, 유제품의 살균, 저온 살균의 효과적인 열처리 방법의 관리, 진행, 패키징에 관련된 인증서
- 제품의 화학적, 세균학 질의 방영
- 제품의 유통기한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 수하물의 도착

- 우유와 유제품은 수하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전에 홍콩 식품환경위생청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난 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야 홍콩에 수입이 가능함
- 공공 보건 지사체조례 제59(1)(c)에 의거, 식품환경위생청이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
- 우유, 유제품의 수하물이 도착하여 출고, 판매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 수입 식품의 샘플을 제공, 위생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판매 허가서”를 발행함

○ 계약 이행

- 제조원의 허가 신청을 받은 12일 이내로 진행해야 함
- 실제 배송물의 도착일과 도착 통지를 받은 날, 두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출 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 신청 및 문의

- 식품 안전과 와 식품 및 환경 위생청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전화 : 852) 2867 5990 또는 24시간 핫라인 852) 2868 0000.

다. 해산물 수입가이드

- 홍콩에 해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관련 식품안전 및 통제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수입업자 관련사항
 - 식품 및 환경위생부는 수입되는 해산물이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생산국의 보건 당국으로부터 발행된 보건 인증서를 취득하도록 강하게 권장하고 있음

- 수하물의 도착
 - 현재, 해산물 수하물이 홍콩의 입국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위생부에 의해 검역 또는 샘플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보건 인증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될 경우, 위생부는 이것이 판매되기 전에 검사를 위해 수하물에서 샘플을 가져갈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샘플에 관한 지불과 관련된 신청은 아래의 주소로 가능
 - 주소 : 식품 및 환경 위생부 식품 안전과
 - * Centre for Food Safe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전화 : 852) 2867 5990 내선 6번 / 24시간 핫라인 : 852) 2868 0000.

라. 냉동육류, 냉장육류, 냉동 가금류와 냉장 가금류의 수입허가 신청가이드

- 신청 절차
 - 냉동육류, 냉장육류, 냉동가금류와 냉장가금류의 수입업자는 다음 주소의 식품 및 환경 위생과의 식품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록과 수입 라이선스 사무소에서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함
 - 냉동육류, 냉장육류, 냉동가금류와 냉장가금류의 각 수화물은 하나의 수입 라이선스로 처리 가능함
 - 수입 라이선스 신청서는 수하물 수출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보건 인증서 또는 식품 및 환경 위생부의 부서장으로부터 받은 특정 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함
 - 수입업자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신청서 수령 이후 식품 및 환경 위생과는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자는 식품 및 환경 위생과에서 라이선스를 받을 때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업체가 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안전 조례에 따라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청장에게 먼저 등록해야 함
 - 개인적인 용도로 15Kg 이하의 개인 수하물을 홍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육류나 가금류의 수입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됨
- 냉장 저장 창고 등록
 - 식품 및 환경위생부의 냉장상점 라이선스는 수입된 육류 및 가금류를 냉장보관 창고로 자동적으로 등록되며, 식품사업을 위해 냉동 또는 냉장육류나 가금류를 수입하는 등록된 수입업자는 자신의 허가받은 식품업체를 수입육류나 가금류의 냉장저장창고로 등록해야 함

마. 인삼제품 수입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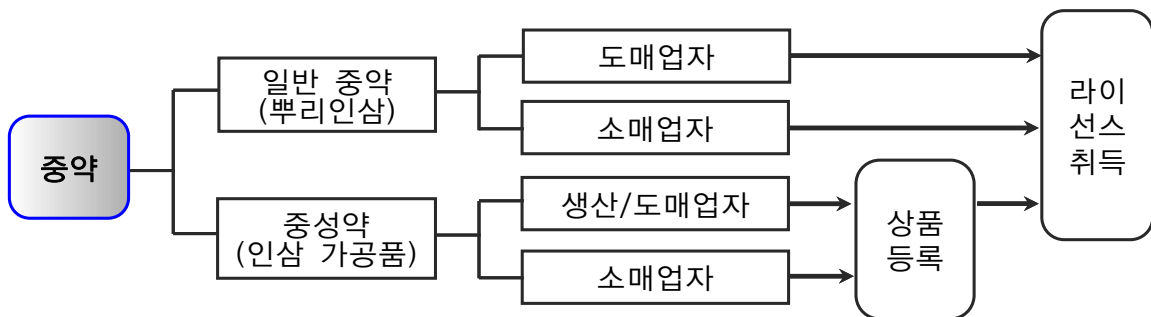
- 인삼은 일반식품이 아닌 **중약**으로 취급되어 도소매업자의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함
 - 인삼원자재 : Wholesaler License in Chinese Herbal Medicine.
 - 인삼제품 : Wholesaler License in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 **인삼가공제품은 중성약으로 분류되어 중성약으로 등록 후 판매가능하나 2013년 까지 유효기간으로 현재에는 사실상 등록 없이 판매 가능**
- 중약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약은 크게 일반 약초(herbal)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일반 중약(Chinese herbal medicines)과 캡슐, 가루 등 가공 중약품에 해당하는 중성약(proprietary Chinese medicine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삼의 경우 백삼, 홍삼 등 뿌리인삼 제품은 **일반 중약**에, 인삼차, 농축액 등 기타 인삼 가공제품은 **중성약**으로 분류됨

〈 식품 및 중·의약품 구분 및 적용 법률 〉

종류	기준	적용 법률
일반식품	기타 모든식품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의약품	의약성분 포함, 의약효과 문구포함	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 138)'
중약품	중약성분 포함	Chinese Medicine Ordinance(Cap. 549)

- 중약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 중성약 생산·도매업자는 반드시 취급 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중성약 소매업자는 홍콩 중약의회 (Chinese Medicines Council of HK)의 중약 이사회(Chinese Medicines Board)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판매가 가능함

〈 중약 종류 및 등록 절차 〉



- 인삼, 화기삼 등 대부분의 뿌리인삼제품은 일반중약(총 574종)으로 포함되어 있어 중약법률인 Cap. 549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에 의해 중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뿌리인삼 종류는 아래와 같음
 - Radix Ginseng(人參), Root of Panax ginseng C.A.Mey.
 - Radix Panacis Quinquefolii(西洋參), Root of Panax quinquefolium L.
 - Radix Notoginseng(三七), Root of Panax notoginseng(Burk.)F.H.Chen
 - Rhizoma Panacis Japonici(竹節參), Rhizome of Panax japonicus C.A.Mey.
- 상기 4종은 대부분의 뿌리인삼을 포함하는 것으로 뿌리인삼의 학명에 따른 일반 명칭 및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 중약적용 뿌리인삼의 보통명 및 기타특성 〉

학 명	보통명	기타명	분포지역	형태
Panax ginseng C.A.Meyer	인 삼	고려인삼, 고려삼, Korean Ginseng	한국, 만주	사람모양
Panax quinquefolium L.	화기삼	미국삼, 캐나다삼, American Ginseng	북미 동부	원추형
Panax notoginseng Burkill	삼칠삼	전칠삼, 삼칠, Chinese Ginseng	중국운남, 광서	소형당근
Panax japonicum C.A. Meyer	죽절삼	소삼, 죽절삼칠, Japanese Ginseng	일본, 중국운남	대나무뿌리

- 뿌리인삼 중약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홍콩 중약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0년에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한 대상은 변경신청으로 가능함. 중성약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proprietary Chinese medicine)는 5년간 유효기간이 인정됨
 - 변경신청 : Transitional licensing of Chinese medicines traders
 - 소매업자 : Retailer Licence in Chinese herbal medicines
 - 도매업자 : Wholesaler Licence in Chinese herbal medicines

〈 중약 등록시 필요한 서류종류 〉

일반 서류(General documents)	범주 1	범주 2	범주 3
1. 일반 신청서 양식 및 체크리스트 (Application form & appropriate checklist)	P	P	P
2. 신청비(Application fee)	P	P	P
3. 신청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in-charge of the company)	P	P	P
4. 제품 생산업체 또는 판매연혁 관련 입증서류 (Documentary proofs of manufacture or sales history of the product)	P	P	P
5. 원산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생산허가증 사본 (Copy of manufacturing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untry of origin)	P	P	P
6. 원산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무료판매서류 사본 (Copy of free sale documentation of the product issued by the country of origin)	P	P	P
7. 제품샘플 및 판매포장 원본 (Product samples and prototype sales pack)	P	P	P
8. 법률에 준하는 라벨링 및 포장상품 삽입내용 (Label & package insert that have complied with the laws)	P	P	P
9. 소유주 제조법(Master formula)	P	P	P
제품 안전성 서류(Product safety documents)			
1. 중금속 및 독성 요소 테스트 결과보고서 (Heavy metals and toxic elements test report)	P	P	P
2. 살충제 잔여 테스트 결과보고서(Pesticide residues test report)	P	P	P
3. 세균 한도 테스트 결과보고서(Microbial limit test report)	P	P	P
4. 실제 유독성 테스트 결과보고서(Acute toxicity test report)	P	P	P
5. 장기간 유독성 테스트 보고서(Long-term toxicity test report)	×	P	P
6. 현지 유독성 테스트 보고서(Local toxicity test report)	P	P	P
7. 돌연변이 테스트 결과보고서(Mutagenicity test report)	×	P	P
8. 발암성 테스트 결과보고서(Carcinogenicity test report)	×	P	P
9. 번식 및 재발 유독성 테스트 결과보고서 (Reproductive and development toxicity test report)	×	P	P
10. 제품 안전성 서류 요약보고서 (Summary report on product safety documents)	P	P	P
제품 효용성 서류(Product efficacy documents)			
1. 처방 공식화 해석 및 원리 (Interpretation and principle of formulating a prescription)	P	P	P
2. 제품 효용관련 참고자료 (Reference materials on product efficacy)	P	P	P
3. 주요 약력학 연구보고서 (Principal pharmacodynamic studies report)	×	×	P
4. 일반 약력학 연구보고서 (General pharmacological studies report)	×	×	P
5. 임상시험 실험계획 및 요약보고서 (Clinical trial protocol and summary report)	×	×	P
6. 제품 효용성 서류관련 요약보고서 (Summary report on product efficacy documents)	P	P	P
제품 품질 서류(Product quality documents)			
1. 생산 방법(Manufacturing method)	P	P	P
2. 천연 약품의 물리화학적 소유권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rude drugs)	P	P	P
3. 제품 분류, 분석방식 및 증명서 (Product specification, method and certificate of analysis)	P	P	P
4. 촉진/일반 안정성 테스트 결과보고서 (Accelerated stability test report or general stability test report)	P	×	×
5. 실시간 안정성테스트 결과보고서(Real-time stability test report)	×	P	P

7. 검역제도

가. 검역제도 일반

- 식품관련 수입 시에는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저산성 식품에 대한 무균처리 과정과 포장에 관한 위생 처리 규정
- 동물성 식품에 대한 보건 인증서 신청 안내
- 식품의 살충제 잔류 모니터링

나. 품목별 검역제도

- 저산성식품에 대한 무균처리 과정과 포장에 관한 위생 처리 규정
 - 저산성식품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 즉 열처리 과정이후 산성농도가 4.6 이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뜻하며 이러한 식품들은 산성농도 4.6 이상의 환경에서 변질되기 쉽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같은 독성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식품으로 간주됨
 - 저산성식품의 무균처리나 포장은 복잡한 식품 제조 공정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의 측면에서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주의 깊게 통제되어야 하며 이것은 내부적으로 연관된 많은 처리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 범위
 - 이 위생처리 규정은 밀봉된 용기에 살균된 저산성식품을 포장하는 과정과 저장 처리과정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위생과정이며 이는 전통적인 통조림 제조 공정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저 산성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매우 다양한 상품들과 포장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특정상품의 가공처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식품 가공업자의 책임임
- 시설 : 설계와 설비
 - 살균 포장된 저산성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와 설비는 식품환경 위생청이 제시한 조건들과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 시설간의 모든 냉장 공간은 온도 측정 시설과 기록 설비가 완비되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원자재 요건
 - 가공업자는 사용되는 원재료와 그 성분들을, 공급업자나 가공업자가 특정요건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함
 - 가공업자는 원재료와 성분들이 확인되고 검증되었다는 자료들을 만들어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원재료와 주성분들은 상하지 않고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보관, 유지 그리고 다루어져야하며 원재료와 주성분은 적절히 순환되도록 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재료의 포장과 제품 용기**
 - 저산성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 재료들은 오염이나 손상을 최소화 시키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방법으로 보관, 처리해야 하며 제품용기의 소재는 상품이 적절하게 포장되어 처리과정과 지속적인 후처리 과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
 - 선택된 밀봉 재료는 식품뿐 아니라 용기나 밀봉 시스템에도 적절한 것이어야 함
 - 용기생산자와 식품가공업자 양측은 용기와 내용물이 합의된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할 수 있는 검사방법과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만들어 수행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상품 멸균**
 - 멸균 포장된 저 산성음식을 가공하기 위한 예약과정들은 책임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정해야 하며, 생산구성요소나 생산공식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평가해야 함
 - 예약처리 과정에서 명시된 모든 중요한 요소에 대해, 처리과정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주, 일정한 기간으로 측정, 통제하고 기록해야 함
- 위생 가공 요건들 - **멸균 포장**
 - 제품을 충전하기에 앞서, 충전과 포장설비의 멸균구역이 완비되어야 하고, 적절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전 생산 공정이 상업적인 수준에 맞는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멸균률이 떨어진 경우 멸균구역은 다시 살균되어야 함



- 위생 관리
 -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식품의 위생취급과 개인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지침과 필요한 주의사항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 품질 보증
 - 생산, 저장 그리고 운송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HACCP 시스템)은 예약과정을 준수하여 상품이 완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상업적인 멸균률을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 분석은 보존에 따른 별도의 비멸균 표시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각 생산라인에서 일정 개수의 용기를 선별 시행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보관해야 함
- 영구적이고, 판독 가능한 그리고 날짜가 적힌 기록들은 보관되어야 함

다. 식품의 살충제 잔류 모니터링

- 농수산 보존국은 살충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조례 Cap. 133를 제정하여, 조례에 따라 홍콩에서 사용이 허가된 등록된 살충제 목록을 매년 공보에 게시함. 이 목록은 농수산 보존국을 통해 참조할 수 있음
- 홍콩특별행정구는 현재 세계보건기구/국제연합 식량기구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의에서 권장하는 살충제의 최대 잔류허용기준(MRLs)과 외부유래잔류허용기준(EMRLs)을 적용하고 있음. 지금까지 국제식품기구에는 190종의 살충제에 대한 최대허용기준치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이 최대치는 수시로 개정됨
 - 살충제 잔류량이 허용치 내에 있는 경우, 식품 및 환경 위생국은 서로 다른 식품에서 샘플을 채취해 확인을 위해 분석, 식품에 허용치 내의 살충제 잔류량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전하고, 소비자의 소비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 잔류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은 살충제의 살포나 오염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나타냄. 원료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함
- 살충제 관련 법령 : Chapter 133
http://www.legislation.gov.hk/blis_ind.nsf/WebView?OpenAgent&vwpg=CurAllEngDoc*1

라. 식품 검역관련 주요 내용

- 식품관련 수입 시에는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음.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 특히 엽수류(사냥한 짐승·새 등의 고기류)는 식품환경위생국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도 해당부서에 의해서 원산지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 식품관련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건강관련 당국에 의해 발급된 위생검역 관련 증서를 제공해야 함
 - 과일 및 채소의 샘플은 살충제잔여 테스트를 위해서 홍콩의 “Man Kam To Food Control Office”에 의해 검역되며, 가축 수입 시에는 동일한 “Man Kam To”, 도매시장 및 도살장에서 검역되고 있음
 - 특히 수입된 엽수류, 육류, 가금류와 관련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한 식품 당국(food authority)에 의해 발급된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식품환경위생국(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 의해 수여된 사전서면 허가증(prior written permission)이 있어야 수입 가능

마. 관련 기관

- 홍콩 관세청 : http://www.customs.gov.hk/eng/major_declaration_e.html
 - 수출입 통관, 라이선스 발급 안내 등
- 홍콩 식품안전청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fc.html
 - 수입식품 검역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
- 주요 품목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 냉동과자류(the frozen confections)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3.html
 - 육류 등(game, meat, poultry)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 유제품 등(milk, milk beverage) :
http://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5.html
- 관련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 위생 검역관 수출입 등록부
(Health Inspector Import/Export Registration)
 - 주소 : 43/F,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 연락처 및 팩스 : (852) 2156 3041 / (852) 2521 4784
 - 담당자 이메일 : (852) 2156 3041 / (852) 2521 4784.

VI

대만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일반사항

- 국 가 명 : 臺灣(Taiwan), 공식국호 : 中華民國(The Republic of China)
- 수 도 : 타이베이(台北, Taipei) * 서울의 약 1/2 크기(272km²)
- 주요도시 : 台北(265만명), 新北(391), 高雄(277), 台中(266), 台南(187)
- 면 적 : 36,188km²(한반도의 1/6배, 남한면적의 1/3)
 - 남북으로 394km, 동서로 142km의 고구마 모양임
 - 국토의 55%가 산악지대(열대우림)로 남북을 잇는 높은 산맥이 연이어 있으며, 해발 3,000m 이상 258개(최고봉 玉山 3,952m)
- 인 구 : 2천 3백만, 지역별 인구 분포는 [붙임 1] 참조
- 기 후 : 아열대 동북 몬순 기후권(습하고 강우량이 많음)
 - 연평균 강우량 2,515mm, 연평균 강우일수 168일(46%)
- 언 어 : 공용어 : 중국어/ 상용어 : 대만어(푸젠어), 커지아어
- 종 교 : 불교(35%), 도교(33%), 기독교(2.6), 천주교(1.3), 회교(0.2)
- 민족구성 : 한족 98%, 원주민 2%
- 시 차 : KST-1시간
- 정부형태 : 입헌민주공화국
- 국가원수 : 마잉주(馬英九), '08.5.20취임(4년 중임가능)
 - '12.1.14 제13대 총통선거에서 재임 성공('12.5.20 취임)
- 입 법 부 : 단원제
- 행정조직 : 5개의 시 정부와 18개의 현 정부로 구성
- 정 당 : 국민당 (64석), 민진당 (40석), 대만단결연맹 (3석), 친민당 (3석), 무당 단결연맹 (2석), 무소속 (1석)
 - * 2012년 1월 14일 이래 의석수, 총 113석

2. 경제현황

〈 주요 경제 지표 〉

지 표	단 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f)
경제성장률	%	-1.93	10.82	4.03	1.66
명목 GDP 총액	US\$백만 불	377,529	428,186	464,009	473,701
실질 GDP 총액	US\$백만 불	435,496	482,358	501,966	507,631
1인당 GDP	US\$	16,353	18,603	20,246	20,222
1인당 GNP	US\$	16,895	19,188	20,771	21,194
실업률	%	4.14	5.85	5.21	4.31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0.87	0.96	1.42	1.93
민간소비 증가율	%	1.1	3.7	3.1	2.69
민간투자 증가율	%	-17.9	32.8	2.36	2.57
외국인 투자금액	US\$ 억	48.0	38.1	49.0	23.61
수출수주 증가율	%	1.7	-8.3	26.1	-
수출	US\$ 억	2,036.7	2,746.4	3,082.9	3,095
수입	US\$ 억	1,743.7	2,514	2,816.1	2,807
무역수지	US\$ 억	293.0	232.5	266.9	288
외환보유고	US\$ 억	2,917	3,482	3,820	3,942(9월)
환율(연말)	NT\$:US\$	32.86	32.03	30.368	28.79 (11.23)

- 주) 1. f는 전망치, 자료 : 대만 행정원 주계처, 중화경제연구원,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2. 대외채무 : 없음
 3. 산업구조(2011년 기준) : 농업(1.75%), 공업(29.49%), 서비스업(68.76%)

대만 지도



* 인구분포 : 26)북부(9,898천 명/42.6%), 중부(5,766/24.9), 남부(6,325/27.2), 동부(1,024/4.4)

26) 타이베이를 포함한 북부지역에 주요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타이중, 까오슝 등 중·남부지역의 한국식품 진입은 초기단계로 시장자체가 북부지역 위주에 치중

3. 한국과의 관계

□ 개요

- '48.8.13 수교
- '92.8.23 단교와 함께 정부차원의 공식적 정치·외교 단계도 단절
- 경제·통상 등 비정치 분야의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 중

□ 단교 이후 한-대만관계 주요일지

- '92.8 한-대만 단교
 - 대만 보복조치 : 과실 및 자동차 교역중단, 항공기 취항금지
- '93.7 한-대만간 비공식관계 수립 합의
 - '93.11 타이베이 및 '94.1 서울에 각각 대표부 설치
- '94.5 제1차 과실교역회담 개최 / '96.9까지 총 4차례 회담 개최
- '95.3 제1차 항공회담 개최 /협정 용어 등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결렬
- '96.10 대만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타결 및 한국산 자동차 대만 수출 재개 합의
- 2003.1 한-대만 항공기 전세 취항
- 2004.9 한-대만 민간항공협정 체결
- 2012.4 송산 ↔ 김포간 노선 개항(04.30 첫 취항)
- 2012.7 대만 무비자 체류기간 30일에서 90일로 연장(7.1~)

〈 한국-대만 수출입 동향 〉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0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284.7	47.1	328.9	15.5	239.5	-27.2
수출	148.3	56.1	182.0	22.7	122.6	-32.6
수입	136.4	38.5	146.9	7.7	116.9	-20.4
수지	11.9	438.0	35.0	194.1	5.7	-83.7

자료 : 한국 관세청

1. 경제지표 및 정책

□ 경제성장률 및 전망

- 대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GDP 성장률이 3.24%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출입 성장과 민간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
 - 대만의 금년 GDP 성장률인 1.16%보다 2.26% 상승전망
 - * 주요기관들이 2013년도 전 세계 교역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 (IMF, 2012 : 3.2% → 2013 : 4.5, EIU, 2012 : 3.3 → 2013 : 4.5)

□ 대외무역

- 2013년 대만의 수출입은 각각 4.18%, 2.7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대비 수출, 수입이 각각 4.62%, 4.99% 증가, 대만경제연구원)
- 대만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한 경기활성화 정책 실시는 대만의 수출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

- 2013년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99%보다 0.65% 하락한 1.34%로 전망됨
- 아직까지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내년의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등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금년도 원유 및 전기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했던 대만의 물가가 내년 1/4분기부터는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임
- 일반 생활물가는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의료비와 주거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
 - 쌀 : NT\$ 63/1kg / - 계란 : NT\$ 63.3/1kg
 - 병원진료비 : NT\$ 1,000(의료보험 미적용), NT\$ 150(의료보험 적용)
 - 지하철 1구간 비용 : NT\$ 20
 - 아파트 월 임차료 : NT\$ 63,000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 통화

- New Taiwan Dollar(NT\$, TWD)
 - 1949년 6월 15일부터 발행 유통되고 있는 NT\$(台幣)는 지폐 5종, 주화 5종으로 구분되나 통용되는 화폐는 각 4종임
 - 지폐 : NT\$2000, NT\$1000, NT\$500, NT\$200, NT\$100
 - 주화 : NT\$50, NT\$20, NT\$10, NT\$5, NT\$1

□ 부동산

-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가 개선되고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개방으로 대만의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2008년도에 부동산업의 순위가 10위권에 진입

- 대만의 산업구조 중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 임(2011년 기준)

〈 부동산 산업 현황 〉

단위: NT\$ 억 달러, %

2009		2010		2011(잠정치)	
생산액	산업비중	생산액	산업비중	생산액	산업비중
11,391	9.17	11,705	8.6	11,927	8.67

자료 : 대만 행정원 주계처 (臺灣行政院主計處)

□ 정부예산 규모

- 2013년도 정부예산은 NT\$ 1조 7,302억 달러(한화 약 69.2조 원)로 2012년 대비 (NT\$ 1조 7,298억 달러) 약 NT\$ 4억 달러 증가(0.02% 인상)
- 비중이 가장 낮은 증권교역세와 정부 재산수입은 20%이상 줄었으나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9.3% 인상하여 전체 연간예산은 다소 증가 (영업세와 화물세 변동 없음)

〈 대만 정부예산 현황 〉

단위: NT\$

항목	2013		2012		비교	
	총액	%	총액	%	총액 (A-B)	증감%
	(A)		(B)			
합 계	17,302	100	17,298	100	4	0.02
1. 과세수입	12,803	74	12,501	72.3	302	2.4
- 소득세	6,944	40.1	6,351	36.7	593	9.3
- 영업세	1,812	10.5	1,812	10.5	0	0
- 화물세	1,536	8.9	1,536	8.9	0	0
- 증권교역세	964	5.6	1,265	7.3	-301	-23.8
2. 영업잉여및사업수입	2,533	14.6	2,614	15.1	-81	-3.1
3. 수수료및벌금수입	1,127	6.5	1,139	6.6	-12	-1
4. 재산수입	735	4.3	934	5.4	-199	-21.4
5. 기타수입	104	0.6	110	0.6	-6	-5.9

자료 : 대만 행정원 주계처 (臺灣行政院主計處)

2. 환율동향

□ 환율변화

- 2010년 외자 유입이 지속되며 미국달러 대비 환율 1:30 선 붕괴
- 2011년 미국 및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으로 다시 30선을 회복 하였으나 2012년 9월 미국의 QE3 (3차 양적완화 :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제도)의 실시로 4/4분기 29선대가 무너짐

〈 환율 변화 현황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1.23
NT\$ 32.86	NT\$ 32.03	NT\$ 30.36	NT\$ 30.29	NT\$ 28.79

자료 : 대만 은행(臺灣銀行)

□ 환율정책

- 1939~1979년 : 정부가 환율을 규정하는 법정고정환율제 실시
- 1979~1989년 : 중앙은행과 지정 5대 은행(臺灣銀行, 中國國際商業銀行, 第一商業銀行, 華南商業銀行, 彰化商業銀行)이 외환거래센터를 구성하여 외환수요에 따라 외환 매매가를 결정하는 변동환율제 실시(1979.2.1)
 - * 개정 원인 : 공업발달과 수출호황으로 외환수지가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발전하였고, 중앙은행이 외환매입을 위해 다량의 대만달러를 매각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 초래
- 1989년~현재 : 기존 지정은행의 매매환율 책정 조치를 폐지하고 은행 간 및 민간의 매매환율을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환율 자유화정책 실시(1989.4.3)
 - * 개정 원인 : 국제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잉여가 발생함에 따라 외환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

3. 무역현황 및 정책

□ FTA 추진전략

-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은 아프리카 4, 아시아 6, 중남미 12, 유럽 1개국으로 총 23개국임
 - 대만은 전체 우방국가 중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관계를 공고히며 경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파나마('03년 체결), 과테말라('05년 체결), 니카과라('06년 체결),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07년 체결)와 FTA를 체결하였음

- 2010년 6월 중국과 ECFA 체결 후 적극적으로 여타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세부내역 : 별첨 참조)
 - 2012년 3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FTA 체결에 관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빠르면 2012년 안으로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ASTEP)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됨
- 대만과 미국 간 무역투자협정(TIFA)
 - 2007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잠정 중단
 - 2012년 5월 TIFA 회담 재개를 위해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려고 하였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빠짐
 - 2012년 7월 대만 국회에서 결국 락토파민이 허용된 소고기 수입 허용(락토파민 잔류허용량 10ppb 이하)
 - 2012년 9월 기준, TIFA 회담 개시를 위하여 담당 관료들이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준비작업 진행 중

〈 대만의 우방국(총 23개국) 〉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팔라우 투발루 마셜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과테말라 파라과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벨리즈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도미니카 온두라스 파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란드 감비아	바티칸시국

자료 : 대만 외교부

- 대만기업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자, 양안관계 냉각 시 중국 진출 대만기업이 중국에서 받는 타격 완화,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및 향후 중국 제품의 미국, 유럽 간 무역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중남미에 눈을 돌리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FTA협정을 통하여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 통합 속도가 빨라 대만은 중남미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세계 각지로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12년 3월에 체결된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는 멕시코를 2012년 주요 목표시장에 포함하여 대만업체와 멕시코업체와의 전략적 협력 추진 등의 방법을 통해 미국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FTA 체결국 협정 내용 〉

국 가	발효일	내 용
파나마	2004.1.1	○ 협정 발효 즉시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
		- 파나마산 농·공산품 6,200개 항목(전체의 71%)
		- 대만산 농·공산품 4,160개 항목(전체의 48.49%)
		○ 10년 후 면세 적용 범위
		- 97%의 파나마산 제품과 95%의 대만산 제품
과테말라	2006.7.1	○ 협정 발효 즉시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
		- 과테말라산 농산품 644개 항목(전체의 41%)
		- 대만산 농산품 477개 항목(45.81%)
		- 대만산 공산품 3,509개 항목
니카라과	2007.6	○ 협정 발효 즉시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
		- 니카라과산 5,797개 항목(전체의 65.6%)
		- 대만산 3,374개 항목(전체의 51.1%)
		○ 15년 후 면세 적용 범위
		- 97.3%의 니카라과 제품과 95.1%의 대만 제품
엘살바도르	2008.3.1	○ 협정 발효 즉시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
		- 엘살바도르산 5,688개 항목(전체의 64.4%)
		- 대만산 3,590개 항목(전체의 57.1%)
		○ 10년 후의 면세 적용 범위
		- 93.1%의 엘살바도르 제품과 64.5%의 대만 제품
온두라스	2008.3.1	○ 협정 발효 즉시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
		- 온두라스산 6,135개 항목(전체의 69.4%)
		- 대만산 3,881개 항목(전체의 61.9%)
		○ 10년 후의 면세 적용 범위
		- 93%의 온두라스 제품과 70.3%의 대만 제품

자료 : 대만 경제부 무역국

□ 수출입동향

- 대만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대만의 2012년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11.9% 감소한 0.41%, 수입증가율은 12.25% 감소한 -0.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는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와 3분기까지의 높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수출규모는 대만 사상 최초로 3,000억 달러 돌파
- 2012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3,095억 달러(0.41%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올해 역시 수출 3,0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만 수출입 현황 〉

단위: US\$ 억, %

연도	무역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8	4,961	6.5	2,556	3.6	2,404	9.7	152	-44.6
2009	3,780	-23.8	2,037	-20.3	1,744	-27.5	293	93.0
2010	5,260	39.1	2,746	34.8	2,514	44.2	232	-20.7
2011	5,899	12.1	3,083	12.3	2,816	12.0	267	15.1
2012(f)	5,902	0.1	3,095	0.41	2,807	-0.25	288	8.6

자료 : 대만 행정원 주계처

- 2012년 상반기 대만의 주요 수출 국가를 살펴보면, 대 아세안 4개국(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약 5% 성장하여 대만의 상반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됨
- 2012년 상반기 특히 대미 수출이 14%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8% 가량 감소하였음
- 특히 대만은 3분기 연속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40%를 밑돌고 있어 대중 수출이 점차 둔화되는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대만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인하여 2012년부터 조기자유화품목의 95%가 무관세화 되었기 때문에 2012년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럽재정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ECFA로 인한 뚜렷한 대중 수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와 반대로 대 아세안 6개국 수출은 매년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출 비중의 18%를 차지하였음
- 한국은 대만의 6대 수출대상국으로서 2011년 대만 수출총액 비중의 4%를 차지하고 있음

〈 대만 상위 10대 수출국 〉

단위: US\$ 억, %

순위	국가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전체		2,746	100.0	34.8	3,082	100.0	12.3
1	중국	769	28.0	41.8	839	27.2	9.1
2	홍콩	378	13.8	28.4	401	13.0	6.0
3	미국	315	11.5	33.6	364	11.8	15.6
4	일본	180	6.6	24.2	182	5.9	1.2
5	싱가포르	121	4.4	40.4	169	5.5	39.5
★6	한국	107	3.9	46.3	124	4.0	15.9
7	베트남	75	2.7	25.8	90	2.9	19.8
8	필리핀	60	2.2	35.0	69	2.3	16.4
9	말레이시아	59	2.2	46.5	69	2.2	15.9
10	독일	65	2.4	38.7	68	2.2	5.5

자료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2011년 수출액 기준 순위)

〈 대만 상위 10대 수입국 〉

단위: US\$ 억, %

순위	국가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전체		2,514	100.0	44.2	2,814	100.0	12.0
1	일본	519	20.7	43.4	522	18.5	0.5
2	중국	360	14.3	47.2	436	15.5	21.3
3	미국	254	10.1	39.8	258	9.2	1.5
★4	한국	161	6.4	52.8	179	6.3	11.2
5	사우디아라비아	119	4.7	37.2	138	4.9	16.8
6	호주	89	3.6	49.8	109	3.9	22.3
7	독일	83	3.3	45.7	94	3.4	14.1
8	말레이시아	77	3.1	69.5	86	3.1	11.8
9	싱가포르	76	3.0	58.9	79	2.8	4.2
10	쿠웨이트	61	2.4	34.6	77	2.7	25.6

자료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2011년 수입액 기준 순위)

□ 「2012 수출진흥정책-용승계획(101振興出口調整措施-龍勝計劃)」

- 대만 행정원 무역국(臺灣行政院貿易局)은 금년 수출진흥정책을 「용승계획(龍勝計劃)」으로 이름 짓고 ‘용이 승리하듯 중화(中華)가 창성한다’를 목표로 정하고 수출진흥정책을 시행
- 무역금융지원 확대 제공
 - 수출용자 한도 혜택확대 : NT\$ 50억 달러였던 용자 한도를 「수출 강화 대출」을 통해 NT\$ 80억 달러로 확대
 - 수출보험 혜택확대 :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체에 수출보험 혜택 비용을 기존 NT\$ 5천 만 달러에서 NT\$ 1.5억 달러로 확대
- 바이어의 대만 방문 초청
 - 대규모 전시회가 없는 기간에도 ‘아시아 협력 상업기회정보 공유회’, ‘미국 상업 기회일’ 등 활동을 개최해 많은 바이어들이 대만에 방문하도록 초청행사 추진
 - 국내 중요 전시회 외에 2,350개 기업체의 대만 참관 방문을 계획
- 적극적인 해외 전시회 참가로 해외 판로 개척
 - 2012년 6~12월까지 70여개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토록 기획추진
 - 경제부 등 정부 고위층 관료가 직접 대만업체를 이끌고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 수출상담회와 기자회견, 신제품 발표회 등 시장개척활동 전개

※ 용승계획(龍勝計劃)의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The screenshot shows the Taiwan Trade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Taiwan Trade logo and the text '台灣經貿網 十年有誠'.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list of menu item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for the 'Dragon Plan' (龍勝計劃) with a dragon illustration and the text '101振興出口調整措施 龍勝計劃'. Below the banner, there is a list of experts and a brief description of the plan's goals for 2012.

<http://www.taiwantrade.com.tw/CH/resources/MAIN/TC/S2/promo/Dragon/2012Dragon.jsp>

1. 주재국 농업현황

□ 대내외 환경변화

- 대내 변화 : 급속히 발전하는 한국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개방과 발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미국을 제치고 신흥 강대국이 되어가는 중국 등의 주변 국가와의 상호협력 여론이 강해지면서 대부분의 산업 및 농식품 분야에서 해외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 대외 변화
 - ECFA 협정으로 자국이 보호하고자 하는 농식품의 수입은 금지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마잉주(馬英九) 총통 및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만의 농식품 분야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
 - 「대만·미국 무역 및 투자협정」(TIFA)을 회복시키기 위해 락토파민 (Ractopamine : 체지방을 줄이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이 함유된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월부터 시행
 - 이렇듯 대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높아지며 농식품 분야에서도 자생의 필요성과 수출확대에 눈을 뜨고 있음

□ 주요 농업지표

- 국내 총생산(GDP) 및 경제 성장률

단위: NT\$ 백만 불, %

연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국가전체 금액	농업		국가전체	농업
		금액	백분율		
2007	12,910,511	191,621	1.49	5.98	-2.42
2008	12,620,150	201,799	1.60	0.73	0.10
2009	12,481,093	215,250	1.73	-1.81	-3.00
2010	13,614,221	223,659	1.64	10.72	1.19
2011	13,745,010	240,526	1.75	4.03	2.69

자료 : 농업위원회 농업 통계연감 (農委會農業統計年鑒)

○ 농가 인구

단위: 호, 명, %

연도	국가전체		농업가구			
	가구	인구	가구	비율	인구	비율
2006	7,364,396	22,790,250	756,366	10.27	3,232,592	14.18
2007	7,481,207	22,866,867	751,338	10.04	3,050,483	13.34
2008	7,623,793	22,942,706	748,276	9.82	3,027,627	13.20
2009	7,772,091	23,016,050	744,147	9.57	2,983,560	12.96
2010	7,902,440	23,054,815	776,725	9.83	2,961,739	12.85

자료 : 농업위원회 농업 통계연감 (農委會農業統計年鑒)

○ 생산 면적 및 생산액

단위: Ha, NT\$ 천불

지역명	2009		2010		2011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계	815,462	178,817,249	813,126	187,935,751	808,294	209,776,414
타이베이시(臺北市)	3,311	465,912	3,221	429,665	3,221	455,005
신베이시(新北市)	31,111	2,133,326	31,094	2,311,533	29,872	2,325,148
찌룽시(基隆市)	735	65,520	735	26,800	735	28,398
이란현(宜蘭縣)	26,987	4,406,731	27,140	4,626,542	26,557	4,836,664
타오위엔현(桃園縣)	37,375	3,753,119	37,188	3,686,140	36,953	4,154,477
마오리현(苗栗縣)	33,827	6,459,526	33,352	7,284,871	33,444	8,069,966
신주현/시(新竹縣/市)	31,409	3,194,124	31,139	3,296,009	31,099	3,625,668
타이쑹현/시(臺中縣/市)	51,536	18,440,776	51,141	19,560,069	50,919	23,042,166
짱화현(彰化縣)	63,548	19,347,374	63,427	20,422,547	62,526	22,814,613
난터우현(南投縣)	65,671	20,912,395	65,508	21,468,811	65,502	21,662,742
원린현(雲林縣)	80,429	26,351,117	80,850	28,198,435	80,853	30,789,389
짜이현/시(嘉義縣/市)	76,042	15,372,139	76,259	16,279,184	75,919	19,220,187
타이난현/시(臺南縣/市)	94,959	19,664,465	94,476	18,374,332	94,242	23,474,045
핑둥현(屏東縣)	71,494	15,877,706	71,093	18,858,210	70,759	20,526,304
타이동현(臺東縣)	47,845	7,317,666	47,293	7,928,276	47,189	8,361,950
화례엔현(花蓮縣)	45,419	4,546,707	45,390	4,971,120	45,392	5,382,402
핑후현(澎湖縣)	5,683	79,483	5,683	84,934	5,684	100,136
카오송현/시(高雄縣/市)	48,079	10,429,163	48,137	10,128,273	47,427	10,907,153

자료 : 농업위원회 농업 통계연감 (農委會農業統計年鑒)

○ 농가 소득

단위: NT\$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총소득	941,160	937,053	917,705	872,668	884,547
1인평균소득	246,377	256,025	247,350	239,744	248,468

자료 : 농업위원회 농업 통계연감 (農委會農業統計年鑒)

□ 농업정책 기본방향

- 「건강, 효율, 영속경영」을 농업정책 기본 방침으로 삼고 「전국민 농업정책(全民農業)」을 실시하여 대만의 농업에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며 현재의 소비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과 지구의 자연 생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목표

대 농민	: 이윤, 효율, 복지(利潤、效率、好福利)
대 소비자	: 신선, 품질, 건강한 먹거리(新鮮、品質、食健康)
대 환경	: 경관, 에너지 절약, 영속(景觀、節能、保永續)
대 후손	: 정토(깨끗한 세상), 시장, 과학기술(淨土、市場、高科技)
대 지구	: 책임, 화해, 그린 에너지(責任、和諧、高綠能)

- 양안간의 합리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
-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방식을 통한 대만산 농산물의 내수소비 증진
- 대만산 농산물의 수출 증진
- 농촌 살리기, 농민 복리 증진, 농촌에 새로운 생명력 창조

□ 주요 농업 정책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대만과 중국 양안간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마늘 등 관세쿼터품목 및 대만이 생산하는 주요 농산품 8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산의 수입제한조치 지속
 - 중국으로 수출되어 10~15%의 관세를 적용받던 냉동생선, 바나나, 레몬 등 16개 농산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무관세 수출 합의

〈 2012년 무관세 수출 합의 품목 〉

품 목 명	관 세	
	기존	2012.1.1 이후
냉동 콩치 등 냉동 생선, 온시덤(Oncidium) 난초 등 생화, 바나나	10%	○
귤, 레몬	11%	
우럭바리 등 활어, 멜론	12%	
팽이버섯	13%	
녹차, 홍차, 우롱차	15%	

자료 : 대만 경제부(經濟部)

- 소지주 대소작인 정책(小地主大佃農政策)
 - 경작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지주들의 농지를 정부가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인(소작인)에게 장기임대해 주는 정책
 - 농업 노동연령의 연소화 장려와 연로한 지주가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농지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는 또한 농업경영인(소작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농업설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농업 생산원가 절감과 농업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이 이 정책의 목적임
- 안전 농산물 표시제도
 - 1993년부터 “지웬푸(吉園圃)”로 시작된 대만의 안전농산물 표시제도는 2006년 “CAS”로 이름을 통일함
 - 2007년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에 의거,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CAS” 안전 농산물 표시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 2008년 “대만 안전 채소·과일 지웬푸(吉園圃)”가 부활하고 기존의 CAS는 “대만 우량 농산물 CAS”로 변경됨



지웬푸(吉園圃) : 대만 안전 채소·과일

CAS : 대만 우수 농산물

- 농량서, 농업 약물 독극물 실험소, 각 지역의 농업 개량장 및 각 현시(縣市) 정부에서 대만 안전 채소·과일 지원푸(吉園圃) 마크 신청 및 검사 방법 등에 대해 지도·관리
- 자연재해 피해 과수농가 지원제도
 - 「농업발전조례(農業發展條例)」 제 60조 : 농업생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는 현금보조와 저리대출로 농민들이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자연재해 구조방법(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규정의 지원항목 기준에 따라 재해 농가를 지원함
 - 지원방법 : 현금보조, 저리대출
 - 지원대상 : 제 5조 규정에 따라 농(農), 임(林), 어(漁), 축(牧)산업 농가 중 합법적으로 토지, 수원, 설비를 사용하는 자연인
 - 신청절차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台灣行政院農委會)에서 공고한 자연재해 지원 지역에 포함된 피해 농민이 10일 내 해당 지역의 관공서에 신청
 - 제출서류 : 피해농민의 신분증, 농어회(農漁會) 계좌 및 인감, 토지 소유권 증명 및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임차농가의 경우 유효기간 내의 토지 위탁경영 혹은 임대차 계약서
 - 현장답사 : 해당 관공서의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20% 이상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항목기준에 따라 지원 실시
 - 과수농가 지원 항목 기준

단위: NT\$/1ha

상세 품목	지원액
(1) 개량종 망고, 수밀도(水蜜桃), 포도, 배, 사과, 비파, 단감, 왁스애플 (Syzygium samarangense), 인도대추(대형 대추), 딸기, 석가(석가 머리 모양의 과일), 여지(신품종 포함)	90,000
(2)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구아바, 파파야, 유자, 대추, 뽕강(꼭지 부분이 돌출된 대만산 밀감), 단강(밀감에 오렌지를 교배한 종), 레몬, 아보카도, 복숭아, 용과, 자몽, 참외, 멜론, 망고(개량종 망고 이외), 카람볼라(새콤하고 단맛이 나는 별 모양의 열대성 과일), 하이리강 (Citrus tankan Hayata, 밀감의 일종), 발렌시아(VALENCIA, 밀감의 일종), 온주귤(귤과, 보통 귤이라고 하면 온주 귤을 가리킴), 패션푸르트(passionfruit), 금귤	70,000
(3) 검은 잎 여지, 용안(龍眼), 자두, 매실, 감(단감 외), 올리브, 바라밀 (과육이 노랗고 바나나 향이 남), 수박 및 기타 과수 등	60,000

자료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台灣行政院農委會)

□ 농가소득 변화

- 2010년 기준 1농가당 평균 농가소득은 약 NT\$ 88.5만 달러(한화 35.4 백만 원)임
- 이는 10년 전인 2000년도보다 약 NT\$ 3.3만 달러(한화 132만 원)이 줄어든 금액임
- 이에 반해 비농가소득은 2010년 기준 약 NT\$114.2만 달러(한화 약45.7백만 원)으로 농가소득에 비해 약 NT\$25.8만 달러(한화 1,032만원)이 많음

단위: NT\$

연 도	1농가당 평균 농가소득	1인당 평균 농가소득	비농가 소득	
			1호당 평균	인당 평균
1990	503,830	108,118	651,845	158,987
2000	917,623	226,016	1,166,870	327,772
2010	884,547	248,468	1,142,343	353,667

자료 : 농업위원회 농업 통계연감 (農委會農業統計年鑒)

2. 농식품 무역동향

가. 농식품 수출입동향

□ 수입동향

- 전체 수입 현황
- 매년 약 US\$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며, 2010년 US\$ 128억 달러, 2011년 약 US\$ 148억 달러로 매년 16~28%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농식품 전체 수입 현황 〉

단위: 톤, US\$ 천불

2009		2010		2011		201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6,620,615	10,046,257	18,571,683	12,759,852	17,656,121	14,842,035	14,688,601	11,998,800

자료 :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

단위: US\$ 천불

순위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10
1	미국	3,236,078	3,646,505	3,996,861	2,690,706
2	브라질	514,641	905,988	1,135,899	1,279,496
3	일본	683,179	770,645	832,588	715,312
4	태국	577,426	707,340	896,967	701,230
5	호주	593,207	821,650	956,188	725,521
6	중국	549,460	661,680	791,848	669,303
7	말레이시아	504,697	751,639	795,814	604,088
8	뉴질랜드	385,506	525,151	632,752	524,598
9	베트남	265,393	371,072	470,677	394,804
10	아르헨티나	-	263,572	187,958	326,015
11	인도네시아	287,677	383,569	474,219	338,541
12	인도	185,278	226,405	321,435	288,892
13	프랑스	223,438	266,870	347,959	278,038
14	영국	184,185	241,617	326,445	269,081
15	캐나다	267,138	322,628	340,560	260,190
16	폴란드	172,381	210,870	238,404	222,142
17	칠레	124,075	146,563	172,233	165,555
★18	대한민국	114,549	155,966	178,090	148,059
19	독일	113,737	132,529	132,859	115,319
20	이탈리아	74,562	94,775	120,012	85,138

자료 :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 매년 미국에서 약 US\$ 30억 달러 이상이 수입되고 있어 주요 수입국 중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비중은 약 30% 이상임
- 2011년 한국산 수입액은 약 US\$ 1.8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가 중 18위에 그쳤지만, 일본의 수입액은 약 US\$ 8.3억 달러로 3위를 차지

○ 품목별 수입 현황

- 2011년 기준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US\$ 13억 달러 이상 수입되고 있고, 매년 부동(不動)의 1,2위 품목임
- 옥수수와 대두 외에 소맥(小麥), 쌀, 곡류 제조품 등 곡류 수입이 많은 편임

〈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톤, US\$ 천불

품 목	2009		2010		2011		201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옥수수, 곡류	4,592,378	951,502	5,007,535	1,230,153	4,148,345	1,382,445	3,484,478	1,113,840
대두	2,359,279	1,027,713	2,542,764	1,185,366	2,339,451	1,302,560	1,842,578	1,109,265
담배	18,519	436,643	18,914	486,408	14,968	491,170	12,124	422,258
소맥	1,237,825	366,937	1,138,159	344,370	1,360,684	586,455	1,144,069	405,493
숨	217,411	265,322	243,109	428,411	209,624	567,202	188,401	353,375
굵은 정제당	570,527	234,869	524,917	309,703	528,101	388,991	448,083	271,927
종려유	152,555	112,692	169,319	150,405	160,682	190,083	146,650	160,926
사과(신선,냉장)	122,991	124,646	135,640	151,356	136,698	144,709	101,506	119,796
곡류 제조품	83,155	118,523	93,892	129,109	92,145	138,976	70,706	119,910
고구마 전분	290,678	76,960	227,365	103,480	8,989	4,843	270,195	118,288
쌀	86,583	52,349	154,570	106,369	111,636	83,355	119,406	78,465
감자	88,936	72,738	97,317	89,831	67,817	82,093	83,308	88,826
식용유	40,574	56,390	47,419	72,522	52,332	100,356	45,316	80,205
곡류 제조품	22,914	67,145	25,169	80,315	27,421	93,625	23,834	89,624
체리-신선,냉장	12,229	63,466	8,769	56,459	12,058	80,969	14,650	83,534
생커피	11,608	31,821	15,927	49,913	15,299	73,156	13,097	59,430
커피,기타제조품	6,602	39,566	7,198	41,034	8,269	54,387	6,638	44,759
키위-신선,냉장	24,548	30,586	26,550	36,122	29,639	49,502	32,863	63,148
초콜릿 제조품	7,344	50,673	9,879	67,312	11,466	81,982	6,192	50,900
기타 과일	34,350	36,540	30,711	41,975	30,901	45,356	28,253	46,763

자료 :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 수출 현황

○ 전체 수출 현황

- 2011년 기준 US\$ 46.7억 달러가 수출되어 수입액(US\$ 148억 달러) 대비 약 32%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만이 수입의존도가 큰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수출 현황 〉

단위: 톤, US\$ 천불

2009		2010		2011		201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579,820	3,208,113	1,741,514	4,021,514	1,794,847	4,668,302	1,550,135	4,203,486

자료 :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 국가별 수출 현황

- 2011년 기준 일본으로 수출된 금액이 약 US\$ 10억 달러, 뒤이어 중국과 홍콩이 매년 2~3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으로 매년 약 US\$ 1~1.5억 달러가 수출되어 7~8위에 위치함

〈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

단위: US\$ 천불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10
일본	702,502	909,272	1,020,142	903,334
중국	364,084	532,524	670,235	631,894
홍콩	392,741	457,857	470,720	422,828
미국	365,257	400,763	450,933	394,927
베트남	281,114	330,536	372,599	292,201
태국	196,779	199,865	277,408	270,219
★대한민국	105,038	149,860	157,865	154,849
인도네시아	60,011	182,167	230,720	160,198
필리핀	71,686	77,284	75,259	88,373
말레이시아	75,907	85,658	110,285	94,934
싱가폴	63,028	81,173	99,635	77,082
호주	54,608	67,715	77,849	71,617
캐나다	60,498	70,035	68,263	60,567
독일	28,268	29,184	32,376	44,618
피지 군도	-	22,972	50,091	59,847
캄보디아	-	32,537	41,365	44,795
폴란드	28,785	34,921	45,497	43,001
모리스 공화국	-	-	32,037	32,399
남 아프리카	17,001	17,276	26,829	30,256
이탈리아	25,822	19,960	21,878	20,374

자료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台灣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 일본, 중국, 홍콩,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 주로 수출되고 있음
- 2011년 기준 일본으로 수출된 금액이 약 US\$ 10억 달러, 뒤이어 중국과 홍콩이 매년 2~3위를 차지하고 있음
- 품목별 수출 현황
 - 망고, 바나나, 기타 신선 냉동 과일, 과일 주스 등 주로 과일류의 수출이 주를 이룸
 - 옥수수과 대두 등 곡류를 주로 수입하는 대만에서 유일하게 청대콩(毛豆/냉동)은 매년 약 3만 톤, 금액으로 US\$ 5천만~6천만 달러가 수출되고 있음

〈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톤, US\$ 천불

품목	2009		2010		2011		201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제조품	13,150	52,637	18,876	75,508	23,293	100,357	48,898	192,112
청대콩(毛豆/냉동)	25,916	48,509	28,446	53,315	30,557	60,920	29,143	60,058
기타 과일 주스	25,299	27,996	33,550	41,719	32,824	45,333	34,347	52,310
밀가루 제조품	12,954	30,945	14,581	34,066	15,701	41,788	15,500	44,357
담배	1,711	25,337	1,587	24,374	2,674	38,638	2,323	40,146
식용유	7,806	22,387	9,899	28,577	12,045	34,261	9,913	31,930
기타 곡류 제조품	6,035	18,298	8,243	27,483	7,746	32,765	6,828	31,463
기타 과일 제조품	8,672	17,157	12,604	24,976	12,166	29,245	7,222	22,945
기타신선,냉장과일	7,727	11,335	10,474	16,595	11,701	18,162	9,827	18,385
가공 담배잎	0.39	3	1,719	9,335	1,884	11,914	1,501	20,396
발효 차	1,660	14,272	1,780	16,998	2,041	23,714	1,765	20,958
설탕 식품류	5,271	17,648	7,024	24,390	6,565	28,653	5,678	8,052
커피 기타 가공품	13,306	17,410	13,898	18,493	15,394	20,791	15,019	19,567
기타 채소 주스	8,868	7,649	15,732	11,951	19,187	14,371	21,406	15,349
쌀	5,295	14,096	5,657	15,310	5,631	17,068	5,035	16,611
망고-신선,냉장	4,539	9,845	4,699	11,924	4,382	14,718	2,357	11,372
기타 채소 제조품	4,426	12,650	4,141	12,569	4,385	15,342	4,344	15,317
대두유	10,327	10,729	10,055	11,200	13,724	19,603	8,776	13,432
바나나-신선,냉장	8,885	12,647	11,302	13,417	10,284	13,648	8,759	11,341
기타 신선,냉장채소	7,225	6,793	6,534	6,485	11,274	12,539	6,460	8,102

자료 :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나. 한국과의 농식품 수출입 동향

□ 수입 현황

- 2011년 기준 홍삼과 백삼의 수입액이 US\$ 27백만 달러로 가장 많음
 - 2009년과 2010년 약 US\$ 12백만~14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US\$ 27백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과다수출과 가격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임
- 한국의 독점품목인 배의 수입액은 매년 US\$ 12~13.6백만 달러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태풍영향에 따른 수출물량 부족 및 품질저하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물량으로는 옥수수 전분이 2010년 3.6만 톤, 2011년 1.2만 톤으로 가장 많음

〈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

단위: 톤, US\$ 천불

품 목	2009		2010		2011		201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49,945	69,518	74,135	87,098	43,889	88,273	35,172	73,899
홍·백삼	58	12,452	65	13,802	110	26,990	74	12,506
담배	203	3,373	273	4,510	556	8,909	1,124	14,591
곡류 제조품	2,385	7,175	2,627	8,083	2,550	8,716	1,985	8,151
배	9,650	12,575	9,269	13,590	8,857	12,229	4,986	7,170
숨	-	-	-	-	-	-	4,208	6,219
밀가루 제조품	1,634	3,006	1,780	3,197	2,086	4,204	2,065	5,620
배추	5,309	2,306	1,907	899	5,994	1,773	6,232	2,809
기타 곡류 제조품	849	1,492	1,011	1,925	1,031	2,213	874	2,144
양배추	4,601	2,069	1,099	378	3,006	766	6,100	1,807
커피 제조품	939	5,281	278	2,818	235	2,667	168	2,081
건조 표고	26	355	97	1,465	93	1,433	98	1,463
기타 밀감 제조품	1,229	2,615	1,206	2,598	1,165	2,665	864	1,947
사과	7,135	7,897	6,563	9,689	2,490	3,459	396	1,276
배추 제조품	733	1,159	852	1,371	895	1,505	853	1,360
옥수수 전분	4,381	1,570	35,746	14,693	11,898	5,912	3,546	1,774
기타 신선 냉장 채소	1,769	1,852	70	174	604	826	825	1,029
건조 과일	259	655	277	683	331	871	300	779
글루텐, 곡류제조품	6	10	288	451	542	828	339	506
차잎, 기타제조품	0.19	2	0.23	4	0.47	7	59	376
사탕 및 제조품	695	577	5,865	3,833	548	812	339	512

자료 :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 수출 현황

- 과일주스의 수출이 2010년부터 급증해 2011년 US\$ 6백만 달러가 넘어 대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중 1위를 차지함
- 과일 주스 외에 자몽 주스, 포도 주스, 망고, 과일 제조품, 밀감류 제조품 등 과일류 위주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음

〈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톤, US\$ 천불

품목	2009		2010		2011		201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3,322	7,513	4,452	13,947	5,435	20,211	6,517	27,616
기타 과일 주스	735	1,851	1,303	5,598	1,424	6,237	1,289	5,981
곡류 제조품	287	1,250	595	2,490	1,274	6,020	2,419	11,208
망고-신선, 냉장	415	1,609	541	2,553	524	3,079	417	2,597
쌀	6	12	6	12	14	31	350	1,904
자몽, 주스	166	431	150	487	351	1,023	371	1,135
기타 과일 제조품	395	563	491	636	638	1,115	100	1,246
설탕 및 제조품	918	818	1,014	1,141	668	989	717	1,055
기타 밀감류 제조품	287	737	285	784	306	1,000	267	775
팥 및 제조품	-	-	-	-	0.05	0.10	75	259
포도, 주스	5	10	-	-	19	64	66	445
코코아 및 제조품	1	9	5	11	54	167	90	283
고구마 전분	21	34	22	45	15	23	141	263
기타 야채 주스	-	-	-	-	6	6	59	60
커피 가공품	-	-	-	-	11	148	10	75
수박씨	-	-	0.01	9	-	-	0.03	49
기타 신선 고구마류	-	-	-	-	60	54	59	42
기타 전분류	4	5	4	8	23	71	59	60
발효 차	6	63	3	38	2	40	2	30
기타 버섯류 제조품	2	12	4	30	3	23	3	24
기타 향신료	1	6	2	17	3	21	3	24
기타 채소 제조품	0.23	1	-	-	4	14	4	28
고구마류 제조품	8	18	-	-	5	12	8	18
커피, 기타제품	2	6	10	26	27	47	6	20
설탕으로 만든 식품	1	4	11	55	4	30	2	35

자료 :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무역 통계(行政院農委會 農業貿易統計)

3. 관세현황

가. 대만 관세 개요

□ 과세 범위

- 국외에서 대만으로 수입된 화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대만에서 수출되는 화물 혹은 대만의 항구 및 공항을 경유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대만의 관세는 세관 수입세칙 규정의 화물종류와 적용세율에 의거하여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종가세의 규정은 공평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화물단가의 평가가 어렵고 납세 쌍방 간의 쟁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커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16개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적용하고 종량세를 시행하고 있음
 - 수입 쿼터제 적용 농산물 : 식용쌀, 바나나, 녹용, 동양배, 팔, 우유(액체 타입), 땅콩, 마늘, 건표고, 건팽이, 야자, 빈랑, 파인애플, 망고, 유자, 용안과육

□ 평균 관세율

- 2011년 대만의 평균 관세율은 5.89%로 전년대비 0.04% 상승한 가운데 농산품의 평균 명목 관세율은 13.88%임
- 평균 실질관세율(상품별 관세의 세수입에 수입금액을 제하여 산출)은 1.2% 수준으로 농산품의 평균 실질 관세율은 8.16%임 (2009년 기준)

〈 최근 3개년 평균 명목 관세율 〉

연도	전체품목	농산품
2009년	5.71%	13.73%
2010년	5.85%	13.88%
2011년	5.89%	13.88%

자료 : 대만 재정부 관정사(財政部關政司)

□ 관세율의 종류

- 제1란(Column I) : 152개의 세계 무역 기구(WTO) 회원가입국 및 대만과 호혜 대우관계를 체결한 37개국의 수입품에 적용함 (대한민국 적용 관세율)
- 제2란(Column II) : 대만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저개발국가-Least Developed Countries)
- 제3란(Column III) : 제1란(Column I), 제2란(Column II)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품

나. 주요 부류별 관세율

채소류

구 분	제1란 (Column I)	제2란 (Column II)	제3란 (Column III)
배추(신선, 냉장)	20%	10.6%(GT), 3.3%(HN) 13.3%(NI), 2%(PA), 13.3%(SV)	40%
양배추(신선, 냉장)	20%	10.6%(GT), 3.3%(HN) 13.3%(NI), 2%(PA), 13.3%(SV)	4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5%	13.3%(GT), 16.6%(HN) 12.5%(NI), 2.5%(PA), 16.6%(SV)	50%
양파(신선, 냉장)	25%	7.5%(GT), 12.5%(HN) 0%(NI), 25%(PA), 12.5%(SV)	42.5%
고추류 (파쇄 또는 분쇄한것)	20%	6%(GT), 10%(HN) 13.3%(NI), 2%(PA), 10%(SV)	36%
팽이버섯(신선/냉장)	24%	12.8%(GT), 16%(HN) 16%(NI), 2.4%(PA), 16%(SV)	50%
표고버섯(건조)	NT\$369/Kg	NT\$369/Kg(GT), T\$369/Kg(HN) NT\$369/Kg(NI), NT\$369/Kg(PA) NT\$369/Kg(SV)	NT\$434/Kg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과일류

구 분	제1란 (Column I)	제2란 (Column II)	제3란 (Column III)
사과 (신선)	20%	10.6%(GT), 13.3%(HN), 13.3%(NI), 0%(PA), 13.3%(SV)	50%
배 (신선)	NT\$49/Kg	NT\$49/Kg(GT), NT\$49/Kg(HN) NT\$49/Kg(NI), NT\$49/Kg(PA) NT\$49/Kg(SV)	NT\$58/Kg
멜론 (기타/신선)	25%	0%(GT), 0%(HN) 0%(NI), 0%(PA), 0%(SV)	50%
딸기 (신선)	20%	6%(GT), 10%(HN) 10%(NI), 2%(PA), 10%(SV)	40%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 가공품

구 분	제1란 (Column I)	제2란 (Column II)	제3란 (Column III)
고추장	12%	3.9%(GT), 6.3%(HN) 6.9%(NI), 0%(PA), 6.3%(SV)	25%
커피크리머	10%	0%(GT), 0%(HN) 0%(NI), 0%(PA), 0%(SV)	25%
인스턴트커피	2%	0%(GT), 0%(HN), 0%(LDCs), 0%(NI), 0%(PA), 0%(SV)	12.5%
맥주	0%	0%(GT), 0%(HN) 0%(NI), 0%(PA), 0%(SV)	50%
파이와 케이크	17.5%	17.5%(GT), 17.5%(HN) 10%(NI), 17.5%(PA), 17.5%(SV)	3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25%	7.5%(GT), 12.5%(HN) 0%(NI), 25%(PA), 12.5%(SV)	40%
라면	20%	6.6%(GT), 10.5%(HN) 14.6%(NI), 2.2%(PA), 10.5%(SV)	35%
조제품 기타	30%	16%(GT), 20%(HN) 20%(NI), 3%(PA), 20%(SV)	50%
아이스크림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이외 기타)	5%	0%(GT), 0%(HN) 0%(NI), 0%(PA), 0%(SV)	27.5%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	0%	0%(GT), 0%(HN) 0%(NI), 0%(PA), 0%(SV)	0%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10%	3%(GT), 5%(HN) 0%(NI), 0%(PA), 5%(SV)	35%
	20%	20%(GT), 20%(HN) 20%(NI), 0%(PA), 20%(SV)	95%
조제분유 (유아용/소매용)	5%	0%(GT), 0%(HN), 0%(NI), 0%(PA), 0%(SV)	7.50%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 인삼류

구 분	제1란 (Column I)	제2란 (Column II)	제3란 (Column III)
백삼(본삼/major roots, white ginseng)	1.5%	0%(GT), 0%(HN) 0%(NI), 0%(PA) 0%(SV)	7.5%
홍삼(본삼/major root, red ginseng)	1.5%	0%(GT), 0%(HN) 0%(NI), 0%(PA), 0%(SV)	7.5%
길림 인삼	5%	0%(GT), 0%(HN) 0%(NI), 0%(PA), 0%(SV)	7.5%
일본 홍삼	5%	0%(GT), 0%(HN) 0%(NI), 0%(PA), 0%(SV)	7.5%
泡參 (American ginseng)	0%	0%(GT), 0%(HN) 0%(NI), 0%(PA), 0%(SV)	6.25%
기타 인삼근	5%	0%(GT), 0%(HN) 0%(NI), 0%(PA), 0%(SV)	7.5%
인삼음료	10%	3%(GT), 5%(HN) 5%(NI), 1%(PA), 5%(SV)	12.5%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 수산물

구 분	제1란 (Column I)	제2란 (Column II)	제3란 (Column III)
오징어(냉동)	NT\$15/Kg	NT\$4.5/Kg(GT), NT\$7.5/Kg(HN) 0%(NI), 0%(PA), NT\$7.5/Kg(SV)	NT\$15/Kg 혹은 50% 높은 것으로 징수
조미오징어	40%	21.3%(GT), 26.6%(HN) 26.6%(NI), 4%(PA), 26.6%(SV)	42.5%
기타 굴(냉동한 것)	20%	6.3%(GT), 10.2%(HN) 10.7%(NI), 2.2%(PA), 10.2%(SV)	42.50%
기타 굴(건조한 것)	NT\$50/Kg 혹은 25% 높은 것으로 징수	NT\$28.8/Kg혹14.4%(GT) NT\$34.6/Kg혹17.3%(HN) NT\$28/Kg혹14%(NI) NT\$5.8/Kg혹2.9%(PA) NT\$34.6/Kg혹17.3%(SV)	NT\$90/Kg 혹은 45% 높은것으로 징수
김	25%	13.3%(GT), 16.6%(HN) 12.5%(NI), 2.5%(PA), 16.6%(SV)	50%
건조 김	10%	0%(GT), 0%(HN) 0%(NI), 0%(PA), 0%(SV)	15%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육류

구 분	제1란 (Column I)	제2란 (Column II)	제3란 (Column III)
소고기(냉동)	30%	18.1%(GT), 16%(HN) 0%(NI), 0%(PA), 21.3%(SV)	50%
돼지고기(냉동)	35%	18.6%(GT), 23.3%(HN) 23.3%(NI), 0%(PA), 23.3%(SV)	50%
닭고기(냉동)	20%	20%(GT), 20%(HN) 20%(NI), 20%(PA), 20%(SV)	95%
오리고기(냉동)	30%	16%(GT), 20%(HN) 20%(NI), 3%(PA), 20%(SV)	45%

자료 : 대만 관세총국(臺灣關稅總局)

4. 동식물 검역제도

가. 동물 검역제도

법적근거

-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검역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2007년 2월 2일 수정
 - 「상품 검역법 및 시행세칙(商品檢驗法及其施行細則)」
 - 「동물 전염병 방지 및 시행세칙(動物傳染病防治條例及其施行細則)」
 - 「동물 전염병 비검역 구역 및 검역구역 국가 혹은 구역(動物傳染病非疫區及疫區之國家(地區))」

검역 규정

- 동물 및 동물제품 중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므로 폐기하거나 발송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건부 수입동물 및 동물제품은 수출국가의 수출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원본)를 제출하고, 자국의 검역 조건에 부합됨이 확인 된 후 수입 허가함
-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검역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 수입금지 동물 및 동물제품 : 광우병 발생 및 질병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소고기, 고기가루, 소뼈 등
 - 격리검역 실시 동물 및 동물제품 : 일반 소, 양, 돼지 등 대부분의 수입동물 및 동물제품이 수입 후 지정된 동물 격리 검역장에서 격리검역 실시
 - 조건부 수입동물 및 동물제품 : 검역이 필요없는 지역에서 수입된 소, 양, 돼지 등의 동물 및 동물 제품과 훈연 등의 가공을 실시한 고기제품 등

「동물 및 동물제품 수입 검역조건(動物及動物產品輸入檢疫條件)」

각 분류별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www.baphiq.gov.tw/public/Data/72515465171.doc>

나. 식물 검역제도

□ 법적근거

- 「식물방역검역법(植物防疫檢疫法)」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중화민국 수입식물 및 식품제품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 검역 규정

- 신선 식물 및 식물제품은 수출국가의 식물 검역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검역을 신청하여 자국의 식물 검역 법규와 규정 및 조건에 부합됨이 확인되면 수입을 허가함
- 「식물 방역 검역법(植物防疫檢疫法)」 등 해당 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식물 및 식물 제품과 유해생물, 흙 혹은 흙이 묻어있는 식물 등은 수입 전 자국 동식물방역국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입을 금지함
- 차묘(茶苗),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번식력이 있는 식물은 수입 전 격리검역을 신청하고 동식물방역국의 동의를 얻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식물체 중심의 온도가 섭씨 -17.8도 이하인 식물 혹은 식물제품은 수입검역을 면제함
- 건조 한약제류, 슝 등은 검역을 면제함

「중화민국 수입 식물 및 식품제품 검역 규정(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각 분류별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09/sps/TPKM/09_0891_00_x.pdf

단위: 천명, %

구 분	북부	남부	중부	동부	도서지역	계
인 구	9,898	6,325	5,766	1,024	211	23,224
비 중	42.6	27.2	24.9	4.4	0.9	100

구 분	지역명	인구(명)	비중(%)
	합 계	23,224,912	100.00
북부	27)新北市	3,916,451	16.86
남부	高雄市	2,774,470	11.95
중부	臺中市	2,664,394	11.47
북부	臺北市	2,650,968	11.41
북부	桃園縣	2,013,305	8.67
남부	臺南市	1,876,960	8.08
중부	彰化縣	1,303,039	5.61
남부	屏東縣	864,529	3.72
중부	雲林縣	713,556	3.07
중부	苗栗縣	562,010	2.42
남부	嘉義縣	537,942	2.32
중부	南投縣	522,807	2.25
북부	新竹縣	517,641	2.23
동부	宜蘭縣	459,061	1.98
북부	新竹市	420,052	1.81
북부	基隆市	379,927	1.64
동부	花蓮縣	336,838	1.45
남부	嘉義市	271,526	1.17
동부	臺東縣	228,290	0.98
도서	金門縣	103,883	0.45
도서	澎湖縣	97,157	0.42
도서	連江縣	10,106	0.04

ECFA 체결과 한·중 FTA

1 ECFA 개요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대만과 중국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으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무역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양안 경제/무역/투자 협력의 강화와 무역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경제 협력 영역 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임
 - 관세 등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국가 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협정
 - 중국이 대만을 공식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대만과의 FTA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제시
 - 우선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외의 분야는 나중에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양안 800개 항목의 상품 관세를 2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

□ ECFA 체결

- 체결일시 및 장소 : **2010. 6. 29(중국 충칭)**
 -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대만은 중국과 ECF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 2010. 9. 12 정식 발효
 - 협정서 원문이 경제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물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및 원산지 규정,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리스트 등의 부칙이 함께 발표됨
-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을 통한 상품무역의 자유화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로 이번 협정에서 대만은 총 539개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를 양허 받았으며, 중국은 267개 품목에 대해 양허 받았음
 - 금액으로 환산하면 중국의 대대만 수입액이 138억4000만 달러(對대만 총수입액의 16.1%), 대만 측 對중국 수입액이 28억6000만 달러(對중국 총수입액의 10.5%)임. 중국의 항목 수는 대만의 절반으로 수출액은 대만이 얻게 될 이익의 1/5에 해당
-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비금융 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3개 등 총 11개 분야, 대만은 비금융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1개 등 총 9개 분야가 자유화되었음

27) 이전에는 타이베이현(臺北縣)으로 구분되었으나, 2010. 12. 25부터 직할시로 개편 신베이시(新北市)로 명명

- 한편,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의 경우 협정문에서 약정한 바대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대만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경제성장률이 1.65~1.72%P 상승할 것으로 예측(대만 중화경제연구원, 2009/7)되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외자의 대만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 외에도 양안간 분업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고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 대만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對中 수출 500대 품목(HS 8단위 기준, 2010/1~5 수출금액 기준)을 대만이 ECFA 조기자유화로 양허 받은 품목 539개와 비교한 결과 164개 품목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ECFA 체결은 양안간 산업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요소 이외에도 대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비 필요
- 양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효과 비교

단위: 개, US\$억 달러, %

항 목	對대만 관세인하 항목	對중국 관세인하 항목	비교
조기자유화 품목	539	267	2:1
해당품목의 수출액	138.3	28.6	4.8:1
수출총액 대비 비중	16.1	19.5	1.5:1

- 조기자유화 리스트 70%의 품목이 석유화학과 기계, 방직, 운송공구의 4개 산업 제품으로, 대만의 對 중국 수출총액 중 점유 비중이 30%에 달하는 대만의 대표적인 4대 對중국 수출산업임
- 중국은 대만이 제정한 기본원칙대로 **중국의 농산품 및 인력시장은 대만에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해, 농산품을 제외한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공구 등 주요 4대 산업품목을 비롯한 총 267개 품목이 對 대만 수출 시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 됨
- 대만은 농산품을 비롯해 민감성 산업인 전통산업 역시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견고한 입장을 취하나, 국내 생산량이 비교적 적은 다운스트림 제품의 조기 자유화는 고려해 보겠다고 밝힘

〈 1차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및 무관세화 적용 단계 〉

구 분	대만이 양허 받은 품목	중국의 현행수입관세	품목수 (개)	1년차 '11.1.1~	2년차 '12.1.1~	3년차 '13.1.1~
품목수	539개	0% $\langle \chi \leq 5\%$	72	0%		
해당 품목의 수출 금액	US\$138.3억	5% $\langle \chi \leq 15\%$	436	5%	0%	
수출총액 대비 해당 품목의 비중	16.1%	15% $\langle \chi$	31	10%	5%	0%

□ 농산품 분야

- 대만이 중국과 ECFA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가 중국산 농산품 수입 문제로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830개 품목의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 앞으로는 계속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표명
- 쌀, 마늘 등 관세쿼터품목 및 대만이 생산하는 주요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추가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
- 농식품 분야관련 대만의 요구사항
 - 대만의 농업분야 연구개발성과 보호를 위해 대만이 개발한 신규 농식물의 지적 재산권 신청을 중국이 수리할 것을 요구
 - 중국이 사스, 구제역 등 주요 동식물의 전염병 발생지역임을 감안, ECFA 협정 하에 양측이 검역정보를 교환하고 관련협상을 진행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
- ☞ 이 같은 대만의 방침과 요구는 이번 ECFA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모두 반영됨으로써 국내 ECFA 반대 여론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
- 2011년 對중국 농산품 수출액은 US\$6.65억 달러로 25% 성장
- 10%~15%의 관세를 적용받던 냉동생선, 바나나, 레몬 등 16개 농산품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무관세 수출시작. 이로써 2012년 농산품에 대한 對 중국 수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품 목 명	관 세	
	기존	2012.1.1 이후
냉동 콩치 등 냉동 생선, 온시듐(Oncidium) 난초 등 생화, 바나나	10%	○
귤, 레몬	11%	
우럭바리 등 활어, 멜론	12%	
팽이버섯	13%	
녹차, 홍차, 우롱차	15%	

2 ECFA와 한·중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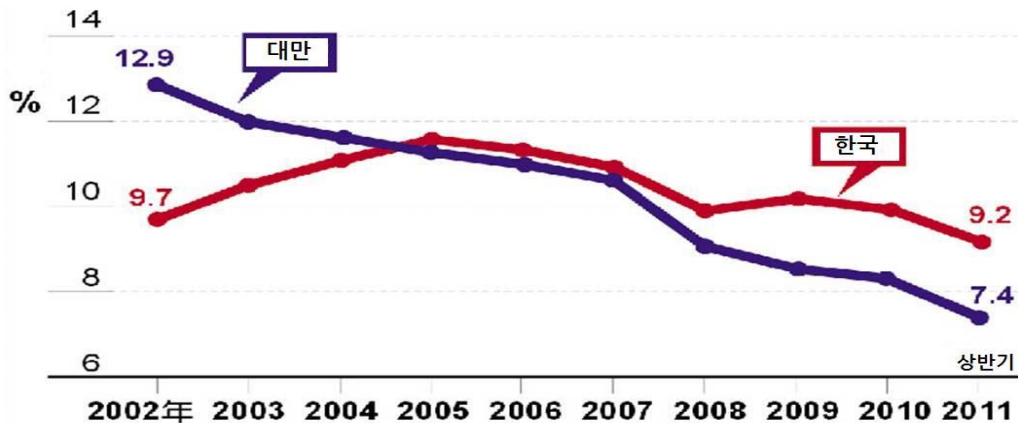
□ 대만의 입장

-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대만 간 경합이 극심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 시 대만의 대중 수출액 중 약 48%에 해당하는 1조 8000억 NT\$(607억 8800만 달러)가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중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 중 대만에 대한 수입 관세가 2.5%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분석)
-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만의 대중 주력 수출품목은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 시 대만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대만 각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이 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LCD 패널은 한·대만 양국 모두 대중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는 경쟁 산업이자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산업임. 최근 대만의 대중 LCD패널 수출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대만 정부에서도 LCD 산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이 밖에도 5대 범용 플라스틱 또한 한·대만 양국이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로 대만은 매년 양안회담 때마다 5대 범용 플라스틱을 조기자유화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해왔음

□ 한·중 FTA, ECFA 효과 상쇄하나?

- 대만이 향후 전개될 양안회담에서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신속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ECFA 효과는 크게 반감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대중 수출에서도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는 대만의 외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향후 대만과의 ECFA 후속협상에서 대만의 조급한 입장을 이용, 대만에 시장 개방 폭 확대를 요구하는 등 한·중 FTA 협상개시라는 카드로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음
- 대만 역시 향후 진행될 양안협상에서 대중 수출 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한 한국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대만은 LCD패널, 화학제품 등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한·중 FTA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거 진출해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음

〈 중국 내 한·대만 수입제품 시장점유율 〉



자료 : 국제무역국

- 한·중 수교 2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액은 매년 평균 23%씩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발전
-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되며,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무역방면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한국 또한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거듭남
- 이와 같은 한국의 여타 국가와의 신속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는 대만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해 언론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ECFA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와 절박함 또한 높아지는 상황임

□ 향후전망

- 대만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ECFA 조기자유화 실시 첫해인 2011년에는 무관세 대상 품목이 76개에 불과해 실제 관세 절감액은 1억 140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2년부터 조기자유화 품목의 95%에 해당하는 513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조기자유화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23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만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자 수출 외에 서비스업, 관광업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만 행정원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있음
 -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97만 명, 2010년 163만 명, 2011년 약 170~180만 명(추정치)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 돌파가 목표임

- 건강검진, 성형 관광 개방
 - 대만 행정원은 2011년 12월 30일 ‘중국인대만입국허가법(大陸地區人民進入台灣地區許可辦法)’ 수정안을 발표, 2012년부터 건강검진, 성형 등 의료 목적의 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 허용
- 자유여행객 시범도시 확대
 - 2011년 6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샤먼 지역 주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대만 자유여행이 올해에는 톈진, 난징, 광저우, 항저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현재 중국 자유여행객은 1일 500명으로 제한하며, 시범도시를 확대하더라도 인원 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임
- 2012년 중국인 상용비자 발급 조건 완화
 - 대만 내정부는 2012년 1월 말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중국인 방문자의 복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할 방침임
- 대만은 되도록 2년 안에 ECFA 후속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특히 상품 무역 분야의 LCD패널, 석유화학 등의 품목을 차기 협상에서 반드시 무관세 양허 품목에 포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하지만 올 4월 말에 열린 양안경제협력 위원회(經合會)에서 양측은 상품무역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LCD, 화학제품 등 품목의 무관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임

3 시사점

- ECFA 체결 2년째를 맞는 2012년, ECFA 조기자유화 품목 95% 무관세화, 대만의 중국인 여행객 제한 완화, 항공·해운 직항 증편, 대만인의 중국 개인사업자등록 가능 등 무역뿐만 아니라 양안의 각계 분야에서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남
- ECFA 체결로 양안 관계의 급속한 호전이나 무역량 대폭 증가 등의 실질적인 가시적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ECFA로 인한 대만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는 등 ECFA의 상징적인 효과가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만 정부로서는 2010년 ECFA 체결 이후 타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수월해졌다는 이점이 있고, 나아가 10년 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가입을 목표로 하는 등 국제사회 전면에 나서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양안투자보장 협정 등을 포함한 ECFA 후속협상을 주시해 양안간 협력 진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긴밀히 관찰해 대응해야 할 것임. 또한 ECFA 발효 후 신속하게 대만 기업과 협력해 중국을 공략하는 일본 기업들처럼 우리와 산업 구조의 유사성이 높은 대만 기업을 단순 경쟁자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략을 펼쳐 양안과의 무역에서 실익을 얻어야 할 것임

대만 측 對중국 조기자유화 리스트 상세내용(539개)

구분	개수	품목
농산품	18	기타활어, 기타신선어, 기타냉동어, 생선알, 난화, 팡이버섯, 바나나, 오렌지, 레몬, 멜론, 드레곤프룻, 차잎 등
석유화학	88	1) 기본원료 : 항공용파라핀, 윤활유, 프로필렌, 이소프로페놀, 크실렌, 염화비닐, DNOP 등 2) 화학제품 : 계면활성제, 카본블랙, 수지접착제 등 3) 플라스틱원료 : PP, PS, 아크릴코폴리머, 폴리테트라하이드로푸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기타올리피닐폴리머 등 4)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칩/판/막, PMMA판, 비닐클로라이드폴리머판, 인조가죽 등
기계	107	1) 공작기계 : 절삭금속의 디지털제어선반, 절삭금속의 기타디지털제어선반, 절삭금속의 디지털제어드릴링머신, 디지털제어평면그라인더, 연마선반, 그라인더, 폴리싱선반, 슬로팅머신, 브로칭머신, 기계톱 혹은 절단기, 더블하우징플레너, 단조 혹은 편치머신 및 단조해머, 비디지털식 편칭, 편칭절단검용머신 및 공작기계부품 등 2) 산업용기계 : 종이처리기계, 방직기계, 인쇄기, 제지기, 고무플라스틱 가공기계, 여과기, 열처리기계, 승강기 3) 기타기계 : 펌프류, 유체전동기계, 롤러 등 4) 기계부품 : 밸브, 기계절단공구, 기계부품, 콤프레서/팬/베어링 등
방직	136	1) 미들/업스트림방직류 : 면사, 면포, 면화섬혼방, 면혼방합성 섬유면직물, 재생섬유포, 합성섬유포, 인조섬유사, 합성섬유면, 합성섬유면사, 재생섬유면사, 합성섬유면직포, 재생섬유면직포 및 화섬필러 등 2) 다운스트림방직류 : 특수방직품, 니트제품, 단추, 행주, 기타직물, 부직포 등 3) 방직제품 : 백/가방, 셔츠 및 풀오버, 수영복, 양말, 내의 및 수건 등 4) 가죽류 : 신발, 고무플라스틱제품외곽 및 굽, 신발부품 등
운송공구	50	1) 자동차 : 자동차부품 2) 자전거 : 자전거 및 부품

구분	개수	품목
기타	140	1) 철강 : 열연스켈프, 비합금강냉연스켈프, 선재, 스테인리스 강 등 2) 시멘트 : 시멘트가공원료 및 백시멘트 등 3) 염/안료 : 산성/직접/활성염료및제품, 티타늄옥사이드 등 4) 운동기자재 : 기타 골프용구 등 5) 의료기자재 : 인조관절, 헬스 및 건강기기 등 6) 계측기 : 측량계측기 등 7) 몰드 : 금속드로잉다이, 금속다이, 주형 혹은 압형몰드 등 8) 금속제품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제품, 구리 및 동박제품 등 9) 유리 : LCD유리 10) 고무 : 자동차, 자전거 및 오토바이 타이어 11) 페인트 및 유성잉크 : 유성페인트, 바니시, 기타 인쇄용 잉크 등 12) 전자 : 카메라, 프로젝터등용 대물렌즈, 기타 카메라 및 기타 광학기구용부품, 마이크 및 받침대, 앰프, 기타 TV 영상모듈 및 부품,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부품, 방전발광관, 기타전자관, 희귀영구자성체, 기타 금속영구자성체 등 13) 전기 : 변압기부품, 전원부품, 정지형변류기 및 인덕터부품, 리튬이온전지퓨즈, PLC, 통용신호발생기, 동축전도체, 완구전동기, 소형특수전기기계, 완구용전동기부품, 구리코일전선, 비연결식 전도체 등 14) 가전 : 선풍기, 저장식 온수기, 진공청소기, 음식물처리기, 전기 다리미, 전기밥솥, 오븐레인지 등 15) 공구 : 펜치, 스패너, 망치, 스크루드라이버 등

중국 측 對 대만 조기자유화 리스트 상세내용(267개)

구분	개수	품목
석유화학	42	1) 기본원료 : 기름품목; 크레오소트유, 연료기름, 석유코크스 석유화학 원료; 포름산, 아세트산, 초산에틸 등 2) 화학제품 : 수지접착제, 카본블랙, 계면활성제, 나무기름 (발삼나무) 등 3) 플라스틱원료 : PP, 아크릴코폴리머, 폴리카보네이트 등
기계	69	1) 기타기계 : 유압 실린더, 공기압 실린더, 펌프, 증기 또는 모래취 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사무실기계 등 2) 기계부품 : 기계도구, 압축기 및 팬, 기계부품, 밸브, 로드 및 바, 개스킷 혹은 유사조인트 등 3) 산업용기계 : 열처리기, 필터, 종이처리기, 기타 인쇄기, 방직기,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기계 등
방직	22	1) 미들/업스트림 방직류 : 면사, 면포, 인조섬유실, 합성섬유면 등 2) 다운스트림 방직류 : 부직포, 니트, 나일론, PU합성가죽, 기타섬유 등
운송공구	17	1) 기타차량 : 유모차 및 그 부품 2) 자전거 : 자전거 및 부품
기타	117	1) 화학품 :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바디샴푸 등 방향제, 활성탄, 레진산 및 로진산, 기타 촉매 및 화학제품 등 2) 염·안료 : 산성염료, 기타합성유기안료 등 3) 운동기자재 : 기타 골프설비, 기타 공,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기타의 운동용품 및 설비 등 4) 의료기자재 : 의료기 혹은 기구의 부품 5) 몰드 : 다이스몰드, 냉압력 및 금형성형용 펀치와 다이스몰드, 금속용 사출몰드 및 압축, 기타 고무 및 플라스틱용 몰드 6) 금속제품 : 정련동관, 알루미늄판 및 기타납판, 판/쉬트/스트립 7) 고무 : 소형차·대형차 및 자전거의 타이어 등 8) 유리 : 기타 납 크리스탈 유리기, 도로표지, 신호용유리 등 9) 오락설비 : 기타 놀이공원 회전대, 그네, 사격장, 기타 놀이공원의 오락설비 10) 전자 : 영구자성체, TV영상카메라, 전구 및 전자관, 대물렌즈, TV·영화촬영용 카메라 혹은 프로젝터용 렌즈, 광학소자, 램프 및 전기조명부품 등 11) 전기 : 폭발방지형모터, 기타 전동기, 기타 교환식전원공급장치, 이산화망간전지, 축전지, 퓨즈장치 등 12) 기타 제품 : 안경, 손목시계, 보온병 및 기타 진공보온기, 빗자루 및 브러시, 지퍼, 칫솔, 볼펜, 연필 및 크레용 등

단위: M/T

구 분	제 품 명	쿼터량	비 고
1	팥 Red Bean	2,762	
2	액상유 Liquid Milk	21,298	
3	땅콩류 Peanut	5,642	
4	마늘 Garlic	3,520	
5	마른버섯 Dried Shiitake	288	
6	마른원추리 Dried Day Lily	101	
7	코코넛 Coconut	12,928	
8	빈랑 Betel Nut	8,844	
9	파인애플 Pineapple	35,771	
10	망고 Mango	12,755	
11	유자 Pomelos	4,300	
12	용안열매 Longan	330	
13	쌀 Rice	50,652	
14	녹용 Deer velvet	0	선 신청 후 배분
15	배 Fresh pears	0	
16	바나나 Bananas	0	
계	-	159,191	-

VII

말레이시아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일반·정치

-
- 국 명 : 말레이시아 (Malaysia)
 - 면 적 : 329,847km²
 - 기 후 :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
 - 수 도 : 쿠알라룸푸르
 - 주요도시 : 쿠알라룸푸르, 슬랑호, 페낭, 조호바루, 싸이버자야, 푸트라자야 등
 - 인 구 : 29,179,952명 (2012년 1월기준)
 - 민족구성 : 말레이계, 중국계, 토착민, 인도계, 소수민족 등
 - 정부형태 : 입헌 군주제
 - 국가원수 : Najib Razak (2009~)
 - 종교 : 무슬림(국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중국 전통 종교(유교, 도교 등) 등
-

2. 경제사항

-
- 실질 GDP성장률 : 5.1 % (2011년 기준)
 - 명목GDP 총액 : RM 7409억 (2012년 기준)
 - 1인당 GD P: 9,755 USD (2012년 기준)
 - 외환보유액 : 947억 USD (2011년 기준)
 - 수출액 : 2275억 USD (2011년 기준)
 - 수입액 : 1786억 USD (2011년 기준)
-

3. 한국과의 관계

□ 일반사항

- 수교년도: 1960년 수교
- 한국 교민 수: 14,409명으로 추정 (2012년 외교부 자료)
- 대 한국수출액: 696,049,218 USD(2012년 10월 기준)
- 대 한국수입액: 63,597,932 USD (2012년 10월 기준)

□ 한국과의 경제 동향

- 수출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양보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약 10배 많음. 야자유나 코코아 수입 때문에 전체적인 말레이시아와 수출입 수지에 있어서는 적자

-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의 과일과 고등어, 조제식품, 동물사료 등을 주로 수입함.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오는 품목 중 과일이 1위임
- 매년 30%씩 꾸준히 증가 하던 수출 성장량도 2012년에는 하락세를 보임
- 말레이시아는 경제 롤모델로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을 삼고 있음

II 말레이시아 경제동향

1. 경제 산업구조

□ 동남아시아 경제 2위국

- 주석, 팜유, 석유를 생산 및 수출하며 제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1인당 GDP가 8000달러를 넘어서, 세계 30위 중후반대를 유지
 - 터키나 브라질을 상회하는 수준

□ 12.2/4분기중 말레이시아 경제는 비우호적인 외부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확장 및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5.4% 성장(11.4/4분기 : +5.2% → 12.1/4분기 :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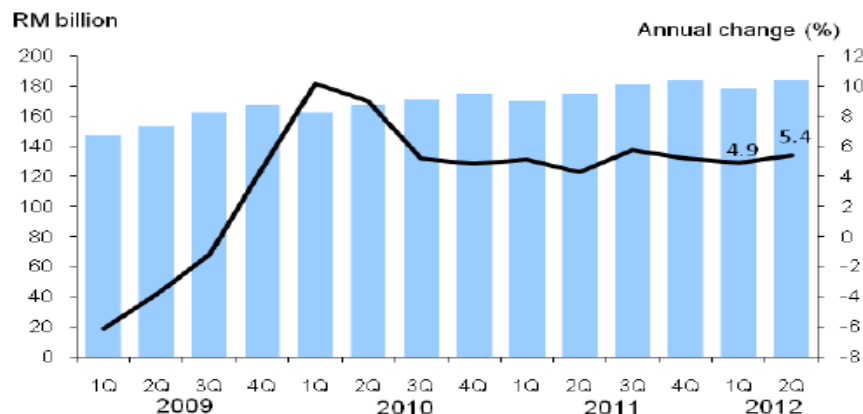
* 12.1/4분기 9.3% → 2/4분기 13.8%(전년동기대비)

- 금번에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인 전망(12.2/4분기중 +4.6% 전망) 뿐만 아니라 가장 낙관적인 전망(+5.2%)도 상회하는 수준

□ 순수출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의 지출이 이를 상쇄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민간소비는 노동시장 호조에 따른 소득증가, 소비자 심리개선 등에 따라 8.8% 증가 (12.1/4분기중 +7.4%)
 - 공공부문 소비도 9.4% 증가함으로써 전분기보다 증가세 확대(12.1/4분기중 +7.3%)

Higher growth in the second quarter
(at constant 2005 prices)



Source: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 공급측면을 보면 농업부문을 제외하고 서비스, 제조 및 건설부문 등 거의 모든 부문이 확장세
 - 농업부문은 팜오일 생산부진에 따라 감소

〈 경제활동별 GDP 〉

단위: %

구 분	2011		2012		
	2/4	상반기	1/4	2/4	상반기
농업	7.7	3.8	2.1	-4.7	-1.5
광업	-9.3	-6.6	0.3	2.3	1.3
제조업	2.6	4.1	4.4	5.6	5.0
건설업	1.8	3.4	15.5	22.2	18.9
서비스업	7.1	7.1	5.3	6.3	5.8
GDP(연율)	4.3	4.7	4.9	5.4	5.1
GDP (전기대비)	2.5	-0.4	-3.0	3.0	-0.7

자료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통제를 통하여 국내 자본 유출과 과잉공급을 막고, 링깃화의 가격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
- 관광과 농산업 외 이슬람 금융과 서양 금융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육 및 서비스 산업에 주력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2. 주요 경제지표

- 경제 성장률
 - 여느 나라와 같이, 2008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의 감소와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2008년에 4.8%, 2009년에는 -1.5%를 기록하였으나, 국제경기 회복으로 인해 2010년과 2011년에 7.2%, 5.1%로 빠른 회복을 하였음
 - 2010년 경제 회복에 큰 발전이 있었던 제조업은 11.9% 상승하였고 2011년도에는 농수산업이 5.9% 성장함. 채광산업발전은 낮아지는 추세이나 나머지 산업들은 꾸준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도에는 유럽재정위기와 국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률이 4.0~5.0%을 기록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구 (백만)	27.9	28.3	28.6	28.9
노동인구('000)	12,083	12,361	12,646	12,924
취업인구('000)	11,632	11,956	12,248	12,515
실업률(%)	3.7	3.3	3.1	3.2
경제성장률(%)	-1.5	7.2	5.1	4.0~5.0
GDP 총액 (RM 10억)	629.9	674.9	709.3	740.9
1인당 GDP (\$)	7,059	8,346	9,693	9,755
물가상승률(%)	0.6	1.7	3.2	2.2
외환보유액 (RM 10억)	13.8	-2.6	94.7	-
수출액 (RM 10억)	553.3	640.0	696.6	717.8
수입액 (RM 10억)	412.6	505.3	548.5	562.2

자료 : EPU Report 2012

□ 소비자 물가

- 소비자 물가는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1.8% 올랐고 전년 동기 1.4%에 비해 소폭 증가
- 이와 같은 현상은 통신과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 물가가 증가한 결과로 특히 숙박 및 식당이 3.2% 증가하였고 교육부분에서 2.5% 증가하였음
-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가격인상 제제를 하여 연 목표 관리 수준인 3%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환율

-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1USD당 링깃, 기간평균)
 - 2012년 한 해 동안 전체적인 환율은 3RM/1\$부터 3.19RM/1\$ 사이로 연평균 3.05 ~ 3.1 RM/1\$ 정도임. 2012년 초 3.17RM로 시작하여 상반기에는 강세를, 5월 이후로 천천히 약세를 보이다 11월말에는 3.05~3.07RM을 유지
- 지속되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대선 및 외부 영향으로 인해 1분기에 환율강세를 보였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3분기에 다시 하향세로 접어들었음.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환율이 다시 평균 3.09RM으로 조정 중

단위: 링깃/USD

2011				2012			
1Q	2Q	3Q	연간	1Q	2Q	3Q	연간
3.0368	3.0298	2.9878	3.137	3.07	3.13	3.14	3.09

자료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 금리

- 2011년에 이어 중앙은행이 발표한 기준 금리는 변동이 없었음. 비교적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로 당분간 현 3%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2010			2011	2012
3월	5월	7월	5월	1~11월
2.25	2.5	2.75	3.0	3.0

자료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 외화 보유액

- 수출 중심 산업의 구성으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의 외화보유액은 328.6RM(10억 단위)였으며, 2011년은 423.3RM으로 기록됨
 - 이는 불안한 국제경기로 인하여 외화보유액을 늘리는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인한 증가로 파악됨

□ 정부예산

- 2009년 6번째 총리인 Najib은 권력유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 지속적인 세금감면 및 교육비 지원 등으로 정부예산을 점차 확대시켜 옴
- 2011년 정부 예산으로 2010년 예산보다 2.8% 높은 2,120억RM을 예상 하였고, 2012년 예산으로 2,328억RM, 2013년에는 2,516억RM의 예산을 발표 함
 - 2012-13년 총선을 앞두고 현 여당의 정치적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확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3.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NEP의 비판

- 무역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방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
- NEP(New Economic Plan)을 통하여 국내 빈곤율을 줄이고 전체적인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에 비해 많은 시민들의 소득증가율은 적으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가져옴

-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몇몇 대도시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비해 그 외 지역 시민들의 빈민층 비율은 높은 편임. 연료 및 식료품에 대한 빈곤층 보조금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Bumiputra 정책으로 인해 말레이인들을 우대함으로써 민족갈등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음. 정부의 정권유지에 의한 NEP와 Bumiputra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 민족 시민들의 불만으로 NEP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

나. 환율정책과 무역수치 변동

□ 대외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큼

-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와 유럽 국가들의 소비위축 등 대외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큼

□ 전기, 전자산업의 재료와 부품의 대한 수입 의존도가 커 제조업 부문 수출의 증가와 수입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성향을 보임

다. 성장 잠재력 및 정책성과 지리적 요점과 인프라 수준

□ 동남아시아의 중심지 역할 수행

- 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위치하며 말레이반도와 동부 사라왁지역으로 나뉘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가 편함
- 이로 인한 많은 투자유치가 예측되며 정부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함으로써 금융, 통신, 교통 등 다양한 방면의 발전 가능성을 보임
- World Economic Forum 2011/2012에서 국제 경쟁력지수가 21번째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함

라. 풍부한 자원 보유

□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팜오일, 주석, 고무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

- 특히 팜오일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수출국(40%이상)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생산국으로, 팜오일이 최근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각광받으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음

마. 계획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

- 1970~1990년 신경제정책(NEP), 1991~2000년 국가 개발정책 (NDP), 2001~2010년 국가비전정책(NVP) 등 정부 주도의 장기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고무, 주석 등 1차 자원수출과 농업생산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전기, 전자산업 외에도 라텍스, 타이어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련 제조업 산업을 발달시키는 산업 다각화에 성공,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음

- 경제변화프로그램 (ETP)을 통하여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48,000RM까지 올릴 계획이며 달성을 위해 연간 6%의 GNI 성장률을 전망. 세부적으로 국가중요경제구역 (NKEA)을 지정해 경제구역별로 세분화된 계획으로 추진 중

바.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

-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교적 안정된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입변동을 예방
- 경기가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2010년 빠른 회복세로 전환되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아시아 국가 중 인도와 더불어 처음으로 2010년 3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2010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7%의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4. 최근 경제정책 동향

□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 2011-2015(10th Malaysian Plan)

-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 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 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0년 6월 10일 Najib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2015)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의 목표, 10대 전략적 중점육성 분야 및 12대 국가 핵심경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제10차 계획의 목표
 - 경제 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 6.0%
 - 2015년 1인당 GDP : 38,850링깃(USD 12,140)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 5.3%(2010년)→3.0%(2015년)
 - 민간투자(계획기간 중 연평균) : 12.8% 성장(연평균 1,150억링깃 신규투자)
 - 고용(계획기간 중 연평균) : 2.4% 증가, 14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10대 전략적 중점 육성 분야
 - 내부 역량강화 및 외부 변화 활용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문화를 통한 고소득 사회로의 전환
 - 생산성에 기반을 둔 성장과 혁신 장려
 - 최고급 인력의 육성, 유지 및 강화
 - 균등기회 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른 성장 발전 추구

- 정부와 민간기업 간 효율적 협력 관계 구축
- 천연 부존자원의 효용가치 극대화
- 정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 12대 국가 핵심 경제 분야; 석유 및 가스, 팜오일 및 연관 상품, 금융 서비스, 도소매업, 관광산업, 전자 및 전기, 민간 의료산업, 교육,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농업서비스, 광역 쿠알라룸푸르 구축

□ 새 경제모델 (NEM : New Economic Model)

-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발표·추진 중에 있음
- NEM 기본원칙
 - High Income : 현재 1인당 GDP 7천불에서 10년 내에 1만5천불로 도약
 - Sustainability :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삶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
- NEM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발전, 지방자치에 따른 결정, 클러스터 및 경제구역 기반 경제 활동 강화, 기술 산업 및 기업 우대, 아시아 및 중동지역 중시, 고급 기술인력 유치 등과 같은 실천전략 마련하여 추진 중

5. 교역환경

□ 관세

- 전통적으로 저 관세 정책을 견지
 -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 관세율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채택(세부 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증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음

□ 통관

- 통관검사방식
 -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
 -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

-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는 말레이시아 내 물품 운송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은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임
-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음
-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함

Ⅲ 말레이시아 농업동향

1. 주요 농업지표

□ 농업 부문 경제기여도

-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Tenth Malaysia Plan)으로 농업의 질(質)향상 운동의 영향으로 향상된 농업 기술과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업과 산업의 둔화로 인해 농업 경제 기여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여전히 농업 경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통해 2015년 까지 농업 경제 기여도를 2% 더 향상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부문	기여율 (2011년 기준)
서비스	12.0%
산업	40.5%
농업	47.5%

출처 : CIA World Factbook

□ 농경지 현황

- 말레이시아의 농경지 면적은 7.87백만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24%이며, 한때 70%이상 차지하던 열대우림 지역은 농경지 확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줄어 2012년 현재 58.2% 까지 줄어들음
- 총 농경지 면적 중 관개수리 면적의 비중이 약 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우량 등의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1990년대까지 개간 혹은 간척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농경지 확대를 이뤘으나, 1995년 이후 농경지가 아닌 다른 분야의 토지 수요 증대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전체 국토 면적	33백만 ha	비고
농지 면적	7.87백만 ha	국토의 24%
영구작물	74% (2009년 기준)	팜유, 고무, 과일
농경지	23% (2009년 기준)	쌀, 채소

출처: Worldbank 2010 report

□ 노동인구의 산업별 구성 비율

- 통계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던 농업인구 비율은 2012 하반기에 11.1%로 감소
- 산업 및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수많은 일자리와 교육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인식이 노동인구의 도시이동을 야기해 농업인구 비율이 감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업기계 도입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
- 농촌 남성들의 도시 이동에 따라 농업 노동력의 주축이 여성인 경우가 생겨나고 있으며, 사바(Sabah)지역의 경우 농업노동력의 75%가 여성임

노동인구	단위	2010	2011	2012 (9월)
전체	천명	111,956	12,248	12,515
농업	전체 노동인구 (%)	11.6	11.3	11.1
광업		0.4	0.3	0.3
제조업		28.8	28.6	28.8
건설업		6.4	6.3	6.2
서비스업		53.3	53.5	53.6

출처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 주요 신선농산물 생산 동향

- 고무
 -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고무 생산은 그 생산 가치가 2007년 100억 달러, 2008년에 최고치인 11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9년도에는 그 생산가치가 6% 가까이 하락
 - 고무 생산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사유지에서는 고무 보다는 생산가치가 높은 야자유(Palm Oil) 생산을 더 선호하게 되어 고무 생산량이 하락세를 보임
- 야자유(Palm Oil)
 - 196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야자유 생산은 경제적 잠재 가치를 인정받음에 따라 정부는 고무 생산과 함께 야자유 생산을 해결책으로 제시함
 - 세계 야자유 생산량의 39%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2007년을 기준으로 야자유 토지 확장과 노동 기회 창출로 인도네시아를 앞질러 세계1위의 야자수 생산 국가가 됨
- 쇠고기 및 낙농산업
 - 말레이시아 특유의 고온의 열대성 기후가 쇠고기 및 낙농 산업에 부적절하며 목초지 면적 또한 좁아 산업 규모가 매우 작음

단위: 천 톤

품목	2011년	2012년 (추정치)
쌀	1,690	1,700
옥수수	97	1,00
팜오일	18,202	18,500
고무	996.3	615.3 (8월까지)
소 및 염소 고기	29	29
가금류	950	955

출처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및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산물 수급

- 쌀
 - 관개지수가 5% 정도며 계속 되는 고온의 열대성 기후로 쌀 생산량의 증가에 한계가 있음
 -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 가지 못해 약 37% 정도 수입에 의존
-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이 100만 톤 밖에 되지 않아 317만 톤(약 98%)을 수입하며 밀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
- 설탕의 경우에도 공급의 약 94%가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실정임

2. 농업정책

가. 3대 농업 정책

- 4차 국제 농업 정책(NAP, 4th National Agriculture Policy), 국가 주요 경제 분야(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 및 식품 안보 정책(Food Security Policy)과 함께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통해 고무와 야자유 같은 고가치 농업 생산품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가 및 기계화를 추진하여 자국 내에 곡물 공급량을 늘려 식량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국가농업정책 (NAP, National Agriculture Policy)

- 말레이시아 정부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84년부터 국가 농업정책(NAP, National Agriculture Policy)을 도입하여 현재는 4차 국가 농업 정책(2011~2020)을 농식품정책(Agromakanan Policy)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정책 목표
 - 자국 내에 충분한 식량 공급
 - 목표 그룹 소득 증대
- 주요 정책 전략
 - 기술개발로 인한 농경지 생산력 극대화와 생산비 절감 및 중앙 관리화를 통한 생산 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력과 생산율의 증가
 - 영구 식품 생산 공원(Permanent Food Production Park)의 규정을 통해 식량생산 감소를 방지
 - 농수산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충방지관리,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 이로운 미생물의 사용방법 같은 좋은 농업 연구를 시행
 - 정부와 개인, 사업자의 참여로 생성되는 생산자와 시장의 연결을 통한 식량공급 시스템 라인의 강화와 부가가치 활동 및 등급제와 마케팅 증가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할랄(Halal) 승인, 포장 개선, 표지, 홍보, 마케팅 및 브랜드화 그리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농산물 생산력과 생산율의 증가
- 농업부의 Human Capital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한 전문화 교육과 기술 습득으로 농업 종사자 육성
- 농업부에서는 농업 기계화와 농식품업의 창의성과 계발을 활발하게 하게 위해 계속 홍보하는 프로그램과 해충 방지와 개간 사업을 통해 식품 생산성과 공정 과정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상품 확장 프로그램 같은 여러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정책을 수행

□ 국가 주요 경제 분야(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

-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10th Malaysia Plan 2011~2015)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주요 경제 분야(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로 12가지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야자유 및 야자유 관련 제품과 농업이 포함되어 있음
- 야자유 주요 정책 목표
 - 지나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로 인한 문제 해결
 - 2015년까지 야자유 제조업으로 인한 GDP를 219억 링깃, 수출 포함 693억 링깃 달성
- 야자유 생산량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말레이시아가 야자유의 세계적 허브임과 함유화학제품 및 연구 개발, 저장소 같은 부류의 외국자본의 유입지임을 홍보
 - 바이오 연료, 함유화학제품, 생물비료, 특수 식량 제품, 바이오매스(Biomass) 제품, 기능성식품, 제약(Pharmaceuticals)같은 야자유 제조과정에서 생산되는 야자유 외에 상품 홍보를 위한 야자유 산업 연합을 개발
 - 소규모 자작농에게 좋은 농업 연구와 농경 관리 및 기계화 장려
 - 비료나 농약 같은 제품 공급을 중앙공급화 하여 저렴한 가격에 소규모 자작농에게 공급
- 농업 주요 정책 목표
 - 이번 10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농업 활동에 집중하여 이 기간 내에 농업 경제 기여도를 2015년까지 2% 향상시키는 것
- 농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이익 창출을 위한 농업 협력단 개설, 농부와 어부 그리고 영농업자에 의해 수용된 선례를 받아들이는 것을 장려, 전략적 제휴와 농업 계약을 통한 마케팅의 강화
 - 민간 부문의 폭넓은 참여와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양식업 및 약초 산업의 규정과 절차의 간소화 및 재검토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농업 주력상품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및 현대 농업기술을 활용하는 생산 과정 및 혁신 기반 성장의 홍보

- 영구 식품 생산 공원(Permanent Food Production Park) 및 양식업 영역의 자원의 양과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물류와 적절하고 구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
- 새로운 높은 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한 품질 관리, 안전, 질병관리 및 생산 과정의 혁신을 뛰어 넘기 위해 농업연구관과 R&D 협력 강화
- NKEA는 경제 변환 프로그램(ETP)에서 직접적으로 말레이시아 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는 잠재력 있는 정책으로 평가 되고 있음
- NKEA는 총 131개의 진입 프로젝트(EPP, Entry Point Project)와 60개의 사업기회 프로젝트(BO, Business Opportunities Projec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개의 진입 프로젝트와 2개의 사업기회 프로젝트가 농업관련 정책과 관련이 있음
- EPP1(높은 가치의 식물성 제품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생물 다양성의 가치의 제한 해제)는 퉁캇알리(Tongkat Ali), 카시프 파티마(Kacip Fatima), 마사이 쿠칭(Misai Kuching), 두쿱아낙(Dukung Anak)과 담즙(Hempedu)에 초점을 둠
- 프리미엄 시장을 위한 과일 및 채소 생산 능력을 향상(EPP7)을 위한 프로그램은 파파야, 파인애플, 락멜론, 스타프룻, 잭프룻 및 바나나와 토마토, 고추, 상추에 초점을 둠
- 사업기회 프로젝트에서는 버튼 버섯 양식(BO8)과 잭프룻 같은 패키지 과일 생산(BO9)이 농업 정책과 관련됨

□ 식량안보정책(FSP, Food Security Policy)

- 적절한 가격에 쌀 구매가 가능한지, 재고는 충분히 있는지, 양은 충분한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식량 안보라 함
- 정책 목표
 - 2015년 까지 충분한 쌀 공급을 보장하며 29만 톤의 쌀을 비축하거나 45일간 공급 할 수 있는 쌀의 양을 비축하는 것
 - 논, 밭을 확대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쌀 생산력과 자체 보급력을 70%까지 증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정책 전략
 - 쌀 수입 계약에 맞는 야자유 혹은 기름 수출 계약을 장기로 맺어 쌀 수입량을 보장 받음
 - 사회기반시설의 향상 및 개선을 통한 창고 및 곡물창고의 생산성 증가

□ 2013년 농업 관련 예산안

- 농무부에 과일과 채소 생산의 고등 기술 적용, 품질 높은 종자 공급의 증가, 가격 안정화, 웰빙 프로그램을 위한 생선 시장 개설 및 농업 교육 협회 개선을 위한 예산 300억 링깃이 할당됨

- 야자유와 고무 그리고 고부가가치 약제 및 논 관련 농업 프로젝트로 15억링깃 할당
- 국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농림부에 58억 링깃 할당
- 식품 및 건강 제품 생산량 증가를 위해 7500만 링깃 할당
- NKEA 일환으로 오일 팜 리플란팅(Oli Plam Replanting) 프로그램을 위해 4.32억 링깃 할당
- Kota Belud, Batang Lupar, Rompin 과 Pekan 지역의 논과 곡창 확장을 위한 1.40억 링깃 할당
- 어부를 위한 장려금과 생활 보조금으로 2.3억 링깃 할당. 정부는 매달 200링깃의 생활 보조금과 1 킬로그램 당 10에서 20의 장려금을 줌
-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농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24억 링깃 할당

나. 농가 소득 변화

농가 소득 비교

단위: RM 백만

농가 소득	2분기 농가 소득	3분기 농가 소득
2005	12,856	15,169
2012	23,445	25,942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기술 발전과 국가 정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지 확장으로 인한 생산력 증가로 농가 소득은 꾸준히 증가
- 농업 인구가 줄고 있지만,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노동의 간편화와 고부가가치 상품 이익 창출로 농가 소득은 줄지 않고 오름세를 보임
- 10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 농업 경제 기여도를 2%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농가 소득도 계속 함께 증가 할 것으로 보임

3. 농식품 수출입 현황

가. 주요 수출 품목

- 상당 기간 동안 추진해온 NAP와 NKEA 및 말레이시아 계획 같은 정책과 함께 상품작물을 관리 하는 별도의 정부부서(Ministry of Primary Industry & Commodities)를 두고 야자유, 고무, 코코아 등의 수출을 육성
- 야자유는 NKEA 지정 품목 중 하나로 10차 말레이시아 계획과 NKEA 정책을 통해 연구 개발하고 투자를 늘리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야자유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상품 등을 생산하는 등 말레이시아 야자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 힘씀. 야자유 생산 및 수출이 세계 2위로 인도네시아 다음임

- 2012년 10월까지 수출한 야자유는 중국에 2,653만 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도에 수출한 야자유가 2,163만 톤임. 말레이시아가 같은 기간에 한국에 수출한 야자유는 31만 톤으로 24번째 임
- 최근 들어 농민들이 고무 대신 상품 가치가 높은 야자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 작년 대비 고무 생산량과 수출량이 감소

단위: 천 톤

2012년			
품목	생산	수출	주요 수출국
팜 오일 원유(10월 통계)	15,113	14,233 (세계 2위)	중국, 미국, 유럽, 인도
고무(9월 통계)	615	504 (세계 3위)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
코코아(9월 통계)	2,488	32,893 (세계 6위)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출처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Nationmaster.com

나. 對 대한민국 수출입 동향

-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에 수교를 하였으며, 2007년 서명한 **한-ASEAN FTA**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양국 간 FTA 협의 중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순식품수입국가로 분류되며 수입 및 검역 등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음
 - 농수산물의 무역수지에서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팜유 및 코코아로 인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성장률을 평균 30% 유지해 왔으나 작년 대비 올해 17.4% 수출액 감소
- 말레이시아와 FTA가 체결되면 진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기회요인
 -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 및 상품,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말레이시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힘입어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도 함께 상승
 - 육류가 첨가되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 음식은 친 할랄(Halal) 제품임
 - 위협요인
 - 3개의 주요 농업 정책의 시행 및 정착에 따른 식품 수입 감소
 - Halal 규정을 수입 식품에도 적용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중국 분유 및 식품 오염 문제와 일본 방사능 문제 등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검역과 검사 기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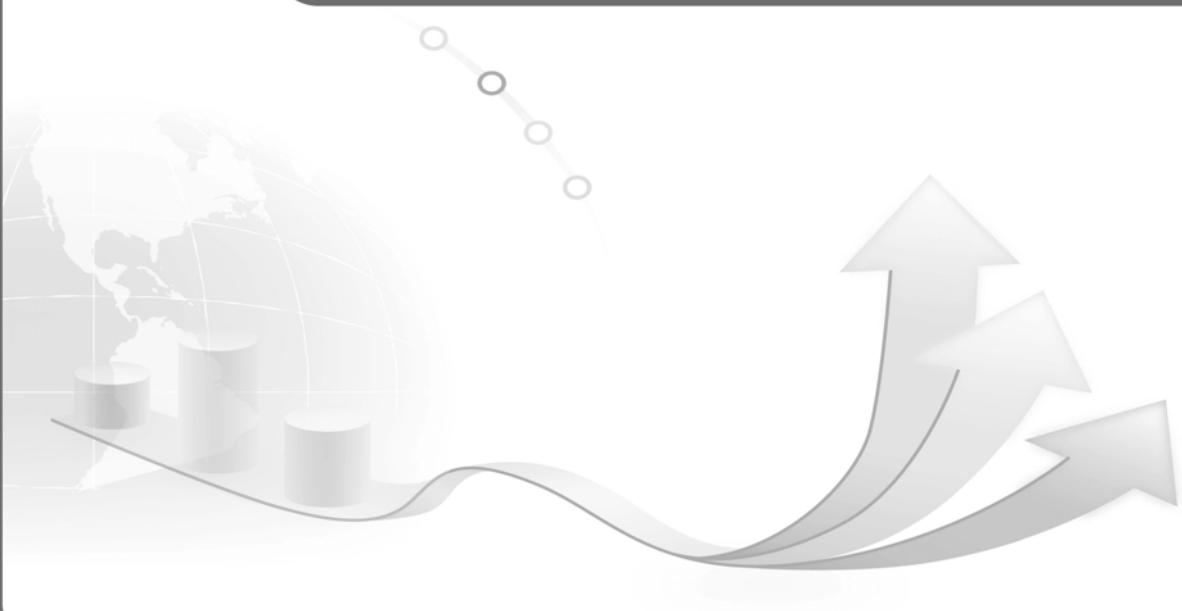
- 세계 경제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과, 물가 상승에 따른 말레이시아 경제 둔화
- 부가세 제도 도입: 말레이시아는 산업화된 국가 중 유일하게 부가세 제도가 없음. 그러나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부가세 (GST) 제도의 도입을 시도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법안을 제출 하였지만,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였음. 대부분 상인 및 기업단체들은 부가세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말이나 2013년 초에 총선 이후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임

4. 관세 현황 및 동식물 검역제도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ASEAN FTA 체결(2007년 6월)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점진적 관세 인하가 합의되었음
 -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인하시기와 인하율이 다양함. 구체적인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에서 검색이 가능함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은 유해성 농작물 규정 법안 1981(Agricultural Pests and Noxious Plants Regulations 1981)의 규제를 받으며 **현행 식물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입관세를 피해 수입되는 소주/담배 등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한국산 수입품에 검색이 강화될 경우 있으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 FTA 불이행 사항 없음
- 농산물 수입검사제도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며, 잔류농약 검사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고 농업부에서는 병충해 검역을 수행
 - 농식품부 산하 Pesticide Board of Malaysia에서 농약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면 사용 금지된 농약은 Parathion-methyl, Captapol, Chlordane, DDT, Folpet, Heptachlor, Sodium
 - Organophosphate pesticides 중 일부가 사용금지 또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승인이 났던 Methamidophos 와 Monocrotophos 농약 잔류량 문제로 사용금지 됨
- 검역관련 법령 : Plant Quarantine Act 1976 & Plant Quarantine Regulation 1981.
- 식품 잔류농약 관련 법령 : The Food Act 1983, Schedule 16 and Food Regulation 1985.
- 표기언어는 영어 또는 말레이어, 실 중량 표시 외 규제 미미

VIII

태국 농업 및 경제정책 동향 보고



1. 일반 · 정치

- 국 명 : 태국 (The Kingdom of Thailand)
- 위 치 : 동남아시아 (북위 : 5.37 ~ 20.27도, 동경 : 97.22 ~ 105.37도)
- 면 적 : 514천km² (한반도의 약 2.3배)
- 기 후 : 열대몬순 (건기 11월~2월, 우기 7월~10월, 열대기후 3월~6월)
- 수 도 : 방콕 (Bangkok)
- 주요도시 : 방콕(570만 명), 치앙마이(164), Nakhon Ratchasima(258),
- 기타 : Nakorn Srithammarat(152), Ubon Ratchathani(181), Udon Thani (154)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국왕 : Rama IX Bhumibol Adulyadej {총리 : 잉락 친나왓(2011.8)}

2. 사회 · 문화

- 인 구 : 6,700만 명 (2012.7)
- 민 족 : 타이족(75%), 화교(14%), 기타(11%)
- 언 어 : 태국어 (공용어), 영어 (상용어)
- 종 교 : 소승불교 (94.6%), 회교 (4.6%), 기독교 (0.7%), 기타 (0.1%)

3. 경제 · 무역

- G D P('11년) : US\$ 3,456억
- 실질 경제성장률 : 2.56%('08) → -2.36%('09) → 7.78%('10) → 0.10%('11)
- 1인당 GDP('11) : US\$ 5,151
- 화폐 단위 : Baht, Satang (1/100Baht)
- 환 율 : Baht 30.18 (2011년 평균환율)
- 산업구조 : 농업 41.3%, 제조업 13.6%, 도소매업 15.8%, 숙박·요식업 6.9%, 건설업 5.4%
- 교역규모 : US\$ 2,288억(수출), US\$ 2,285억(수입)

〈 태국 지도 〉



4. 한국과의 관계

가. 양국의 관계

- 1959. 1월 한국과 수교, 1975. 5월 북한과 수교하여 남북한 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전쟁에 UN군으로 참전하여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왔음
- 태국에는 약 25천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자는 약 130명임

나. 양국 무역현황

- 교역규모
 - 총 교역규모가 82억불('09), 116억불('10), 137억불('11)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태국은 한국의 14위 수출대상국이자 21위 수입대상국이고, 한국은 태국의 13위 수출대상국이며 6위 수입대상국

단위 : 백만 불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출	5,422	8,060	9,198
수 입	2,818	3,609	4,577
수 지	2,603	4,451	4,621

자료 : 태국 상무성

○ 수출입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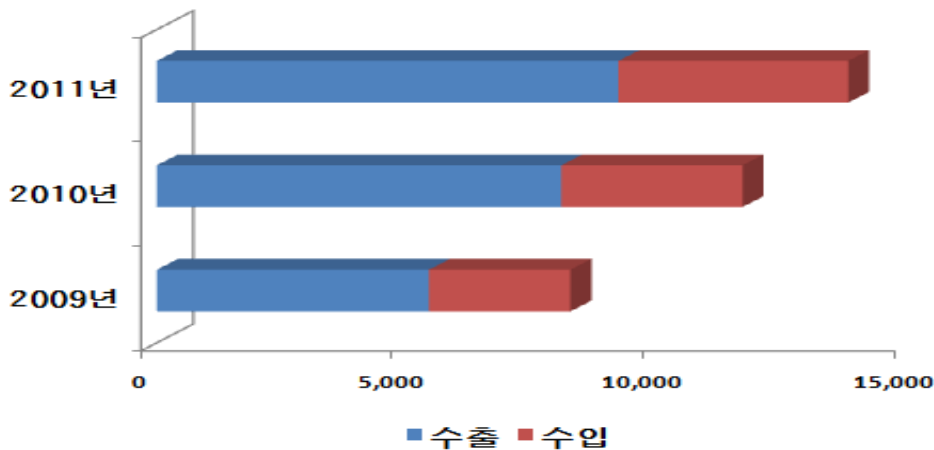
- 대 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스테인리스 강열강판,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자동차 부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직접회로 반도체, 천연고무,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HDD,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임

○ 2011년 현재 대 태국 무역동향은

- 총 수출액 : 전년(8,060백만 불)대비 12.3% 증가한 9,198백만 불
- 총 수입액 : 전년(3,609백만 불)대비 21.1% 증가한 4,577백만 불
- 무역수지는 전년(4,451백만 불) 동기대비 3.67% 증가한 4,621백만 불

〈 대 태국 무역 현황 〉

단위 : 백만 불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다. 대 태국 투자현황

○ 주요 투자업체

-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POSCO, 풍산, 한화케미칼 등

○ 대 태국 투자현황('08~'10)

단위 : 백만 바트

분야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업생산품	-	-	4	554.1	3	68.5
광물/세라믹	3	5619.2	-	-	-	-
섬유/경공업	3	114.9	3	298.8	4	106.6
기계/금속제품	12	317.0	3	117.5	6	345.6
전기전자	15	1580.8	11	4,948.7	34	1,964.2
화학/제지	14	838	6	292.8	3	84.7
서비스	9	803.2	4	66.3	1	3.0
합 계	56	9,273.1	31	6,278.2	51	2,572.6

II 경제 동향

1. 경제지표 및 정책

가. GDP 및 경쟁성장률

- 2011년 태국 GDP 규모는 2010년 대비 8.3% 증가한 3,456억불이며, 1인당 GDP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5,151불이다
-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1년도 태국 홍수사태로 인해 0.10%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홍수사태가 마무리되어 4.7%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억불)	1,763	2,070	2,469	2,725	2,637	3,189	3,456
1인당 GDP(불)	2,825	3,295	3,917	4,298	4,151	4,992	5,151
경제성장률(%)	4.60	5.15	5.04	2.56	-2.36	7.78	0.10
실업률(%)	1.85	1.52	1.38	1.39	1.50	1.04	0.70
외환보유액(억불)	521	670	875	1,110	1,384	1,721	1,783

자료 : Index Mundi, Thailand - 2010

나. 무역수지

- 2011년도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액과 수입액이 근소한 차이를 보임

- 고무, 플라스틱, 화학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음
- 2012년도에는 대홍수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쌀 등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무역수지 〉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11년	증감('11/'10)
수 출	177,757	152,422	195,302	228,825	17.16
수 입	179,223	133,703	182,927	228,490	24.91
무역수지	-1,446	18,722	12,379	334	-97.30
교역규모	356,980	286,125	378,229	457,316	20.91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다. 관광수입

- 2011년 대홍수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태국의 관광수입 증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주요관광지인 방콕과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는 피해가 없어 관광수입 감소로 크게 직결되지는 않음

라. 환 율

- 대 달러 바트화의 환율이 30.18바트로 지속적으로 약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평균 환율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환율 (Baht/U\$)	37.87	34.52	33.37	34.28	31.68	3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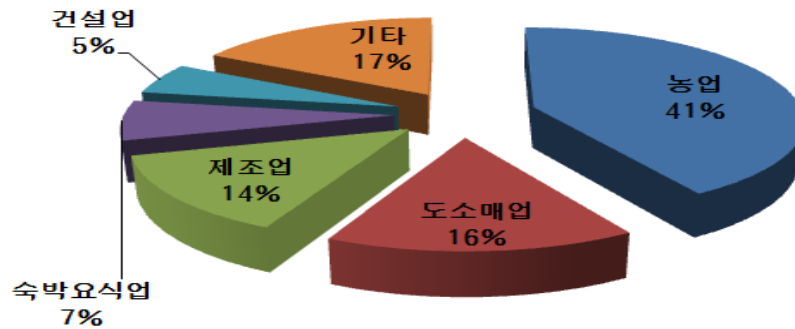
자료 : The World Facebook, Thailand - 2011.12, CIA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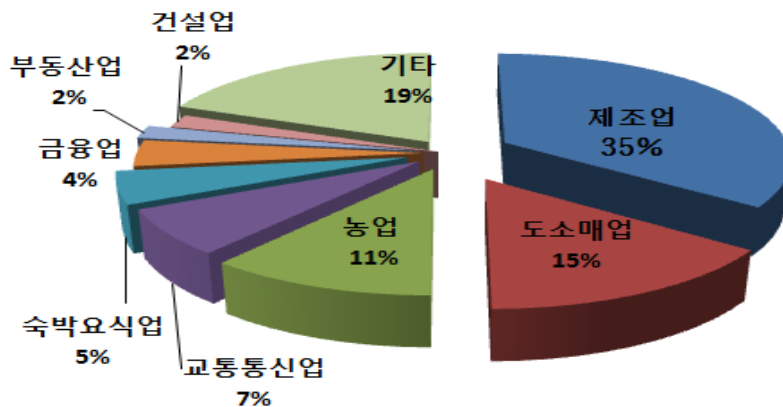
- 경제 인구 기준으로 농업 41.3%, 제조업 13.6%, 도소매업 15.8%, 숙박·요식업 6.9%, 건설업 5.4% 등으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업 국가임

〈 산업구조(경제 인구 기준) 〉



- 반면, GDP 기준의 산업구조는 농업 11%, 제조업 35%, 도소매업 15%, 교통/통신업 7%, 부동산업 2%, 숙박/요식업 5%, 금융업 4%, 건설업 2%, 기타 19%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산업구조(GDP 기준) 〉



나. 주요 산업별 동향

- 농식품 산업
 - 태국 농업인구는 1,544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1%에 해당하지만 농업생산은 GDP 구성 비율을 볼 때 전체 GDP의 11% 수준
 - 주요 농업 생산물은 쌀, 고무,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코코넛, 담배 등이며, 세계 14번째 쌀 생산국이자 1위 수출국으로서 주로 중부 평원에서 생산하는데, 연평균 2,200만 톤을 생산하여 약 750만 톤을 수출함
 - 수산업은 전체 GDP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업 인구는 45만 명이고, 주요 수출 수산물은 새우, 바닷가재, 오징어, 참치 등이며 특히 냉동새우가 가장 많이 수출됨

- 식품산업은 1970년대까지 제조업 중 20%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 높은 산업이었으나 2010년대 9%로 하락.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가공기술 발달로 냉동새우, 가공 닭고기, 과일통조림 등이 많이 수출됨
- 제조업
 - 제조업 종사자는 522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은 전체 GDP의 35%를 차지. 주요 제조업 분야는 전자, 자동차, 섬유, 식품, 철강, 화학 등
 - 자동차 산업은 전략육성 산업으로 아세안 지역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간 약 1,600만대를 조립생산 중으로 자동차 시장의 95%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음
- 도소매업
 - 전체 GDP에서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식 유통망과 재래식 유통망으로 구분 됨. 현대식 유통망은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이고 재래식 유통망은 구식 소매망인 재래시장
- 관광산업
 - 숙박/요식업이 GDP의 7%이며, 이외 기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2011년 태국을 방문한 약 1,900만 명중 주요 국가는 말레이시아(12.94%), 중국(9.22%), 일본(5.9%), 한국(5.9%) 등

3. 수출입동향

가. 총 괄

- '11년 태국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20.91% 증가한 4,573억불
- 수출 17.16%(2,288억불), 수입 24.91%(2,284억불) 증가
- 무역흑자는 334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

〈 태국의 수출입 동향('08~'11년) 〉

단위: 백만 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11/'10)
수 출	177,757	152,422	195,302	228,825	17.16
수 입	179,223	133,703	182,927	228,490	24.91
무역수지	-1,446	18,722	12,379	334	-97.30
교역규모	356,980	286,125	378,229	457,316	20.91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 2011년 한국과 교역규모는 137억불로 전년대비 18.04% 증가
 - 한국과의 수출은 26.8% 증가(9.7억불), 수입은 14.1% 증가(11.4억불)
 - 한국과 무역수지 적자는 46억불로 전년대비 3.8% 증가

〈 태국의 대 한국 수출입 동향('08~'11년) 〉

단위: 백만 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11/'10)
수 출	3,668	2,818	3,609	4,577	26.8
수 입	6,859	5,422	8,060	9,198	14.11
무역수지	-3,191	-2,594	-4,451	-4,621	-3.82
교역규모	10,527	8,240	11,669	13,775	18.04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나. 수 출

□ 지역별 수출

- '11년 대 아세안(9개국) 수출은 수출금액(543억불), 수출비중(23.7%) 모두 전년대비 증가
- 대 미국 및 EU 수출은 금액면에서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은 전년대비 감소
 - 대미국수출(비중) : ('10) 202억불(10.3%) → ('11) 218억불(9.6%)
 - 대EU수출(비중) : ('10) 218억불(11.2%) → ('11) 241억불(10.5%)
- 대 일본 수출은 금액과 비중 모두 증가한 반면, 기타지역 수출에서는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약간 감소함

〈 태국의 지역별 수출 동향('08~'11년) 〉

단위: 백만 불

지 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세안	40,151	22.6%	32,489	21.3%	44,333	22.7%	54,304	23.7%
일 본	20,093	11.3%	15,723	10.3%	20,411	10.5%	24,070	10.5%
미 국	20,274	11.4%	16,661	11%	20,200	10.3%	21,858	9.6%
E U	23,392	13.2%	18,153	11.9%	21,814	11.2%	24,156	10.5%
기 타	73,865	41.5%	69,400	45.5%	88,548	45.3%	104,438	45.6%
계	177,775	100%	152,426	100%	195,306	100%	228,825	100%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 주요 수출 국가

- '11년도 태국의 제 1 수출대상국은 중국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27.61% 증가한 274억불
- 2위는 일본 240억불 (17.92% 증가), 3위 미국 218억불 (8.21% 증가), 4위 홍콩 164억불 (25.49% 증가)이었으며, 한국은 태국의 13번째 수출국가

〈 태국의 주요 수출 국가('08~'11년) 〉

단위: 백만 불

순위	국 가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11/'10)
1	중 국	16,189	16,118	21,473	27,402	27.61
2	일 본	20,093	15,722	20,411	24,070	17.92
3	미 국	20,273	16,661	20,200	21,857	8.21
4	홍 콩	10,042	9,483	13,131	16,479	25.49
5	말레이시아	9,910	7,662	10,566	12,398	17.34
6	싱 가 포 르	10,111	7,573	9,009	11,450	27.09
7	인도네시아	6,324	4,667	7,346	10,078	37.18
8	호 주	7,982	8,578	9,369	7,997	-14.65
9	베 트 남	5,017	4,678	5,845	7,059	20.76
10	인 도	3,344	3,223	4,393	5,181	17.93
11	스 위 스	1,979	3,143	4,105	4,749	15.69
12	필 리 핀	3,512	3,021	4,885	4,640	-5.02
★13	한 국	3,668	2,818	3,609	4,577	26.80
14	네 덜 란 드	4,175	3,123	3,643	4,562	25.21
15	영 국	3,969	3,237	3,658	3,887	6.26
16	대 만	2,702	2,251	3,230	3,871	19.83
17	독 일	3,198	2,626	3,301	3,763	13.97
18	캄 보 디 아	2,039	1,580	2,342	2,905	24.05
19	미 얀 마	1,331	1,544	2,072	2,845	37.28
20	라 오 스	1,776	1,642	2,135	2,789	30.60
상위 20개국 합계		139,096	120,265	155,494	182,567	17.99
기 타		38,661	32,157	39,808	46,258	14.02
전 체		177,757	152,422	195,302	228,825	17.16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 수출구조

- 전체 수출의 약 70% 가량('11년 73.38%)을 공산품에 의존함
- '11년 공산품 수출은 1,600억불로 전년대비 11.87% 증가
- 2011년 농산물 수출비중은 12.94%이며 '11년도에는 296억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37.51% 증가

- '11년 농공산품 수출은 전년대비 32.16% 증가한 174억불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6%
- '11년 광물 및 연료는 전년대비 32.22% 증가한 138억불이며 수출비중은 6.05%

〈 태국의 수출 구조 ('08~'11년) 〉

단위: 백만 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 산 물	20,139	11.33%	16,429	10.78%	21,526	11.02%	29,601	12.94%
농공산품	11,714	6.59%	11,264	7.39%	13,222	6.77%	17,475	7.76%
공 산 품	133,826	75.28%	116,406	76.37%	150,085	76.85%	167,902	73.38%
광물·연료	12,095	6.80%	8,326	5.46%	10,472	5.36%	13,846	6.05%
기 타	0.3	0.0%	-	-	-	-	-	-
계	177,775	100%	152,426	100%	195,306	100%	228,825	100%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 주요 수출 품목

- 태국의 주력 수출제품은 컴퓨터와 자동차로, 2개 품목의 '11년 수출은 340억불로 전체 수출의 14.9% 가량을 차지
 - 금은보석, 전자집적회로, 폴리머, 화학제품 등 공산품과 쌀, 고무 등 농산품이 주력 수출 상품
- '11년도 수출증가세가 높은 품목으로는 인쇄물(90.86%), 설탕(68.89%), 고무(66.87%), 화학제품(43.52%), 폴리머(38.73%), 연료(31.25%)등이 있음

〈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08~'11년) 〉

단위: 백만 불

순위	품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 감 ('11/'10)
1	컴 퓨 터	18,384	16,017	18,836	17,064	-9.41%
2	자 동 차	15,585	11,120	17,712	16,984	-4.11%
3	고 무	6,791	4,305	7,896	13,176	66.87%
4	금 은 보 석	8,270	9,761	11,651	12,301	5.57%
5	연 료	7,913	5,428	7,071	9,281	31.25%
6	폴 리 머	5,520	4,457	6,343	8,800	38.73%
7	고 무 제 품	4,549	4,487	6,434	8,388	30.38%
8	화 학 제 품	4,309	4,466	5,778	8,293	43.52%
9	전자 집적 회로	7,241	6,444	8,066	7,901	-1.93%
10	쌀	6,204	5,046	5,341	6,507	21.84%
11	기 계 류	4,238	3,325	4,879	6,114	25.32%

순위	품 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 감 ('11/'10)
12	수 산 식 품	3,905	3,718	4,119	5,042	22.40%
13	기타 전기기계	3,755	3,343	4,490	5,022	11.84%
14	금 속 철 강	5,361	4,952	4,647	4,985	7.28%
15	방 송 기 기	3,149	3,167	4,025	4,237	5.27%
16	인 쇠 물	1,449	1,566	2,098	4,004	90.86%
17	에 어 컨	3,274	2,472	3,403	3,881	14.05%
18	설 탕	1,449	1,803	2,152	3,635	68.89%
19	의 류	3,505	2,961	3,205	3,275	2.16%
20	플 라 스 틱	2,692	2,294	2,855	3,262	14.28%
상위 20개 품목		118,220	100,864	131,428	152,169	16.15%
기 타		59,554	51,561	63,878	76,656	19.22%
전 체		177,775	152,426	195,306	228,825	17.16%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다. 수 입

□ 지역별 수입

- '11년 대 아세안(9개국) 수입은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
 - 대아세안수입(비중) : ('10) 276억불(16.5%) → ('11) 369억불(16.16%)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작년보다 감소
 - 대일본수입(비중) : ('10) 345억불(20.7%) → ('11) 421억불(18.45%)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액과 비중 모두 작년보다 증가
 - 대미국수입(비중) : ('10) 97억불(5.8%) → ('11) 133억불(5.85%)
- EU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액과 비중 모두 작년보다 증가
 - 대EU수입(비중) : ('10) 127억불(7.7%) → ('11) 178억불(7.81%)

〈 태국의 지역별 수입('08~'11년) 〉

단위: 백만 불

지 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세안	24,699	18.5%	30,362	16.6%	27,604	16.5%	36,918	16.16%
일 본	25,024	18.7%	37,855	20.7%	34,573	20.7%	42,162	18.45%
미 국	8,373	6.3%	10,677	5.8%	9,704	5.8%	13,377	5.85%
E U	12,049	9%	13,887	7.6%	12,727	7.7%	17,852	7.81%
기 타	63,558	47.5%	90,146	49.3%	82,244	49.3%	120,881	51.73%
계	133,703	100%	182,927	100%	166,852	100%	228,490	100%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 주요 수입국가

- '11년도 태국의 제 1 수입대상국은 일본으로 수입액은 전년대비 11.38% 증가한 421억불
- 2위 중국 305억불(26.17% 증가), 3위 UAE 144억불(64.73% 증가), 4위 미국 133억불(25.3% 증가)
- 한국은 태국의 6번째 수입국가로 증가세

〈 태국의 주요 수입 국가('08~'11년) 〉

단위: 백만 불

순위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11/'10)
1	일 본	33,534	25,024	37,855	42,162	11.38%
2	중 국	20,156	17,029	24,237	30,581	26.17%
3	U A E	11,151	6,666	8,783	14,468	64.73%
4	미 국	11,423	8,373	10,677	13,377	25.30%
5	말레이시아	9,726	8,574	10,728	12,326	14.89%
★6	한 국	6,859	5,422	8,060	9,198	14.11%
7	스 위 스	3,957	2,494	5,156	8,868	72%
8	호 주	5,164	3,825	5,908	7,945	34.48%
9	싱 가 폴	7,106	5,724	6,293	7,787	23.74%
10	대 만	6,219	4,797	6,815	7,502	10.08%
11	사우디아라비아	7,264	3,989	5,832	7,385	26.63%
12	인도네시아	5,409	3,800	5,692	7,369	29.47%
13	독 일	4,513	3,430	4,629	5,390	16.45%
14	러 시 아	2,862	1,692	3,224	4,518	40.12%
15	미 얀 마	3,376	2,781	2,813	3,268	16.15%
16	인 도	2,629	1,727	2,252	3,012	33.73%
17	필 리 핀	2,277	1,783	2,375	2,701	13.75%
18	오 만	2,623	2,074	2,488	2,615	5.09%
19	카 타 르	2,874	1,660	2,150	2,517	17.06%
20	홍 콩	1,958	1,730	1,817	2,339	28.72%
상위 20개국 합계		151,328	112,934	158,256	195,338	23.79%
기 타		27,895	20,769	24,670	33,152	31.91%
전 체		179,223	133,703	182,927	228,490	24.91%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 수입구조

- 전체수입의 약 70% 가량('10년 68.45%)이 자본재, 원재료 및 중간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재 비중은 9.5%

-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 779억불, 비중 42.62%
- 자본재 수입 472억불, 비중 25.83%
- 소비재 수입 173억불, 비중 9.5%

〈 태국의 수입구조 ('08~'11년) 〉

단위: 백만 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유 및 석유 제품류	37,255	20.79%	24,916	18.64%	32,167	17.58%	43,496	19.04%
자본재	43,476	24.26%	36,389	27.22%	47,241	25.83%	56,686	24.81%
원료·중간재	77,883	43.46%	53,967	40.36%	77,962	42.62%	98,107	42.94%
소비재	14,978	8.36%	13,538	10.13%	17,370	9.50%	20,954	9.17%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5,492	3.06%	4,621	3.46%	7,936	4.34%	8,861	3.88%
군수품	137	0.08%	271	0.20%	249	0.14%	384	0.17%
계	179,223	100%	133,703	100%	182,927	100%	228,490	100%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 주요 수입품목

- 태국의 제1 수입품목은 원유로 2011년 329억불 수입
- '11년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선박구조물(260.03%), 금은보석(101.65%), 석유(74.11%), 원유(35.17%), 비료(34.47%) 등이 있으며, 전기회로(-6.1%) 등은 수입이 감소세

〈 태국의 주요 수입 품목('08~'11년) 〉

단위: 백만 불

순위	품목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11/'10)
1	원유	30,159	19,151	24,408	32,992	35.17%
2	기계 및 부품	14,880	12,074	16,725	19,947	19.27%
3	금은 보석	8,856	5,477	9,877	19,917	101.65%
4	화학제품	12,644	8,667	12,585	14,923	18.57%
5	철강제품	13,759	7,383	11,730	13,898	18.49%
6	전기기계	10,742	9,394	12,162	13,339	9.68%
7	전기회로	9,197	8,106	10,764	10,107	-6.1%

순위	품목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11/'10)
8	철광석	8,004	4,747	7,512	8,947	19.11%
9	컴퓨터	7,815	6,827	8,145	8,607	5.67%
10	자동차부품	4,010	3,374	5,912	8,505	10.04%
11	채소 및 가공품	4,367	3,580	4,681	5,805	24.01%
12	가전제품	3,635	3,481	4,542	5,551	22.2%
13	천연가스	3,524	3,029	3,769	4,944	31.18%
14	과학, 시험장비	3,178	2,743	3,721	4,274	14.84%
15	금속제조기	3,260	2,491	3,683	3,968	7.74%
16	기타 제조용품	2,747	2,355	3,190	3,495	9.54%
17	비료	2,989	1,800	2,540	3,416	34.47%
18	플라스틱제품	2,779	2,300	3,130	3,356	7.21%
19	석유	1,379	964	1,659	2,890	74.11%
20	선박구조물	1,364	780	786	2,878	266.03%
상위 20 계		150,750	110,724	153,378	189,766	25.23%
기 타		28,473	22,979	29,549	38,724	23.34%
전 체		179,223	133,703	182,927	228,490	24.91%

자료 : 태국 상무성(<http://www2.ops2.moc.go.th/menucomen>)

4. 태국의 FTA 추진현황

가. 태국의 FTA 정책

- 2011년 기준, 태국은 ASEAN 및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 태국-일본, 태국-인도, 태국-중국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태국-페루 FTA는 협정체결 후 발효를 앞둔
- 태국은 FTA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양질의 제품을 수입하여 내수시장에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

나. 국가별 FTA 추진동향

- 태국 FTA체결 범위는 주요 교역국 외에도 서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지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태국은 BIMSTEC을 통해 서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블록 형성을 추진해왔으나, 회원국 간의 의견 조율문제로 진행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말 페루와 FTA 투자협정을 체결
- 한국과는 2006년 5월에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 정상회의에서 상품협정에 불참한 바 있으나, 2007년 12월 최종상품협정에 타결하고, 2010년 1월부터 정식 발효

〈 태국의 국가별 FTA 체결현황 〉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중국-아세안('05, 1월 발효) 호주('05, 1월 발효) 뉴질랜드('05, 7월 발효) 인도('05, 7월) 일본('07, 4월 체결 11월 발효) 한국-아세안('07, 6월 발효, 태국제외) 한국-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09, 6월) 인도-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09, 8월) 태국-페루 FTA 투자협정 서명('09, 11월)	미국 (잠정 중단) EFTA(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Gulf BIMST-EC ²⁸⁾ 파키스탄 멕시코

※ 기체결 : 협상완료 기준(협상타결, 국내비준 전 협정 또는 발표 포함)

자료 : 태국 상무부, 무역협회

III 농업 동향

1. 태국 농업현황

가. 현재 상황

- 농업부문은 국가 총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임
 - 총 농산물 생산액은 3,816억 바트(13조 8,139억 원)로 총 GDP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으로 쌀, 타피오카, 사탕수수, 팜오일이 꼽힘
- 낮은 생산성과 지속되지 않는 영농법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해짐
 - 대다수 농가들이 부채를 지는 등 가난한 편으로, 태국의 빈곤층은 약 5,400천명, 이중 56.9%가 농민이며 농가당 평균소득은 58,635바트(21백만 원), 부채는 54,409(20)바트임
 - 태국 농업의 약점은 가뭄, 척박한 농지(북동부와 북부지방), 농업용수 부족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음
 -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가격변동이 심해지고 있음
- 기후변화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탐구 본격화
 - 강수량, 평균 온도, 농사가능기간의 변화와 국가식량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연구 본격화

28)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간 다자간 경제협력기구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농업노동력 부족현상 발생
 - 청년층의 농업종사 기피현상과 농민의 고령화(50세 이상)가 계속 증가세임
 - 농민 수는 1998~2007년 매년 1.9%씩 감소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가 초래된 반면 인구증가로 식량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 바이오 에너지의 수요증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생 에너지자원인 바이오 에너지 진흥정책 및 계획을 추진 중임
 - 타피오카, 사탕수수, 팜오일과 같은 농산물의 수요증가로 가격상승이 전망되므로 농민들은 이러한 에너지농작물 생산에 더 치중할 것임
 - 이러한 상황이 태국의 농산물 수출경쟁력과 국가적 식량안보를 불안하게 함

나. 주요 농업지표

- 경작지역
 - 태국의 지형은 북부, 북동부, 중부, 남부로 구분되며, 농경지 분포비율은 북동부 지역이 44%, 북부지역 22%, 중부지역 19%, 남부지역 15%임
 - 농경지 면적은 2,105만 ha로 전 국토면적의 41%로, 그중 50%가 논이고 과수원 20%, 고지대 밭 22%, 기타 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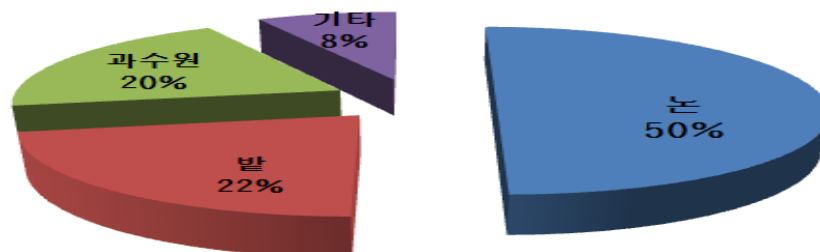
〈 농지 이용현황 〉

단위: 천ha,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총 면 적	51,311	51,311	51,311	51,311
농지면적	20,846 (40.6%)	20,856 (40.6%)	21,085 (41%)	21,055 (41%)

자료 :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Land Use

〈농지면적 이용현황〉



자료 :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Land Use

○ 농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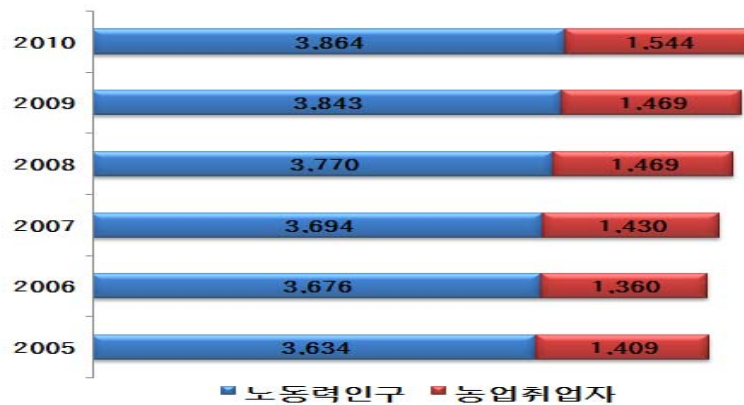
- 태국 농업인구는 1,544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0.3%에 해당하지만 농업생산 GDP는 전체의 11% 수준에 불과함

〈 노동력인구 및 농업취업자 비율 〉

단위: 만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동력인구	3,634	3,676	3,694	3,770	3,843	3,864
농업취업자	1,409	1,360	1,430	1,469	1,469	1,544
비율	38.8	37.0	38.7	38.9	38.2	39.9

자료 : 통계국 "Report of the labor Force Survey, Whole Kingdom"



다. 농업정책 기본방향

○ 목 적

- 농업부문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식량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 고용안정화,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여 농가의 자생경쟁력 강화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농업 정책에 농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독려

○ 목 표

- 총 GDP에서 농업부문의 비율을 16%까지 증가
- 부채청산이 가능한 수입보장 및 고용안정화를 통해 청년층의 농업 유입 유도
-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가를 2016년까지 50%로 증가
- 일일 최소 에탄올 6.2백만 ℓ, 바이오디젤 3.6백만 ℓ 증대

○ 지 표

-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농산물 부가가치 비율
- 농산물 생산비용의 변동
- 매년 인가받은 농가 수의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지역의 증가

- 순 가계소득 중 순 농가가계소득의 비율
- 전체 농업인구 중 신규 진입인구의 비율
- 자급이 가능한 농가의 증가율, 병충해 농약사용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농가수의 감소율
- 작물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농가의 수
-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력과 열의 양

○ 기본방향

- ▶ 농업부문 강화를 위한 천연자원 기반강화
- ▶ 농업생산성 증대 - 최우선 과제
- ▶ 농업생산물 부가가치 창출
- ▶ 농업부문의 안정된 고용 및 수입
- ▶ 식량안보 구축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 ▶ 농업부문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안정화
- ▶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관리 개혁

라. 주요 농업 정책

농업부문 강화를 위한 천연자원 기반강화

- 경작가능 토지 보호 및 보전, 소규모 농민들의 경지소유 및 경작농지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지원
- 농지개혁을 위한 사유지 수용절차 가속화
- 농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조직 설립
- 농업부문 강화를 위한 천연자원 기반 개발
- GAP와 농업규범 촉진 및 회복

농업생산성 증대 - 최우선 과제

- 농업 R&D 강화,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동·식물종자 개발강화
- 민간 R&D 지원, 지리적으로 균형이 맞는 농업생산 촉진
- 병·해충 활용 및 수입 관련기준 통제
- 기초 농업생산 지원서비스 강화
- 기후환경조건과 부합하는 기초 생물다양성 권장
- 농업 지식, 과학과 기술 강화와 개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 식량 및 에너지 생산가치 증대를 원하는 지역사회 지원
-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과 식량의 품질 강화

- 생산비용 절감기술 및 고수익양식업의 개발과 강화
- 축산물 부가가치 창출
- 소비자기준을 충족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한 생산농가,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 농산물 선물시장과 무역시장 강화
-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농산물 및 식량관리 역할확대 장려
-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관리 강화

□ 농업부문의 안정된 고용 및 수입

- 전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입보험시스템 개발
- 작물보험 시스템 개발 가속화, 농업계약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농업으로의 청장년층 유인
- 농민 자립심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농업제도, 협동조합, 소규모 지역기업 개발
- 아세안 경제지역 통합을 앞두고 식품산업 중심국가로서의 태국 홍보

□ 식량안보 구축과 바이오 에너지 개발

- 농민과 지역사회에게 소유지 및 공동체의 산림지역에 식목을 권장
-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식량 관련 지식전파 및 식량연구 권장
- 지역사회 생산물과 소비 네트워크 연결
- 도시고형폐기물, 농업부산물 등의 폐기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노력하는 지역 사회 지원
-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식량안보 메커니즘 강화와 사회기반시설 구축

□ 농업부문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안정화

- 에너지 작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강화
- 식량 및 에너지를 위한 농산물 관리시스템 구축
- 바이오에너지 생산효율성 향상
- 바이오에너지 가격 모니터링 메커니즘 제공
- 효율적인 바이오에너지 사용인식 제고

□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관리 개혁

-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한 농산물 계획 및 지침의 제정을 위해 농민, 지역 학회 네트워크, 민간부문, 지역사회의 참여 장려
- 정부조직의 실행절차 조정
- 식량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농업개발관련법 제정
- 아세안 경제협력체와 같은 다자 또는 양국 간 국제협력 강화

마. 농가소득 변화

- 태국 농가당 월 소득은 메트로방콕(방콕과 인근지역)이 41,631바트(1.5백만 원)로 가장 높고 뒤이어 남부, 중부, 북동부, 북부지역 순임
- 향후 태국의 농가당 소득은 태국 쌀 수매가격 상승으로 더욱 향상할 것으로 전망함

〈 태국 농가당 월 소득 〉

단위: 바트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전체	13,736	14,963	17,787	18,660	20,904	23,236
메트로방콕	28,239	28,135	33,088	35,007	37,732	41,631
중부지역	14,128	16,355	19,279	18,932	20,960	20,822
북부지역	9,530	10,885	13,146	13,568	15,727	17,350
북동부지역	9,279	10,139	11,815	12,995	15,358	18,217
남부지역	12,487	14,469	18,668	19,716	22,926	27,326

자료 : The Household Socio-Economic Surve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 농산물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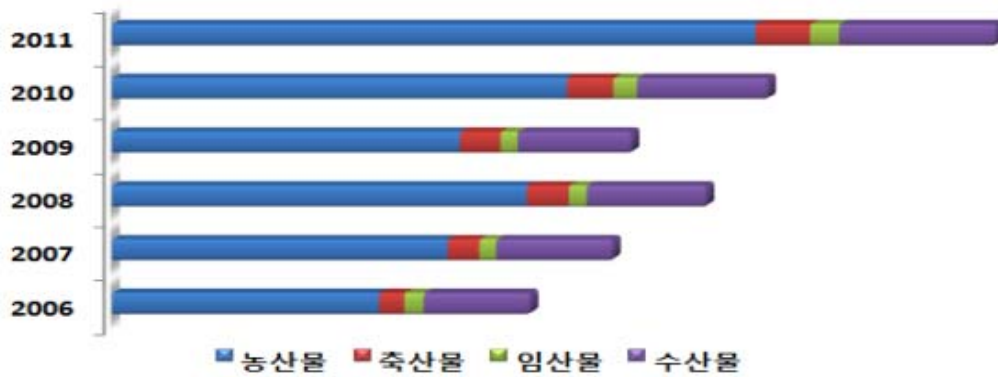
가. 수출 현황

- 2011년 태국 농식품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25.7% 증가한 48,139백만 불로, 이중 농산물이 전체 수출규모의 81.1%인 34,998백만 불이었고, 축산물이 2,996백만 불, 임산물이 1,581백만 불, 수산물 8,564백만 불이었음
- 2006~2008년 태국의 농식품 수출은 매년 15%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12.5%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함
- 주요 수출품목은 쌀, 카사바, 설탕, 고무, 냉동새우 등임

〈 연도별 농식품 수출현황('06~'11) 〉

단위: 백만 불

품 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산물	14,537	18,263	22,554	18,933	24,774	34,998
축산물	1,365	1,739	2,330	2,206	2,508	2,996
임산물	1,065	909	939	938	1,280	1,581
수산물	5,824	6,363	6,561	6,228	7,167	8,564
전체	22,791	27,274	32,384	28,305	35,729	48,139
증감율	21.4%	19.6%	17.1%	-12.5%	20.7%	25.7%



자료 : GTA Statistics

나.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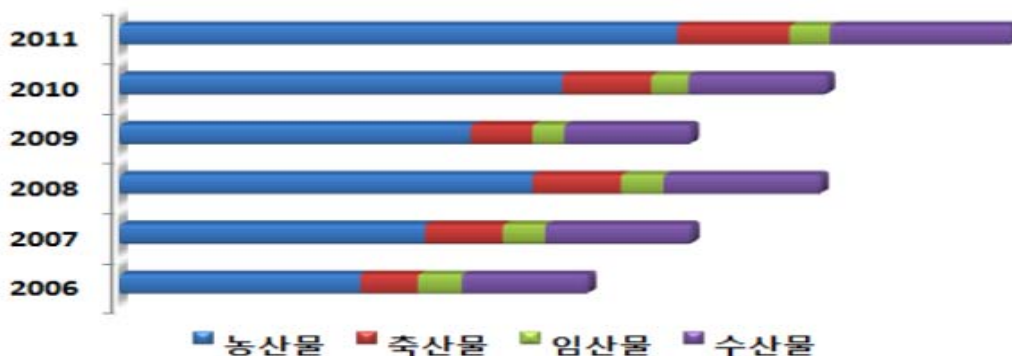
□ 연도별 수입현황

- 2011년 태국 농식품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13,586백만 불로, 이중 농산물이 62.3%인 8,475백만 불이었으며 축산물 1,712백만 불, 임산물 607백만 불, 수산물이 2,792백만 불이었음
- 2007~2011년 태국의 농식품 수입은 매년 20%가량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 전년대비 -22.6% 하락하였다가 '11년 다시 20.7%로 급격하게 상승함

< 연도별 농식품 수입현황('06~'11) >

단위: 백만 불

품 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산물	3,656	4,638	6,272	5,338	6,723	8,475
축산물	879	1,191	1,353	939	1,363	1,712
임산물	666	643	647	483	558	607
수산물	1,937	2,239	2,401	1,941	2,126	2,792
전체	7,138	8,711	10,673	8,701	10,770	13,586
증감율	0.3%	22.0%	18.3%	-22.6%	19.2%	20.7



자료 : GTA Statistics

□ 주요 수입 농식품

〈 품목별 수입현황('09~'11) 〉

단위: 백만 불, 천 톤

	2009		2010		2011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대두	698.1	1,534.5	820.3	1,818.7	1,228.2	1,994.3
면화	487.8	349.6	738.1	383.7	1,123.9	319.2
대두박	886.0	2,076.6	1,065.6	2,615.5	1,097.2	2,398.6
밀	314.5	1,104.8	448.9	1,699.5	505.7	1,426.2
기타조제 식품	234.4	32.4	269.9	37.9	377.3	553
동물용 사료	178.6	190.3	214.1	225.8	243.9	229.7
맥아 엑스	144.6	49.0	175.2	58.4	220.7	67.4
위스키	122.3	28.8	155.8	33.6	177.3	32.1
사과	100.0	121.0	124.0	128.9	136.1	123.4
맥아(볶지 않은것)	115.3	180.7	95.1	170.0	120.1	208.4
담배	81.3	10.6	108.3	13.2	118.3	13.8
식물성 기름	44.2	51.9	58.6	46.0	113.9	58.8
밀가루	48.4	116.9	72.2	177.4	109.0	225.2
유아용 조제식품	88.0	15.5	98.2	16.1	101.1	15.8
평지씨 오일케익	76.9	300.4	73.5	257.2	84.7	304.0
커피	8.5	6.2	23.8	14.2	84.1	34.3
팜유	0.01	0.007	-	-	77.3	59.7
포도	57.1	42.6	53.1	41.5	71.1	57.8
양조 폐수	69.7	326.8	71.8	294.3	65.8	225.1
코코아	54.2	19.1	75.3	21.0	64.3	19.3
만다린	24.9	38.6	24.3	30.7	62.2	73.8
식용 혼합유	18.4	10.4	31.0	16.5	56.5	26.6
버섯	16.5	2.3	31.3	3.0	48.8	5.6
당과제품	31.0	8.6	36.5	10.1	46.9	12.0

자료 : GTA Statistics

- 태국의 주요 수입농식품으로 대두(1,228백만 불), 면화(1,123), 대두박(1,097), 밀(505) 등 가공원료들이 대부분임
- 주로 수입되는 과실류는 사과(136백만 불), 포도(71), 배(30), 복숭아(22) 등으로 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온대과일들이 대부분임

다. 주요 농식품 수입국

□ 농산물

〈 2011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

단위: 백만 불, %

국가명	수출액	점유율	주요 수출품목
브라질	1,500	17.7	대두(769), 대두박(635), 면화(69), 펙틴물질(9), 담배(4)
미국	1,391	16.42	면화(486), 대두(203), 밀(168), 기타 조제식품(117), 동물 사료(84), 양조폐수(65)
중국	853	10.7	사과(88), 만다린(59), 버섯(48), 기타 조제식품(46), 포도(37), 당근과 순무(33), 배(30)
호주	711	8.4	면화(264), 밀(209), 맥아(69), 맥아 엑스(59), 와인(11), 기타 조제식품(7)
아르헨티나	484	5.71	대두박(336), 대두(126), 면화(12), 동물 사료(4), 초콜렛(1)
말레이시아	466	5.5	식물성 기름(80), 팜유(43), 맥아 엑스(30), 커피 엑스(29), 기타 조제식품(27), 식용 혼합유(27)
인도	345	4.08	대두박(122), 면화(57), 파마자유(38), 평지씨 오일케익(26), 고추(13), 밀(11)
인도네시아	310	3.67	팜유(33), 코코넛(32), 채소(24), 식물성 기름(22), 와플(22), 코코아 콩(20), 쿠키(18)
영국	207	2.45	위스키(163), 맥아(6), 기타 조제식품(5), 맥아 엑스(3), 감자(2)

자료 : GTA Statistics

- 태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은 전체수입액의 17.7%를 차지하는 브라질로 연간 1,500백만불 규모의 농산물을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뒤이어 미국(1,391), 중국(853), 호주(711), 아르헨티나(484) 순임
- 태국의 국가별 수입신선농산물 품목
 - 미국 : 사과, 포도, 체리, 딸기
 - 중국 :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 호주 : 포도, 오렌지, 감귤, 체리, 딸기
 - 한국 : 딸기, 사과, 배, 포도

□ 축산물

- 태국의 최대 축산물 수입국은 전체 수입액의 21.43%를 차지하는 뉴질랜드로 연간 366백만 불 규모의 축산물을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265), 미국(171) 순으로 축산물을 수입함
 - 주 수입 품목은 유제품과 가축이고, 한국에서는 돼지내장을 수입함

〈 2011 국가별 축산물 수입현황 〉

단위: 백만 불, %

국가명	수출액	점유율	주요 수출품목
뉴질랜드	366	21.43	유제품(283), 소/말가죽(5)
호주	265	15.5	맥아엑스(59), 유제품(56), 울(33)
미국	171	10.01	유제품(56), 소고기(41), 소/말가죽(14)
★한국	1	0.1	돼지내장(1)

자료 : GTA Statistics

□ 수산물

- 태국의 최대 수산물 수입국은 전체 수입액의 10.29%를 차지하는 대만으로 연간 287백만불 규모의 수산물을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285), 중국(231), 한국(181), 일본(172), 인도네시아(154) 순
- 주 수입 품목은 참치, 냉동식품, 고등어, 오징어, 김 등

〈 2011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

단위: 백만 불, %

국가명	수출액	점유율	주요 수출품목
대만	287	10.29	참치(279), 고등어(1.4)
미국	285	10.22	참치(205), 연어(27)
중국	231	8.30	참치(88), 정어리(28), 고등어(24), 김(17)
★한국	183	6.57	참치(158), 김(11), 오징어(1)
일본	172	6.18	참치(90), 고등어(24), 정어리(7), 오징어(7), 김(0.7)
인도네시아	154	5.54	냉동식품(91), 참치(43), 오징어(7)

자료 : GTA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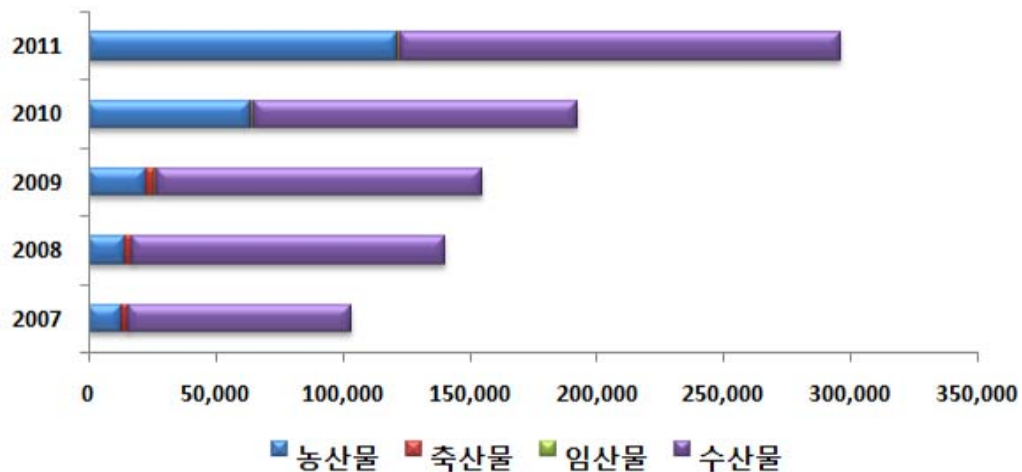
라.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연도별 수출현황

- '11년 대 태국 한국 농식품 수출규모는 296백만 불이며, 한국산의 고급이미지 및 한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

단위: 천불,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93,082	140,516	153,103	155,093	129,422	192,353	150,292	296,545
농산물	9,433	14,482	19,430	22,893	22,855	64,042	40,909	121,495
축산물	3,071	2,930	4,583	3,789	463	588	570	653
임산물	59	163	340	676	912	898	1,646	962
수산물	80,517	122,940	128,747	127,733	105,189	126,823	107,166	173,433



자료 : KATI Statistics

□ 주요 수출 농식품

- 주요 수출품은 참치, 김, 사료, 돼지고기, 면류, 과자류 등이며, 신선농산물의 경우 딸기, 단감, 채소종자, 배가 있음

단위: 천 불, 톤

품명	2008		2009		2010		2011		증감 ('1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참치	61,632	91,877	111,725	101,214	86,419	92,316	86,574	131,299	29.6%
김	690	11,530	743	9,596	964	13,472	960	14,730	8.5%
사료	15,007	12,497	18,987	14,735	20,687	17,069	19,248	16,983	-0.5%
쇼트닝	-	-	-	-	8	838	30	4,425	81%
돼지고기	2,372	1,786	3,933	2,871	316	228	350	235	2.9%
면류	354	1,303	418	1,252	497	1,573	864	2,377	33.8%
과자류	116	440	147	565	245	998	350	1,545	35.4%

품 명	2008		2009		2010		2011		증감 (’1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오징어	745	731	4,702	5,015	2,945	4,561	737	1,400	-225.7%
주류	506	628	371	517	762	582	503	811	28.2%
단감	198	257	322	409	225	364	193	348	-4.5%
인삼류(kg)	308	48	217	39	176	34	484	77	55.8%
채소종자	6	484	4	384	4	427	4	434	1.6%
소스류	78	133	103	141	169	255	270	476	46.4%
고등어	3,352	2,083	1,913	1,047	2,050	1,575	3,907	3,907	59.6%
딸기	10	89	45	305	110	989	126	1,209	18.1%
배	16	29	48	90	21	45	53	119	62.1%

자료 : KATI Statistics

마. 한국 농식품 유통현황

- 고급백화점 식품매장
 - 태국의 최고 상류층 소비자가 많은 Paragon, Emporium에는 수출전략품목으로 처음 소개한 딸기, 단감을 비롯하여 제과류, 라면류, 장류, 면류, 조미김, 아이스크림 등이 유통 중임
 - Central World, Central Chidlom, Isetan, Tokyu 등 고급백화점에는 단감, 라면류, 제과류, 조미김 등이 유통되고 있음
- 일반백화점 식품매장
 - The mall, Robinson, Central백화점에는 주로 현지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지점에는 라면류, 조미김, 제과류, 단감 등 고급백화점에 비해 품목이 제한됨
- 하이퍼마켓
 - Tesco-Lotus, Big-C, Makro Cash&Carry 등 하이퍼마켓에는 계절과일인 단감, 배, 딸기가 수입시기에만 판매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은 라면류, 제과류, 조미김 등이 유통되고 있음
- 슈퍼마켓
 - Tops, Max valu, Foodland, Villa Market, Fuji Market 등 슈퍼마켓에서는 주로 라면류를 주로 취급하며, 제과류와 조미김 등도 유통되고 있음
- 편의점
 - 태국 내 지점수가 많은 7-eleven과 Family Mart에서는 몇 종류의 한국 라면류가 유통되고 있음

3. 관세 현황

가. 관세제도 개황

- 태국관세제도의 기본법으로 “CUSTOMS LAW B.E.2469”가 있으며, 동법이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었음
- 관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ROYAL DECREES, MINISTERIAL REGULATIONS, NOTIFICATION 등이 있으며 관세담당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며 조직은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함
- 수입관세를 결정하는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분류한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의 과세표준×세율로 결정됨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과 수량(종량세) 2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동시에 적용되는 품목일 경우 세금이 높은 방식을 적용

나. 관세평가제도

- 평균 시장가격
 - 관세청이 초안하여 Royal Ordinance of the Department 형태로 고시되며 주로 원목, 가공목재와 같은 일부 수입품목과 수출 품목에 적용됨
 - 시장평균가격을 산출하는 담당부서는 관세청 Valuation Division 이며 매 3개월마다 시장평균가격을 고시함
 - 계산방식은 3개월간의 총 수입량을 총 수입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최저수입가격
 - 관세청은 철판, 화학제품 등 몇몇 품목에 대하여 최저 수입가격을 Notification of the 관세평가부서 형태로 매월 말에 고시하며 한 달간 유효함
 - 관세청의 고시에는 품목, 최저가격, 원산지 등이 표기되며, 한 달 동안의 수입 평균가격 및 최고수입가격을 기초로 산출됨
- 추정과세가격
 - 종가세 적용받는 품목 중 상기 시장평균가격이나 최저수입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칙령이나 공고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국의 추정가격으로 관세를 평가함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송장에 가격을 최근 3개월 내 태국에 수입된 동일브랜드, 모델, 규격, 원산지의 최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원자재의 경우, 최근 한 달 내 최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 관세 확정

- 관세청은 과세기준을 3개월마다 공고하나 이의제기할 수 있음
- 수입자의 잘못으로 HS 코드, 관세율, 수입가액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자 책임

- 수입자는 관세청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탁금을 납부하고, 수입품을 세관창고에서 찾아갈 수 있음
- 수입업자가 관세청에서 결정한 과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세청 내 관세평가부서에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신청된 이의신청은 특별전문가로 구성되는 관세위원회에 이송되며, 관세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구속력을 가짐
-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자는 기 납부한 기탁금에서 관세가 공제된 잔액을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함

라. 관세평가

- 수입업자가 물품세,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일반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수입업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특히 HS 코드, 수입관세를 검토한 후 관세액을 결정함
-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수입관세 납부를 위해 서류를 경리부로 이송하고 부적절한 경우 기탁금 납부를 명령함

마. 과세환율의 적용시기

- 관세청 관세평가부서는 매월 수입물품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 환율을 고시하며, 기준 환율은 매월 28~29일경 발표되어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유효함

바. 대 태국 농식품 수출 시 관세율

- 태국은 쌀 가공식품 등 자국 산업 보호차원의 과세유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FTA 체결로 관세해택을 받음
-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민간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태국 수출 시 30~40% 과세를 지불해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 FOB금액의 40% 이상의 가치를 생산한 제조국가나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산출방식 : $VOM/FOB \times 100\%$, $(FOB-VNM)/FOB \times 100\%$

※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원료 가격, 직접노동, 직접경상, 운송, 이익을 포함한 가치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CIF 가격 또는 원료 최초 지불가격

- 아울러, 사용된 원재료의 HS코드와 생산된 제품의 HS코드 앞자리 4자리가 변경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음

사. 관세해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인 AK Form을 발급 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태국의 경우 상무부이며, 한국은 세관(47개)과 상공회의소(67개)에서 실시함

- 제3국 송장을 발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3자의 회사명, 국적 등을 기재해야 함
- HS Code는 수입국의 HS Code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 파악이 중요함. 참고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원산지 효력을 인정함

4. 동식물 검역제도

식물 검역제도

가. 법체계

- 식물검역법이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임
-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은 장관규칙 또는 공고를 통해서 규정

나. 용어의 정의

- 식물(Plant) : 식물과 그 일부(생사여부 불문)
-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병해충 및 운반매체
-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병해충 및 운반매체
- 비금지물품(unprohibited material)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이 아닌 식물
- 식물검역장(plant quarantine station)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장소
- 격리검역장(post-entry quarantine station)
 - 식물 및 금지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장소
- 식물병해충방제지구(plant pest control area)
 - 식물병해충을 방제 또는 박멸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지역

다.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 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라. 제한물품(Restricted materials)

- 금지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짖,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및 코코넛

- 사탕수수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유동나무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녹두, 수수 및 난과 식물

마. 감귤류 과실의 수입요건

- 수출국은 태국 농업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 한다
 - 감귤병해충의 목록
 - 효과적인 감귤소독방법
- 태국과 수출국 간에 다음 사항을 합의해야 함
 - 소독처리, 처리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에서 검사방법, 태국의 반입항에서 검사방법

바. 금지품 수입

- 금지품은 방콕항, 방콕공항 및 방콕우체국을 통해서만 수입하여야 함
- 농업국장이 발부한 수입표찰을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금지품은 농업국장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사전 수입허가 필요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사. 제한물품 수입

- 식물검역장을 통해서 수입하여야 함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아. 비 금지물품 수입

- 비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통보해야 함

자. 수수료

- 식물검역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 또는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부과함

동물 검역제도

가. 동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태국으로 동물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태국 가축개발부에서 수입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동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동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수입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입자와 수입자 대리인의 신원확인서가 함께 첨부하여야 함
-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요건이 포함된 수입승인 발급 전에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요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개발부의 동물 건강요건에 따라 수입할 동물들을 미리 준비 및 점검과 증명을 위해 원산지의 수의청으로 수입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함
- 수입동물 관련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정확한 도착 날짜를 도착 전 최소 3일 전에 확증해야 함

○ 수입 시 절차

- 국제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통관수속 시 임시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증명서는 수입동물이 도착한 후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육종을 목적으로 한 수입동물은 수입세를 공제받기 위해 동물 혈통 증명서 혹은 다른 증서를 수입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제출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동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목록, 포장 목록, 항공 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세워진 태국 내각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 함

○ 수입 후 절차

- 도착 직후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동물 검역시설로 이동됨
- 검역기간 동안, 질병에 대한 규정된 검사와 조회를 위해 모든 수입동물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이동 혹은 검역 시 수입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 모든 관계자 및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함
- 이 경우,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규제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함
- 최종 수입증서는 모든 수입동물의 규정된 심사가 통과된 후, 태국의 수입검역이 완료되어 최종 목적지에 동물들이 도착될 시점에 발급될 것임

나. 축산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축산물을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태국 가축개발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입국 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의 수의청에 연락하여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축산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신청서는 수입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함
- 태국 가축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 사항이 포함된 수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 원산지의 동물 질병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음
-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의 동물 건강 요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임
- 수입자는 태국 가축개발부에서 제정한 동물 건강 요건을 준수하고 수입 축산물 점검 및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수의청에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함
- 수입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장비 필요시, 정확한 도착 날짜를 수입 전 최소 3일 전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에 확증해야 함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 시에 임시 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동물이 도착하는 대로 종합점검 전에,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임
- 수입자는 수입할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리스트, 패키징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함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불해야만 함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축산물은 승인된 검역 시설로 이동되며, 검역 기간 동안, 적합한 실험을 거친 검사와 조회를 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샘플이 수집될 것임
- 최종 수입증서는 수입하려는 축산물이 심사를 통과하고, 태국의 수입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축산물이 방출할 시점에 발급될 것임

다. 동물 혹은 축산물 수송 시

- 동물 혹은 축산물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송 시 태국에서 환승이 이뤄질 경우 국제동물검역소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함
- 절차
 - 동물 혹은 축산물을 태국 환승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송하려는 자는 이동하기 최소 3일 전 항만에 있는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함
 -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이동 승인을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공식 건강증명서, 청구서, 가격목록, 포장목록,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세관 수속을 위한 수송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의 일반적인 건강 검사와 필요시 소독을 진행하여야 함
 -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은 검역시설로 옮겨지며, 소유자는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소유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태국 내각 규정에 명시된 수송비를 지불해야만 함

라. 동물/축산물 수송 및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대리자 임명에 대한 공문과 대리자의 신원확인증 사본, 주택 등록증 사본
 - ※ 수입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임명해야함
- 법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법인 등기 증명서 사본, 대리인 임명 공문, 대리인 신원증명서 사본
- 상업용 목적이 포함될 경우
 - 동물 무역 허가증
 - ※ 이 허가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축부에서 적용됨